

# 디자인 충남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전문센터

vol.8 June. 2019

#### 발행

2019년 6월 30일

#### 발행인

윤 황

#### 발행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041-840-1123

[www.cpdcre.kr](http://www.cpdcre.kr)

#### 기획

박혜은

#### 디자인 및 편집

김성희 · 오병찬 · 방재성

#### 협력기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 제작 · 인쇄

삼성애드피아



# CONTENTS

## Issue

- 002 협력적 디자인 관리체계  
: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과 과제  
심경미 연구위원

## Review

- 010 프랑스 항구도시 라 로셸(La Rochelle)  
: 등대를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  
김종현 교수
- 022 Reboot Milano  
: 포르타 누오바 계획(Progetto Porta Nuova)  
김태한 교수

## Level up

- 036 단위사업의 통합적 디자인 관리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  
강인호 교수

## Team 천안시

- 050 시민이 참여한 공공미술 전시사업  
: 천안시 『오늘미술관 프로젝트』  
송영민 팀장

## Focus on 센터 정책연구 및 소식

- 060 2018년도 정책연구 성과
- 066 2019년도 정책연구 소개
- 067 센터 소식

## 국내 정책동향

- 072 중앙부처
- 087 광역지방자치단체
- 117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협력적 디자인 관리체계 :

##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과 과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역재생연구단\_심경미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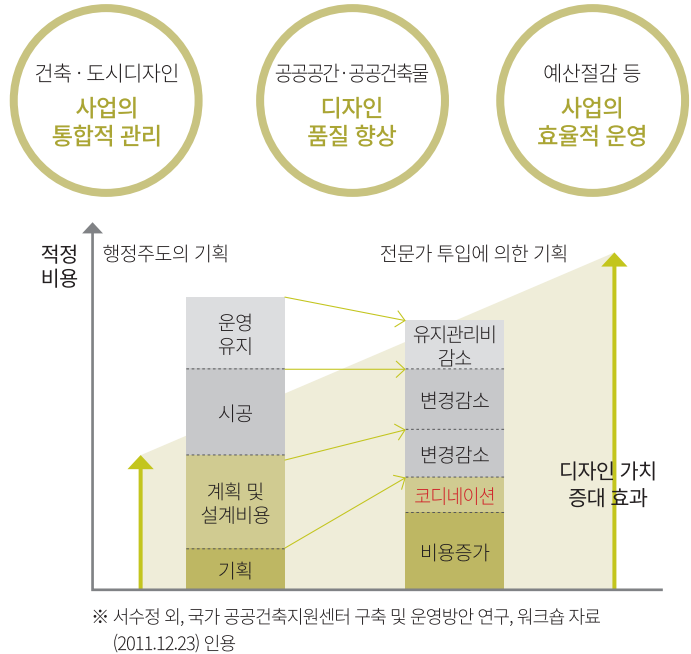
###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공공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이다. 지역의 공공건축과 공간·환경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지금까지는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기획이나 발주 업무는 단순한 행정업무로 수행되어 왔으며, 지역의 맥락이나 특성과 무관하게 개별적, 산발적, 획일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부서별 성과 위주로 진행되면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추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시설 간 연계를 하기 어려운 구조로 진행되거나, 설계단계에서 잦은 변경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공공사업 예산을 낭비하는 동시에 오히려 디자인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장소 중심의 종합적인 디자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지자체 공공사업의 업무를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참여시켜 행정을 지원하는 ‘협력적 디자인 관리체계’이다. 구체적으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공공건축가의 참여를 통해 공공사업의 ‘기획단계’를 강화하고, 좋은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방식 단계’를 지원한다. 또한, 디자인 리뷰나 설계의도 구현을 통해 ‘설계 및 시공단계’ 품질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단계’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관리체계이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비슷한 예산으로 더 좋은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디자인 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예산 낭비를 막아 향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건축물이 지역특색에 맞게 조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의 효과

## 민간전문가 유형과 역할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자격기준은 건축사,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 건축·도시 또는 조경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 교수(부교수 이상)이다<sup>1)</sup>.

민간전문가 유형은 크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도시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주요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전문가(지역 총괄)인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와 개별 공공사업 등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사업 총괄)인 ‘공공건축가’로 대별된다.

1)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장소의 가치를 향상하는 일과 좋은 공간·환경 디자인을 만드는 일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의 방향이 일관성을 갖도록 하고, 지역 특성 및 여건에 적합하게 진행되도록 종합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업무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는 특정 장소에 여러 부처의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호 간 업무내용 공유나 협의 없이 진행되어 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관련 사업 간의 업무 공유 및 연계, 조정, 중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합 마스터플랜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 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이 지역(장소)이 추구하거나 만들어 가야 할 비전과 목표를 담는다.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등의 추진방향과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따라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관련 부서 또는 사업 간 연계조정 시 일관된 방향으로 자문 또는 조정 역할을 하는데 매우 유효하다.

한편, 도 또는 특·광역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는 위의 업무 외에도 보다 많은 인원의 공공건축가를 운영해, 필요시 사업 특성에 적합한 공공건축가를 관할 시·군·구 단위에 파견해주는 업무지원을 맡는다. 또한, 관할 시·군·구 단위에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을 교육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를 도입한 기초단위 지자체가 아직까지 많지 않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리 역량이나 예산 측면에서 여력이 부족한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도 단위에서는 국가 또는 도 예산이 투입된 관할지역 교부금 사업의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건축가 참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초단위 공공사업의 디자인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시·도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sup>2)</sup>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기초자치체의 사업기획을 관리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므로 조속한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공건축가’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단위의 공공사업에 대하여 ‘기획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시의 경우, ‘신진’, ‘중진’, ‘MP형’ 등 세 가지 유형의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경우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업무

##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국내에서는 영주시가 최초로 민간전문가(도시건축관리단장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에 처음으로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였고, 2012년에 디자인 관리단장(현 도시건축관리단장)을 위촉해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다. 그 결과,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디자인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 등의 성과가 있었고,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이 조성되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주시 외에 서울시도 2012년에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2014년에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2013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이후,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다.<sup>3)</sup>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일부개정 '18.12.18, 시행 '19.12.19)

3)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4년 간 총 16개의 지자체에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을 시행. 부여군과 세종특별자치시, 서울시 서대문구 등은 지원사업 완료 이후에도 자체 예산으로 지속 운영 중



▲ 영주시 수상 공공건축물: 조제보건진료소



▲ 영주시 수상 공공건축물: 풍기읍사무소

서울시와 영주시의 성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18년에 충청남도 당진시, 용인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019년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원주시, 춘천시, 진주시, 파주시, 경상남도 교육청 등이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순천시, 제주특별자치도 등도 제도 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최근 총리의 영주시 방문 이후 발표된 정부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sup>4)</sup>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 제도는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아직까지 이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낮고, 활동이 가능한 민간전문가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 장을 포함하여 건축, 도시, 조경, 경관, 디자인, 관광 등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① 총괄조정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위상을 정립하고, ② 업무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③ 전담인력과 지원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④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지자체가 민간전문가 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운영체계의 목표이기도 하다.

첫째,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가 참여할 정책부서 및 사업 부서와의 업무 공유를 위해 정책회의 참석 정례화, 사전 협의 체계 마련, 자문대상 사업 구체화, 기획 및 설계단계별 자문 시점 공유 등 업무협조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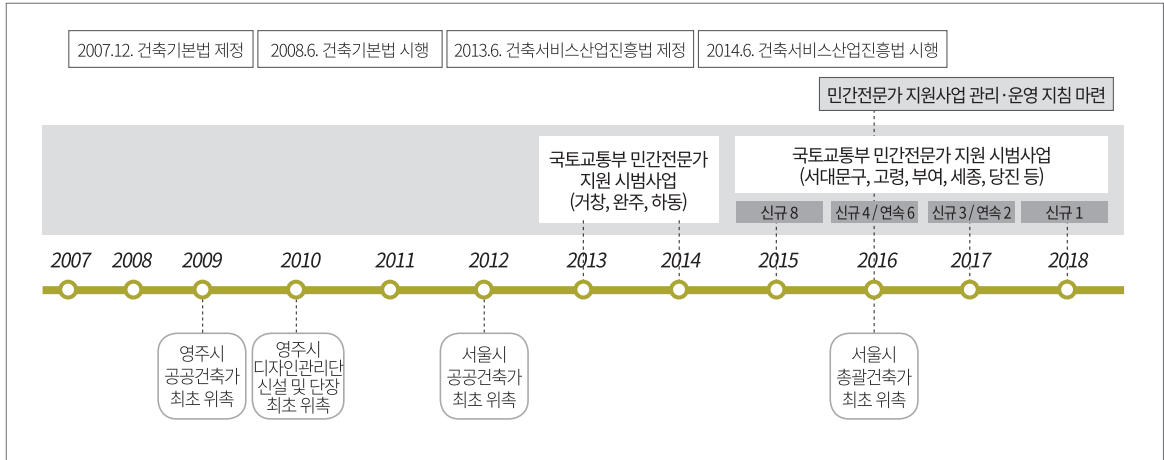
둘째,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의 지위를 부단체장 지위로 임명하고,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를 위원장으로 겸임하여 위촉, 운영한다.

셋째,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업무지원과 공공건축가 운영·관리업무를 기본으로 수행할 전담지원인력 및 실무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조직은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한 부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넷째, 민간전문가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기본조례」에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운영’과 ‘실무지원단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외부의 민간전문가와 행정가들의 협조체계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며,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관리체계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로의 역할과 업무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민간전문가는 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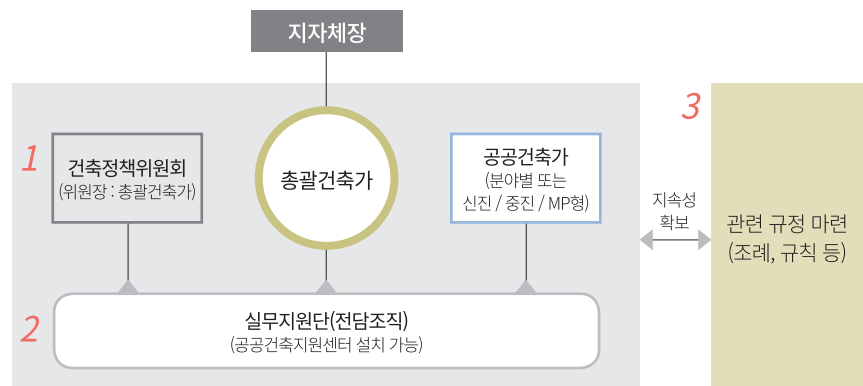
4)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4월 17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함(정책브리핑, 2019.4.18.일자)



▲ 국내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운영 연혁

담당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새로운 디자인 관리체계를 통해 지역의 디자인 경쟁력과 업무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를 기회로 삼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지역에서 민간전문가가 원활히 활동하는 데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이므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그러나 실패 및 성공 사례 모두 이 제도의 운영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민간전문가 제도의 시행 과정 및 성과를 모두 꼼꼼히 기록해야 하는 이유다. 단기간에 큰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 디자인 경쟁력과 행정역량 강화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문가 및 공무원 교육', '지원사업 추진'은 지속되어야 한다.



▲ 민간전문가 운영체계

#### 사진출처

사건건축홈페이지, 영주시 공공건축가 참여 프로젝트(기획설계)

# REVIEW

---



010 프랑스 항구도시 라 로셸(La Rochelle)  
: 등대를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

김종헌 교수

022 Reboot Milano  
: 포르타 누오바 계획(Progetto Porta Nuova)

김태한 교수

프랑스 항구도시 라 로셸(La Rochelle) :

## 등대를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



배재대학교 건축학부\_김종헌 교수(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위원장)

### 1. 라 로셸역

육지나 바다에서 별자리는 방향을 가늠하는 일종의 이정표다. 등대는 바다에서 이 별자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물이다. 즉, 하늘의 별자리를 바다에 설치한 셈이다. 등대는 철도와 더불어 18세기와 19세기 세계사의 핵심으로 제국주의 및 식민지 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라 로셸 철도역사 중앙에는 높은 시계탑이 있는데, 그 위에 등대의 등롱 같은 첨탑이 놓여있다. 라 로셸역사는 모든 철도역사가 그러하듯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다. 라 로셸역사는 일종의 진출구 역할을 했다. 대서양에서 잡아 올린 수산물들이 라 로셸역사를 통해 프랑스의 모든 도시로 나아갔다. 그런데 지금 라 로셸역은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의 모든 도시에서 휴양과 관광을 위해 몰려드는 진입구로 변화였다.

▼ 라 로셸(La Rochelle) 기차역 - 도시와 도시의 연결점





▲ 바다로부터 도시의 시작점 - 등대는 도시와 분리된 독립적 요소가 아님



▲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경관요소로서의 발레인 등대(1854)

## 2. 도시의 시작점 발레인 등대 (Phare des Baleines)

라 로셀 역사가 라 로셀과 프랑스의 다른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점이라고 한다면, 발레인 등대(Phare des Baleines)는 바다로부터 라 로셀로 연결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등대는 단지 홀로 고독하게 세워져 있을 뿐인 독립된 구조물이 아니라 바다로부터 도시를 연결하고 있다. 발레인 등대는 마을이나 도시의 입장에는 땅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바다에서 보면 마을이나 도시로 진입하는 시작점이다. 라 로셀은 이러한 점을 도시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라 로셀역사에서 발레인 등대까지 혹은 발레인 등대에서 라 로셀역사까지. 그 사이에 마을이 있고 도시가 있고 사람들의 삶이 있다. 그 삶은 그 지역 사람들의 삶만이 아니다. 이곳을 좋아하고 즐기 위해 찾아온 외부 사람들의 삶이 들어와 라 로셀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든다.

그런데 우리나라 등대는 도시나 마을에서 고립되어 있다. 바다를 향해하는 배들에게 뱃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로서의 기능만을 기대할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인공위성으로 인한 전자 안내장치인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어 등대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도시나 마을과 연결이 끊어진 등대는 이제 무의미하다.





▲ 도시와 마을을 연결하는 등대 - 등대는 독립적인 요소가 아님



▲ 등대와 주변 경관 - 등대가 도시의 연결점이지만 등대의 고독한 특성을 절묘하게 유지하는 방법

사실 우리나라 도시디자인의 문제는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각각 끊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 집은 옆집이나 윗집과 단절되어 있고, 동네의 작은 슈퍼나 서점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삶이 연결되어야 하는 지점을 백화점과 대형 할인매장을 연결하는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발레인 등대가 단순히 마을과의 연결만 고려된 것은 아니다. 그곳에는 1682년 축조된 구 발레인 등대와 1854년 신축된 새로운 발레인 등대, 그리고 그 주변의 경관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러한 옛 정취 덕분에 발레인 등대는 시작점으로서 마을을 연결하는 동시에, 고유의 고독한 느낌을 절묘하게 유지하고 있다.



▲ 라 발레인 구등대 (1682)





▲ 석회 마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구 발레인 등대 - 17세기로의 시간 여행 ▼ 훼손된 벽돌을 통해 시간의 흔적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함 - 17세기로의 시간 여행







▲ 가장 좋은 전시는 등대 원래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 패널과 조명 시설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섬세하게 배치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구 등탑을 등대박물관으로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박물관의 전시 방법이 독특하다. 좋은 전시는 시간의 흐름을 지니고 있는 그 등탑의 원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벽돌을 마감한 석회가 떨어져 나간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가 하면, 등탑으로 오르는 벽돌 계단의 표면이 벗겨진 상태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서 폭격을 받아 끊어진 계단 실은 그 자체가 전시물이 되고 있다.



▲ 1차 세계대전에 의해 폭격된 계단, 그 자체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전시물

이러한 흔적들은 현재 삶과의 연결을 끊어 놓는다. 동시에 이러한 시간의 흔적들은 17세기로의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해 주는 통로가 된다.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흔적들을 통해 17세기에 도달했음을 몸으로 느낀다. 등대박물관도 화려한 패널이나 거창한 조명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을 최소화하여, 언제든지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또한, 비록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하기는 했으나, 배치와 디자인은 세심하게 고려되었다.





▲ 등대 방문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생생하게 해주는 뮤지엄 샵의 기념품들

그런데 이곳의 가장 좋은 전시물은 사실 등대가 아니라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경관 요소이다. 알바 알토가 설계한 ‘파이미오 요양원’에서 환자의 건강이 좋아져서 가족과 함께 햇빛을 즐기는 경관이 가장 중요한 치료방법이 되었던 것처럼, 발레인 등대에 와서 이를 즐기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진다. 발레인 등대에 설치된 뮤지엄 숍은 단순히 기념품을 쌓아 놓고 파는 상점이 아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기억을 더욱더 생생하게 해 주는, 그 추억을 연장하는 보조 장치를 팔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 기념품들은 매우 소중하고 세련되었다. 이곳에서의 추억과 같이.



### 3. 라 로셀 해양박물관에서 보여준 건축가의 도시 디자인 전략

원래 라 로셀은 16세기까지는 보르도를 제치고 프랑스 서부에서 가장 큰 항구였다. 우리나라 울산과 같이 선박을 건조했던 선박 공장으로도 유명했던 곳이다. 지금은 선박 건조는 하지 않는다. 대신 국제 요트경기가 열리는 유명한 휴양도시가 되었다. 라 로셀에서 도시 디자인 전략이 돋보이는 곳은 해양박물관이다. 해양박물관이 위치한 곳은 과거에 선박을 건조했던 곳이다. 거대한 선박을 건조했던 장소를 박물관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크기와 높이를 지닌 건축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인구 8만 명이 살고 있는 조그만 도시이다. 지나치게 큰 박물관은 8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겨울에는 관광객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박물관을 디자인한 건축가는 컨테이너 몇 개를 모은 후, 이를 빨강, 노랑, 파랑의 원색 텐트를 이용하여 색상을 강조함으로써 박물관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선박을 건조했던 현장은 컨테이너 전시장 사이를 통해 나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굳이 이를 실내 공간 안에 집어넣어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로써 조선소로서의 도시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해양박물관의 전시물이 되었다.

▼ 건축가의 도시전략 - 크기나 높이를 높이는 박물관이 아닌 색상을 통해 차별화한 해양박물관





▲ 배 안의 병원



▲ 배안의 식당

이곳에 있던 배들은 하나하나가 문화유산(Heritage)이 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배들은 그냥 전시되는 용도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운행이 되면서 관리를 받고 있다. 유산의 가장 좋은 활용은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 해양박물관의 가장 좋은 유물은 역시 배의 선체 내부이다. 전시 중인 선체 내부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안에 있는 병원이 보인다. 뜻밖의 장면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이곳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건강이 가장 중요한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기관실이 보이고, 주방이 보이고, 식당이 보인다. 침실도 보인다.

▼ 건축가의 도시전락 - 크기나 높이를 높이는 박물관이 아닌 색상을 통해 차별화한 해양박물관







▲ 배 안의 주방



▲ 배 안의 침실

우리의 일상과 똑같은 생활이 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배라는 특성에 따라 공간이 다소 다르게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한편 조타실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해온 선원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다. ‘바다’ 그리고 ‘배’라는 조금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또한,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전시장은 라 로셀에서 수산물들이 어떻게 철도역사까지 운송되는지 등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결국, 해양박물관은 라 로셀의 도시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다.

▼ 조선소로서의 도시 역사가 해양박물관의 전시물



#### 4. 등대는 마을 경관의 중심

라 로셴의 뷔엑스(Vieux)항 입구의 해안 성벽에는 ‘뚜어 데 라 란턴(Tour de la Lanterne)’이라는 1468년에 세워진 탑이 있다. 양초에 불을 밝혀 항로표지 기능을 수행했던 탑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등대가 세워져 있다. 앞에서 언급한 1682년에 세워진 구 발레인 등대와 1894년에 세워진 새 발레인 등대를 비롯해 마을 중심에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두 개의 등대가 등불을 밝히고 있다. 등대가 마을 경관의 중심인 셈이다. 비록 5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지만 이 두 등대 사이로 배가 다니고 있다. 아직도 이곳은 배가 교통의 중심이다. 그것은 도시가 도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동차 이용을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것이지 자동차를 위한 게 아니다. 특히, 라 로셴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자전거 중심도시이다. 이로 인해 걷기에 매우 편한 도시가 되었다. 도로에서 자동차를 배제하자 그 도로를 사람들이 채웠다. 사람들은 편안하게 바다의 풍광과 도시의 역사를 즐기며 자신의 삶을 라 로셴의 도시 풍광에 집어넣는다. 나도 그들을 따라 라 로셴 도시 풍광의 하나가 되었다.

▼ 등대는 마을 경관의 중심



▼ 라 로셴의 마을 풍경 - 가운데 첨탑은 라 로셴 철도





마을 중심에 높이 솟은 시계탑이 보인다. 이 모습은 라 로셸 철도역사에서 봤던 모습이다. 15세기 도시 경관의 핵심적인 모습이 라 로셸 철도역사에 구현된 것이다. 바다에서부터의 시작점과 프랑스 각 지방으로 연결되는 라 로셸이 끝나는 종점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라 로셸의 도시 정체성 아닐까?

도시 디자인의 정체성은 마을이 갖고 있는 역사적 자산을 찾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라 로셸’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역사의 첨탑의 중심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 라 로셸의 풍경이 되고 있는 관광객들



Reboot Milano :

## 포르타 누오바 계획 (Progetto Porta Nuova)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김태한** 교수

천안시에서는 스마트 도시플랫폼, 천안역 권역 도시개발사업 등 역세권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2년까지 총 6,21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천안역 서측에는 스마트 도시플랫폼 외에 청년주택, 공공상생상가, 복합환승센터, 첨단지식산업센터, 상업·업무 복합시설 등이 유치될 예정이며, 동측에는 천안 소재 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창업 학습 및 문화 활동 관련 시설이 집약된 캠퍼스타운(연면적 3만7000㎡, 3층 규모)이 건립될 예정이다. 천안시의 역세권 뉴딜사업은 LH와 코레일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쇠퇴한 역세권을 재생시키는 첫 사례로 추진되고 있다.<sup>1)</sup>

천안 역세권 뉴딜사업의 경우처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여러 방안이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도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탈리아 밀라노다. 밀라노는 2015년 EXPO를 중심으로 21세기에 부합하는 도시 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천안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슬럼화되는 철도시설을 포함한 권역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https://news.joins.com/article/23017866>



▲ 밀라노 포르타 가리발디 역사(Stazione di Milano Porta Garibaldi)<sup>2)</sup>

## 밀라노 가리발디 역사(Stazione di Milano Porta Garibaldi)

밀라노 중앙역(Stazione di Milano Centrale) 동남쪽에 위치한 밀라노 포르타 가리발디 역사는 1961년 밀라노 비즈니스 지구(Centro Direzionale di Milano) 조성을 위해 구 포르타 누오바 역사(Stazione di Porta Nuova)를 대신한 교통인프라 사업의 결과다. 현재 스위스 끼아쏘(Chiasso), 토리노(Torino) 등 국내·외를 연계하는 국철(Trenitalia)이 운행 중이며, 1997년부터는 밀라노 연계노선(Passante Ferroviario di Milano)이 개설되어 밀라노 지하철 환승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밀라노의 중요한 교통 허브인 셈이다. 2006년에는 역사 노후화 및 주변 슬럼화로 인해 실내외 집기와 조명, 새로운 상업 공간을 추가하는 역사 개선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2년에는 역사와 연계된 가리발디 타워(Torri FS Garibaldi)가 리뉴얼 공사를 통해 새롭게 단장되었다.

이러한 역사 현대화 및 주변 인프라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밀라노 비즈니스 지구 내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던 포르타 가리발디 권역을 고도화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형성되었다. 이에 밀라노 시는 권역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 ‘포르타 누오바 계획(Progetto Porta Nuova)’을 추진하게 된다.

2) <https://www.milanofoto.it>

[https://it.wikipedia.org/wiki/Stazione\\_di\\_Milano\\_Porta\\_Garibaldi](https://it.wikipedia.org/wiki/Stazione_di_Milano_Porta_Garibaldi)



▲ 포르타 누오바 계획부지 전경<sup>4)</sup>

## 포르타 누오바 계획(Progetto Porta Nuova)<sup>3)</sup>

포르타 누오바 계획은 밀라노 포르타 가리발디 역사에서 밀라노 중앙역사 전면의 레 푸블리카 광장(Piazza della Repubblica), 포르타 누오바(Porta Nuova)에서 롬바르디아 주청사(Palazzo Lombardia)에 이르는 ‘밀라노 비즈니스 지구’를 개선한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이다. 2005년에 시작하여 약 10년간 진행되었으며, 총 340,000㎡에 이르는 계획부지에 사무동 57,000㎡, 상업공간 11,000㎡, 보행공간 160,000㎡, 문화공간 20,000㎡, 최고급 아파트 370호가 조성되었다. 포르타 누오바 계획은 2017년 기준, 20여 개의 건축사무소와 2,000여 명의 작업자가 참여한 총사업비 2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최대 도시재생사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재생사업은 가리발디(Zona Garibaldi), 바레지네(Zona Varesine), 이솔라(Zona Isola) 3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도시계획 측면에서 건축적 중요성을 지니는 20여동 이상의 고층건물, 사무동, 문화센터, 빌라가 준공 중이다. 이중 이탈리아 최고층 건물인 유니크레딧 타워(Torre Unicredit)와 수직 정원으로 널리 알려진 보스코 베르티칼레(Bosco Verticale)는 밀라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3) [https://it.wikipedia.org/wiki/Progetto\\_Porta\\_Nuova](https://it.wikipedia.org/wiki/Progetto_Porta_Nuova)

4) [https://it.wikipedia.org/wiki/Progetto\\_Porta\\_Nuova#/media/File:Milano\\_skyline\\_02.jpg](https://it.wikipedia.org/wiki/Progetto_Porta_Nuova#/media/File:Milano_skyline_02.jpg)

5) [https://milano.corriere.it/foto-gallery/cronaca/14\\_maggio\\_23/area-porta-nuova-passerella-ae93b1ce-e243-11e3-ac6b-33bb804580af.shtml](https://milano.corriere.it/foto-gallery/cronaca/14_maggio_23/area-porta-nuova-passerella-ae93b1ce-e243-11e3-ac6b-33bb804580af.shtml)

6) [https://milano.corriere.it/gallery/milano/05-2013/passarella-melchiorre-gioia/variabili.xml/passarella-via-melchiorre-gioia\\_a2541ec8-b330-11e2-b198-926b52542ff3.shtml?title=\(Fotogramma\)%2526pos=7](https://milano.corriere.it/gallery/milano/05-2013/passarella-melchiorre-gioia/variabili.xml/passarella-via-melchiorre-gioia_a2541ec8-b330-11e2-b198-926b52542ff3.shtml?title=(Fotogramma)%2526pos=7)





▲ 멜키오레 죠이아 가(via Melchiorre Gioia)의 보행자전용 교량 및 보도<sup>5)</sup>



또한, 보행자 중심 계획의 일환으로 포르타 가리발디, 포르타 누오바, 이솔라 및 밀라노 비즈니스 지구를 연계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유동인구를 증대함으로써 도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왕복 6차선으로 단절된 가에 아우렌티 광장(Piazza Gae Aulenti)과 알바 알토 광장(Piazza Alvar Aalto)을 잇는 68m의 보행자 전용 교량이 설치되었으며, 유니크레딧 타워를 중심으로 조성된 사무·상업지구, 솔라리아(Solaria), 솔레아(Solea), 아리아(Aria) 고층 주거타워로 구성된 고급 주거지구의 보행자에게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스튜디오 Arup에서 설계한 이 교량은 거대한 단일 구조물로 이루어져 유럽 최대규모의 크레인으로 시공되었다. 또한, 권역별로 조성된 보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밀라노에 새롭게 조성되는 스카이라인을 조망할 수 있는 총 연장 900m의 보행자 전용 도로를 완성하고 있다.

▼ 멜키오레 죠이아 가의 보행자전용 교량 시공 과정<sup>6)</sup>





▲ 포르타 가리발디 역사에서 바라보는 가에 아우렌티 광장 진입로 전경<sup>7)</sup>



▲ 가에 아우렌티 광장 진입로의 천정<sup>8)</sup>



▲ 가에 아우렌티 광장의 상업공간 및 조형물 벤치 전경<sup>9)</sup>

## 가에 아우렌티 광장(Piazza Gae Aulenti)

포르타 누오바 계획의 주요 재생사업으로 주변 도로에서 6m 부지를 높인 가에 아우렌티 광장은 이탈리아 최고층 건물인 유니크레딧 타워를 정점으로 직경 100m의 원형광장의 형태로 조성되었다. 프랑스 오르세이 미술관(Musée d'Orsay) 설계자인 이탈리아 여성 건축가 가에 아우렌티(Gae Aulenti)로부터 유래된 이 광장은 아르헨티나 건축가 세자르 펠리(César Pelli)의 건축물과 이탈리아 조경스튜디오 Land의 협업을 통해 가장 우아한 유럽 도시 중 하나인 밀라노의 새로운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광장 북서측에는 밀라노 교통 허브인 포르타 가리발디 역사가 연계되어 있어, 밀라노 비즈니스 지구의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의 고도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광장 안쪽은 1층 상점지역으로 둘러싸인 환상형 보행자 공간과 그 내측의 직경 60m의 수경시설이 유려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벤치로 구획되어 있다. 계절에 따라 건물에서 발산되는 다채로운 색상은 수변공간에 투영되어 방문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수경시설 내부에는 광장 지면으로부터 아래로 2층 높이 정도 낙하하는 3개소의 타원형 벽천이 자리하고 있다.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이 벽천 덕분에 광장 진입구로 유입되는 도로 소음이 감쇄되며,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촉진한다. 덕분에 방문자가 광장에서 지하 공간에 이르기까지 위요감을 느낄 만큼 쾌적한 공간이 조성된다.

7) 필자 촬영

8) 필자 촬영

9) 필자 촬영

10) <https://www.archdaily.com/379624/piazza-gae-aulenti-aecom/>

11) <https://www.archdaily.com/379624/piazza-gae-aulenti-aecom/>





▲ 가에 아우렌티 광장(Piazza Gae Aulenti)의 수변시설<sup>10)</sup>

▼ 가에 아우렌티 광장(Piazza Gae Aulenti)의 수변시설 내 벽천 야경<sup>11)</sup>







▲ 10 코르소 코모(10 Corso Como) 전경<sup>12)</sup>



▲ 코르소 코모 방향의 코르소 코모 주상복합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sup>13)</sup>



▲ 유니크레딧 타워 방향의 코르소 코모 주상복합단지<sup>14)</sup>



▲ 고프소 꼬모(Corso Como)에서 바라보는 고프소 꼬모 주상복합단지 입구<sup>15)</sup>

## 고프소 꼬모 주상복합단지(Residenze in Corso Como)<sup>16)</sup>

가에 아우렌티 광장 남서측의 고프소 꼬모(Corso Como)는 패션 저널리스트 까를라 소짜니(Carla Sozzani)가 패션, 라이프스타일, 북숍, 전시장, 카페 및 레스토랑을 결합하여 기획한 편집숍 ‘10 고프소 꼬모(10 Corso Como)’가 위치한 밀라노의 전통적인 상업지역이다. 초고층 유니크레딧 타워와 편의시설이 집적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새롭게 조성된 가에 아우렌티 광장으로부터 6m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이 전통적인 상업지구는 3~4층의 건물로 조성된 고프소 꼬모 주상복합단지에 의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이 단지는 가에 아우렌티 광장의 현대적인 고층건물과 고프소 꼬모 상업지구 내 리베르티 양식(Stile Liberty)의 저층 건물 사이에 있는데, 지역 건축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두 공간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중립적 성격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문객은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를 따라 걸으며, 6m 표고차로 구분되는 밀라노의 과거와 미래를 오간다. 동시에 새로운 공간과 쇼핑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소비한다. 이렇게 구도심인 고프소 꼬모를 효율적으로 연계한 주상복합단지는 기존의 주변 상권을 활성화한 사례이자, 밀라노의 새로운 쇼핑 동향을 주도하는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12) 필자 촬영

13) 필자 촬영

14) <https://www.archdaily.com/379624/piazza-gae-aulenti-aecom/>

15) <https://3giorniamilano.it/en/corso-como-street>

16) <http://www.tekne.ws/54,Portfolio.html>





▲ 보스코 베르티칼레(Bosco Verticale) 전경<sup>17)</sup>

## 보스코 베르티칼레(Residenze in Corso Como)<sup>18)</sup>

가에 라우렌티 광장 북측에 조성되고 있는 공원에정부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솔라 권역(Zona Isola) 경계에 있는 거대한 숲 형상의 고층아파트를 마주하게 된다. 독특한 입면을 가진 이 건물은, 도시 재현에 관한 문제를 “영역권”으로 해석하여 주요 설계개념으로 다루는 스테파노 보에리(Stefano Boeri)에 의해 2014년 완공된 보스코 베르티칼레(Bosco Verticale: 수직 숲)이다. 스테파노 보에리는 밀라노 공대(Polytechnic University of Milan)와 베네치아 건축대학(IUAV University of Venice)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로 현대 유럽 주요 도시들의 경관과 연계된 인프라와 건축 간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해석한다. 그는 도시의 잃어버린 숲을 회생하는 개념에서 보스코 베르티칼레를 통해 ‘수직 숲’을 재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층건물에 총 800여 그루의 교목, 14만 여주의 관목 및 지피식물을 식재하였으며, 도심 내 녹지 공간 확장과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에 집중하였다.

17) <https://www.archdaily.com/777498/bosco-verticale-stefano-boeri-architetti>

18) <http://www.tekne.ws/54,Portfolio.html>

19) 필자 촬영



한편, 보스코 베르티칼레는 2015년 개최된 밀라노 EXPO에서 강조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량자원의 한 축인 도시농업과 연결되는 ‘친환경 건축 프로젝트’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건축적 접근은 EXPO로 인해 대규모 개발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밀라노 시내의 녹지면적을 상징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주거와 통합되어 접근이 용이한 테라스를 활용한 도시농업의 확장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보에리에 의한 고층 주거의 새로운 건축적 접근방법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으며, 2014년 국제 초고층 건축상(International Highrise Award)에서 램콜하스(Rem Koolhaas), 스티븐 홀(Steven Holl), 장 누벨(Jean Nouvel)과 같은 거장들과의 경쟁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혁신적인 초고층 건축”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총 2동으로 구성된 단지는 총 건축면적 40,000㎡ 중 약 25%가 녹지면적이다. 개암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등의 교목이 식재되어, 입주자는 사계절 다양한 녹음을 즐길 수 있다. 고층 주거 건물의 테라스를 활용한 대형교목과 관목의 식재효과는 자연스러운 태양일사 차양, 동절기 일사량 확보, 방풍 및 자연환기 조절, 실내 습도 및 산소 조절, 실외 미세먼지 및 소음 유입 방지와 같이 다양한 생태적 기능으로 나타난다.



▲ 가에 아우렌티 광장에서 보스코 베르티칼레 단지 진입로<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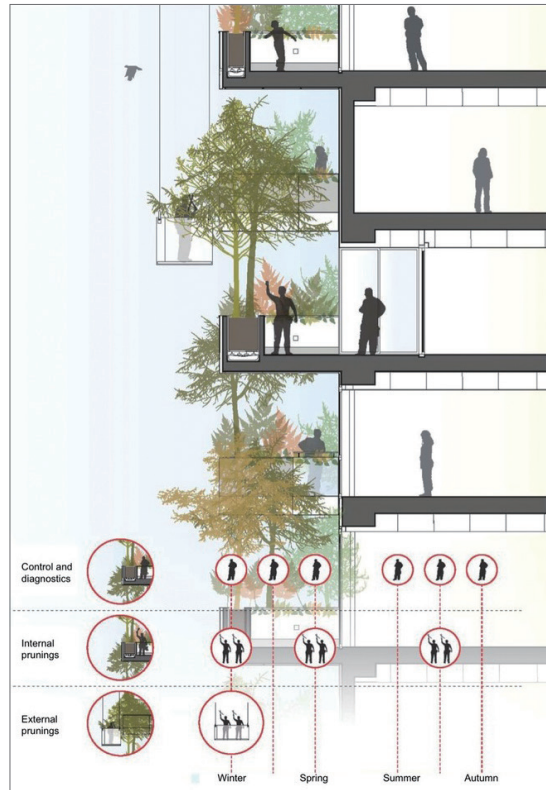




▲ 보스코 베르티칼레 입면 전경<sup>20)</sup>



▲ 보스코 베르티칼레 테라스별 식재현황<sup>21)</sup>





▲ 식재 유지관리 전경<sup>22)</sup>

한편, 이 건물은 높은 건축물 녹화면적을 확보하고 있어, 지속적인 식물생육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의 깊은 유지관리가 요구된다. 식생 유지관리를 위해 전정, 보식, 방재 등이 필요하다. 소요비용은 건물 공동관리비에 포함되며,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의 동의를 최소화할 수 있게 건물 외부입면에서 유지관리 작업이 가능한 특수 작업환경도 제공되고 있다. 밀라노는 역사적으로 부유한 도시국가로 1980년대에 패션, 디자인 중심의 산업적 부흥으로 유럽에서 차별화된 도시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도시 인프라 노후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포르타 누오바 계획은 이러한 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개선을 위한 여러 접근 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유니크래딧 타워를 중심으로 조성된 가에 아우렌티 광장과 기존의 전통적 상업지구인 꼬르소 꼬모를 잇는 주상복합단지는 밀라노 포르타 가리발디 역사의 슬럼화 문제를 다양한 소비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해준다. 또한 밀라노의 새로운 도시생태 랜드마크가 된 보스코 베르티칼레의 경우, 단일 주거 건물에 의한 환경개선 이미지가 주변 주거단지의 거주 쾌적성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세까지 견인하는 등 실질적인 도시재생효과를 창출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낙후된 역사권역이나 절대 녹지가 부족한 도시의 재생사업사례는 이와 유사한 문제에 당면한 여러 도시가 재생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20) 필자 촬영

21) <https://www.archdaily.com/777498/bosco-verticale-stefano-boeri-architetti>

22) <https://www.archdaily.com/777498/bosco-verticale-stefano-boeri-architetti>

LEVEL UP

---



단위사업의 통합적 디자인 관리 :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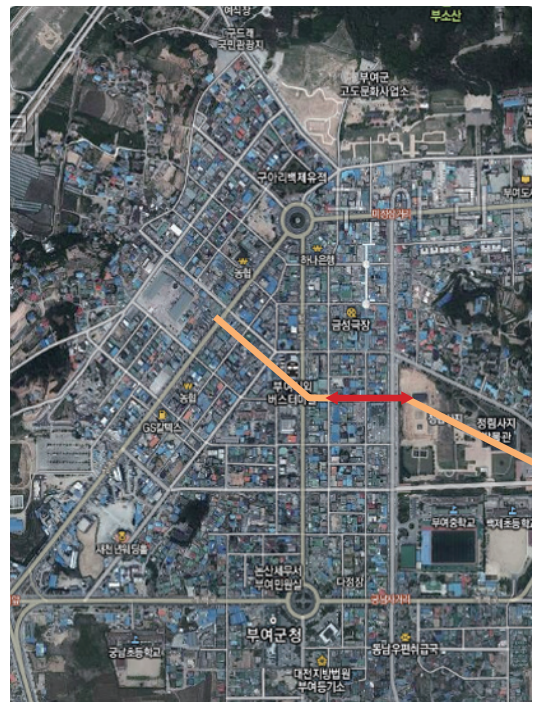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_강인호 교수(부여군 지역총괄계획가)

### 부여 지역총괄계획가 제도의 운영

부여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16년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군 내 각종 지역사업의 기획, 계획수립지원, 개별 사업의 디자인 관리 등을 지원하는 ‘지역총괄계획가’를 위촉하였다. 군은 2년간의 국토교통부 지원이 종료된 2017년 이후에도 해당 제도를 지속하기로 결정짓고 2년간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경관계획 등 법정계획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등 사업단위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간환경 조성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부서별로 발주되는 개별 사업의 디자인 조정 및 장소 통합적 디자인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본 사례는 부여읍의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에서 개별 단위사업별로 발주된 디자인 사업을 ‘장소 중심적 통합 디자인’으로 조정해 나간 경험을 기술한 것이다.



▲ 보행축과 이색창조거리 구간



▲ 이색창조거리가 조성되는 중앙로 구간

## 사업개요

부여읍의 ‘이색창조거리’는 정림사에 연접한 ‘의열로-이색창조거리-새시장 특화거리’로 이어지는 보행 축의 중간 구간으로서, 중앙로의 평균 10m 폭원에 길이 180m 구간이다. 이 거리는 부여읍의 중심상권을 동서로 관통하면서 상업적 성격이 강하다. 가로에 면한 상점들은 제과점, 약국, 병원, 음식점, 의류점, 편의점 등 전형적인 근린상가의 다양한 업종 구성을 띄고 있으며 교차점 부분에는 중앙시장의 입구가 있어 시장 진입부의 역할을 하는 등 복합적 성격을 가진다.

부여군에서는 해당 구간을 특화 가로로 조성하기 위해 「2015년 이색창조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경관조명, 햇빛 가리개 설치, 상수도 설치, 도시계획 도로포장 등을 과업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계획 과정에서는 장소 기반의 제반 구성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디자인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했고, 가로 바닥 마감의 조정, 입면 구성 및 간판정비 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끔 노력하였다. 계획에서는 부여의 특성을 표현하면서도 가로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제시되었다. 가로경관 구성요소는 가능한 한 간결하게 처리하여 부여의 지역적 특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계획 과정에서의 디자인 자문과 조정

계획 과정에서 이루어진 충남 디자인 자문은 계획의 전체 방향을 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당초 제시된 디자인은 부여의 고도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강박을 그대로 드러내며 다소 과잉된 인상을 주는 시안이었다. 부여와 같은 고도에서는 고도 이미지 표현에 대한 요구가 항상 제기되고 이에 대한 압박감이 과잉된 디자인으로 나타나기 쉽다. 이 경우도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구상과 이미지가 상당히 과감하고 화려한 경향을 보인다.

이에 충남 디자인 자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부여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디자인 콘셉트 수립
- 가로시설물을 최대한 절제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계획 (게이트, 열주 등 가로상징물)
- 주변 관련 계획과 연계한 계획 수립 (간판 계획, 하수도, 주차타워, 전선 지중화 등)
- 상인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계획 수립
- 보도블록의 색채는 무채색 계열 도입 (그레이, 베이지 등)
- 문양은 보행자 눈높이의 작은 패턴, 결정부 상징화 유도



▲ 사업제안서에서 제시한 이미지



▲ 디자인 자문 시행 후 조정 이미지

이는 과잉 디자인을 조정하여 간결하고 넘치지 않는 디자인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당초 제시한 디자인 콘셉트는 ‘꿈, 젊은 백제’였으나, 사고를 전환하여 ‘단(端):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로 변경하였다. 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5년조에 나오는 말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훗날, 조선 건국의 정신적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이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궁궐 건축조에 인용한 말이기도 하다. 그 결과, 화려하고 과잉된 디자인 콘셉트는 검박하고 단아한 방식의 경관구성으로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는 자문의 올바른 방향 제시로 얻어낸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자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대단히 화려했던 색채 구성이 적절한 채도로 조정되어 안정된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입구 사인 조형물이나 가로 내부의 조형물은 색상뿐 아니라 크기가 축소되고 형태 또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건물의 입면 리모델링을 살펴보면, 눈높이 경관을 구성하는 저층부 입면 중심으로 리모델링 하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고 있지만, 건물 입면을 구성하는 저층부 리모델링의 구간이 높이의 변화를 억제하고 일정 높이로 통제되면서 색상이나 패턴도 단순한 형식으로 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 작업을 통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가로경관은 통합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도한 디자인 기조를 상당 부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 현 가로상태



• 당초 제안서의 가로 이미지 구성



• 디자인 자문 후 가로 이미지 구성



▲ 가로경관 구성 계획: 제안서와 디자인 자문 후의 변화



## 분할된 단위사업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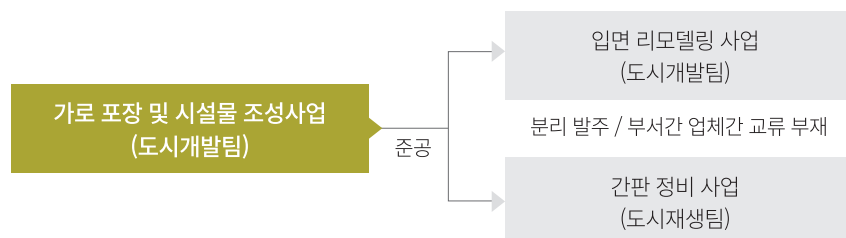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단계에서 가로 바닥 교체와 가로등 및 조형물 설치가 발주되었다. 가로에 면한 건물 입면 리모델링과 간판 정비사업은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분리되어 시차를 두고 분할 발주되었다. 이로 인해 가로 바닥 교체 및 시설물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입면 리모델링과 간판정비 사업이 도시개발팀과 도시재생팀으로 분담되어 개별 발주되었다.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구상했던 통합적 이미지가 별도의 디자인 코드로 지침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위사업으로 분리된 가로 입면과 간판정비 사업은 디자인 통합성보다는 독립적인 과업으로 관리되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디자인 자문을 거쳐 간결하고 정리된 이미지를 추구하면서 고도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가로 입면 리모델링 사업은 입면 리모델링 사업이 독립된 과업으로 분리되면서 통합성보다는 당초 제안서에서 보였던 개별성을 강조해 드러내는 경향을 보였다. 한 장소에서 추진되는 사업일지라도 단위사업이 분할되면 각각 독립적이고 완결된 과업으로 여기며 독자성을 부각하려는 경향과 환경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에 따라 통합성보다는 개별성을, 맥락적 디자인보다는 오브제로서의 디자인 특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속고 없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디자인에 개별성이 강조되거나 강렬한 패턴 및 화려한 색채 구성 등이 나타나는 경우, 각 요소가 장소중심적으로 통합되기 어렵고 형태와 배경(figure & ground)의 역할을 구성요소별로 배분하는 전략적 과정이 누락되기 쉽다. 게다가 하나의 장소를 구성하는 여러 단위 요소를 각각의 과업으로 나누어 발주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조정자의 부재로 인하여 단위사업 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독립적인 추진으로 장소 중심적 통합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색창조거리는 디자인 자문을 통해 조정된 가로 바닥 및 시설물이 이미 조성된 상태에서 입면 리모델링과 간판정비 사업이 분할 발주되어 있었고, 두 사업은 담당팀이 달라 관리 또한 분리되어 있었다.

더욱이 입면 리모델링 용역업체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면구성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입면 구성안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리고 간판정비업체는 입면의 구성에 따라 연동되는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별도의 간판정비 계획을 진행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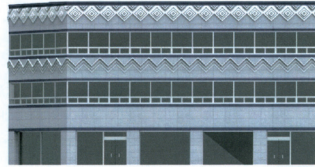
▲ 이색창조거리 단위사업의 분할 진행

부여군 이색창조거리 경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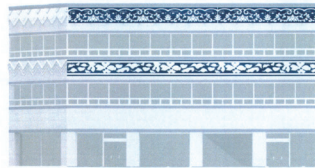
현장사진



변경 전



변경 후



-기존의 반복적인 패턴의 단조로움을 배제하여 벽재의 고유 문양들을 양각화하여 표현

부여군 이색창조거리 경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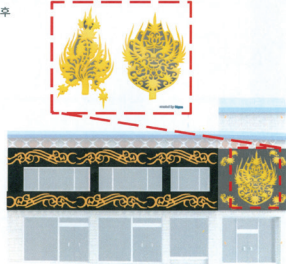
현장사진



변경 전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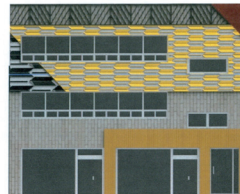
-벽재의 대표적 유물인 금동대향로를 모티브로 문양과 조형물을 재 디자인

부여군 이색창조거리 경관 개선

현장사진



변경 전



변경 후



-단순한 패턴방식에서 탈피하여 벽재 고유의 문양과 봉황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디자인

그 결과, 입면 리모델링을 담당하는 디자인 업체의 제안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구상하였던 입면의 이미지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간판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업체와 상호 협의 채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과업이 진행되어 있었다.

▲ 입면 리모델링 업체의 디자인 이미지 구성 제안



▲ 입면 리모델링 업체의 이미지 요소 적용 제안

## 총괄 조정기능의 개입과 통합 진행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단위사업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행정부서 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뤄질 수 있지만, 이러한 행정 협의 방식은 제대로 작동되기 매우 어렵다. 흔히 지적되는 ‘칸막이 행정’은 담당자들의 의지 부족이나 무관심에 기인하기보다 통합성을 확보해 줄 시스템의 부재 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총괄계획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각 단위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정합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본격적인 조정에 앞서, 통합적 디자인을 위해 두 가지의 과업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이미 조성된 가로 포장 및 시설물의 디자인 통합성을 확보할 것. 둘째, 입면 리모델링 디자인과 간판 정비사업을 위해 간판의 통합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간판 디자인은 별도의 보드 부착 방식보다 입면과 통합된 글자 부착을 방식으로 진행하고 추세이므로 입면 리모델링과 간판 부착은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

이 두 가지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 전략으로서 단계별 디자인 조정작업을 진행하였다.

1단계	2단계	3단계
<p>과도하고 즉물적으로 표현된 전통 이미지를 조정하고 간결하게 정돈하는 과정을 거쳐,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구축한 이미지로 회귀할 수 있도록 디자인 방향 변경</p>	<p>간판 디자인 업체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입면과 간판 디자인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상호 조정 작업'을 반복 진행</p>	<p>'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마련한 가로 포장 시설물의 입체도면을 입면 리모델링 업체와 간판 디자인 업체에 제공하고 입면과 간판을 적용, 통합된 그래픽 디자인 결과물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상세 조정</p>



리치



이안경원



죽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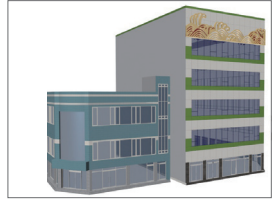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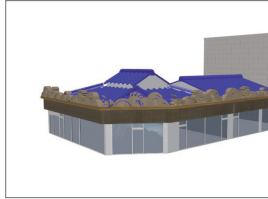


제일외과의원



▲ 입면 리모델링, 간판 정비의 통합 디자인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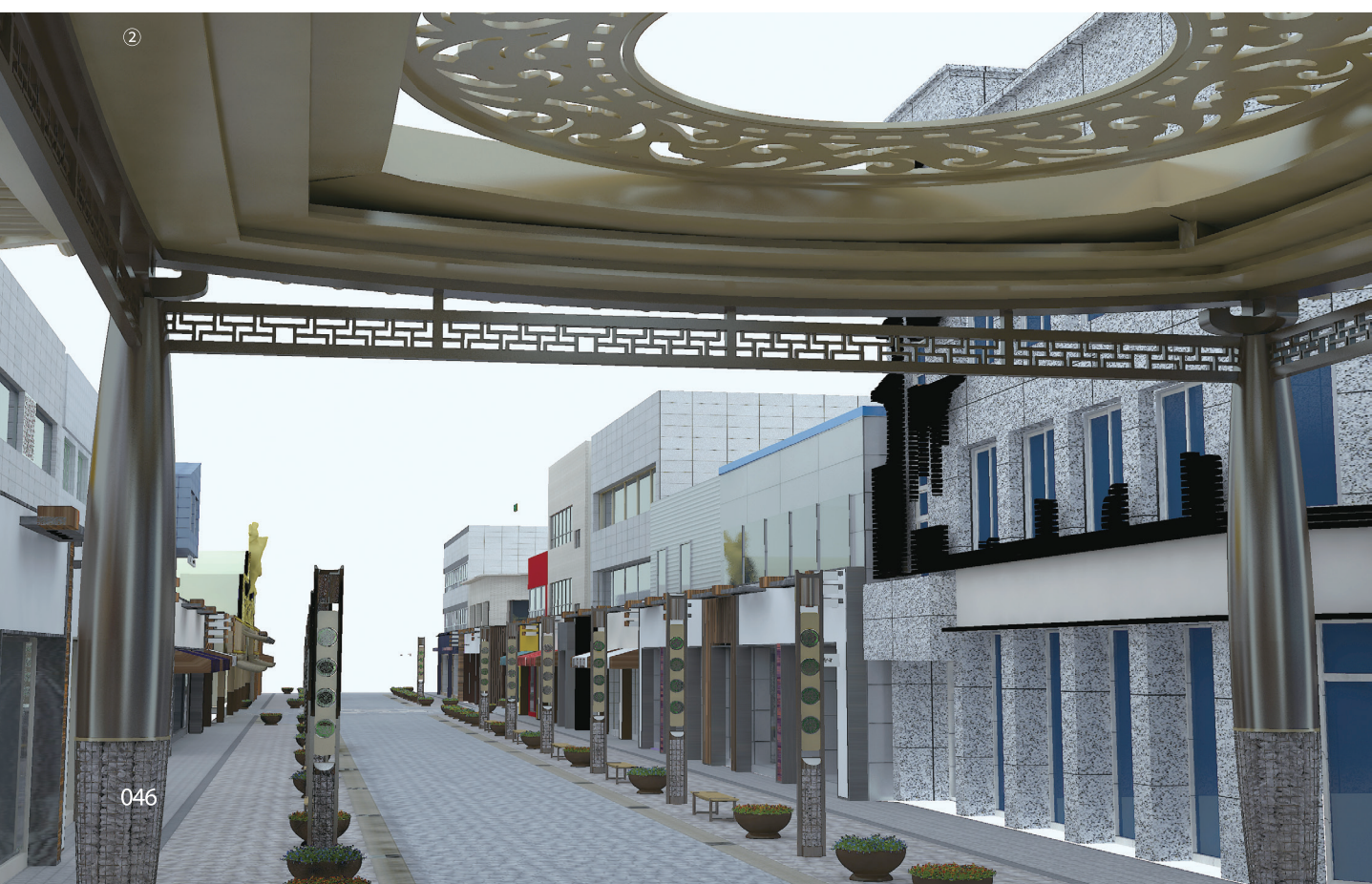


간판 / 가로 / 입면 통합조정



▲ 가로구성 3차원 파일에 통합한 입면, 간판의 시물레이션









▲ 가로-입면-간판의 통합 이미지 ①, ②, ③

## 총괄 조정기능의 경험과 성과

‘총괄 조정’이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의 통합적 조정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총괄 건축가, 총괄 계획가, 총괄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역 단위로 총괄 조정 기능을 확보하려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사업에 대한 자문과 조정기능 외에도 디자인의 질을 높이는데 효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좋은 디자이너를 선임하는 발주 방식과 진행 단계에서 자문 및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단위사업들을 장소 중심으로 통합하거나 사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조정기능은 총괄계획가의 역할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다. 부여군의 ‘이색창조거리 조성사업’ 역시, 진행 과정에서 단위사업별 분절 및 관련 굴곡을 겪었으나 지역총괄계획가의 조정기능을 통해 장소 중심적 통합을 이뤄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TEAM

천안시



050 시민이 참여한 공공미술 전시사업  
: 천안시 『오늘미술관 프로젝트』

송영민 팀장

시민이 참여한 공공미술 전시사업

## 천안시 『오늘미술관 프로젝트』



천안시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_송영민 팀장

### 오늘미술관이란?

천안시는 도시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8년부터 『오늘미술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오늘미술관 프로젝트』는 거리,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전시프로그램으로, 시민 누구나 작가로 참여하는 공공미술 전시사업이다. 일상 속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이 다채로운 미술품을 관람하고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제1회 전시(안서동 상명대삼거리)



▼ 제1회 전시(신부동 신부3교)





▲ 제1회 전시(시민작가의 메시지)



▲ 제1회 전시(백석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 전공 시민작가)

『오늘미술관 프로젝트』의 사업 방향은 첫째,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거리축제로서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둘째, 천안 곳곳에서 펼쳐지는 ‘어디든 그곳이 미술관’이다. 셋째, 출·퇴근 등 지나가는 길에 마주할 수 있어 ‘언제든지 열려 있는 미술관’이다. 일상의 문화를 주제로, 가변 장소에서, 시민 누구나 작가가 되어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오늘미술관』은 ‘천안 어디든 『오늘』 가면 그곳이 바로 『미술관』’이라는 의미를 담아 2027년까지 연 2회 정기전시와 기획전시로 운영된다. 그동안 제1회 전시 「천안색깔 무지개」, 제2회 전시 「우리 동네 무지개」, 제3회 전시 「호국의 꽃」을 진행하였다.

▼ 제1회 전시(나사렛대학교 앞/남산공원/백석대학교 앞)



## 제1회 전시 「천안색깔 무지개」

『오늘미술관』 제1회 정기전시 「천안색깔 무지개」는 ‘천안 곳곳에 무지개를 띄워 환하게 만들다’라는 뜻이다.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10개 장소에서 거리전시를 하였다. 전시방법은 공공시설물에 천을 감아 연출하는 패브릭 그래피티(Fabric Graffiti: 천을 활용한 그림)로, 남산공원, 상명대삼거리, 나사렛대학교 앞, 백석대학교 앞, 신부3교 등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생과 주민들로 구성된 186명의 시민작가는 가로수와 펜스,



볼라드, 벤치 등에 색색의 천을 감아 익숙한 공간을 색다르게 연출했다. 도시 곳곳에 무지개를 띄워 ‘거리를 환하게’, ‘도시를 환하게’,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들의 표정을 환하게’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전시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전협약-사업설명회-현장설명회-현장설치’의 프로세스는 장기간의 준비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다. 처음 시도하는 전시였지만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관내 4개 대학교 7개 전공, 동남·서북 2개 경찰서,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로 완료할 수 있었다.

## 제2회 전시「우리 동네 무지개」

제1회 전시를 마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두 가지 의견이 대다수였다. 첫 번째는 단기간 전시에 대한 아쉬움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동네’에도 전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래서 제2회 전시는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무지개를 띄워 환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의 「우리동네 무지개」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전시 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은, 겨우내 전시하되 장기간 유지관리의 부담을 고려하여 소규모의 시범 전시로 준비하였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이면도로 등 5개 장소에 패브릭 그래피티 기법으로 진행하였다.



▲ 제2회 전시(천안삼거리 공원)





▲ 제2회 전시(천안교도소 앞)



▲ 제2회 전시((사)충남여성장애인연대 천안지회·한줄두줄나눔봉사단 시민작가)



▲ 제2회 전시(상명대학교 SLD연계전공·(사)충남 어린이 안전학교 시민작가)



▲ 제2회 전시(KT&G 상상유니브 시민작가)



▲ 제2회 전시(삼룡천 교량)



제2회 전시 장소는 유량동, 쌍용동사거리, 삼거리공원, 삼룡천, 천안교도소 앞이었다. 대상지 중 ‘쌍용동사거리’는 장애인단체에서 요청한 거리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활동 보조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주었다. ‘천안교도소 앞’ 역시 시민이 건의한 대상지로, 인적이 드물어 한적하고 삭막한 도로였다. 이곳에 상명대학교 SLD 연계 전공 학생들이 드림캐처를 제안·제작하여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가볍게 해주었다. 사전제작이 필요했던 2회 전시 프로세스는 ‘사전협의-사업설명회-대상지 스터디-재료준비 및 사전제작-현장설명회-현장설치’로 4주~6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제2회 전시는 대학교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자원봉사단체·기업의 사회공헌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시민 99명이 참여하였다. 1회 전시보다 더욱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누구나 작가’가 되어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제3회 전시(유관순 열사 사우 앞 열사의 거리)



▲ 제3회 전시(지산1리 시민작가)



▲ 제3회 전시(신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시민작가)



▲ 제3회 전시(천안용곡초등학교 5학년 2반 시민작가)



## 제3회 전시 「호국의 꽃」

제3회 전시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전시로 「호국의 꽃」을 주제로 하였다. 「호국의 꽃」은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한 3천여 천안인의 충절을 꽃피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3·1운동 당시 병천 아우내장터에서 유관순 열사와 함께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한 3천여 천안인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손뜨개 조형물 전시였다.

제3회 전시는 천안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유치원·초등학교·고등학교·대학교·장애인단체·노인복지관·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하였다. 2018년 10월부터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은 무궁화꽃 그리기를 통해 큰 꽃 31개의 원안 작가로 참여하였고, 그 외 초등학교와 기관, 단체들은 3천 송이의 꽃을 손뜨개로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는 재료 제공뿐만 아니라 손뜨개에 대한 기본교육도 병행하여 초등학생과 장애인, 노인 등 시민 누구나 방법을 습득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민작가들의 원활한 작품 제작을 위해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도 함께 모집하여 공동제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제3회 전시(신부동 조각공원)



▲ 제3회 전시(독립기념관 겨례의 큰 마당)



▲ 제3회 전시(31개의 큰 꽃 조형물 작품)

3천 송이의 작은 꽃을 만들기까지 5개월이 소요되었고, 지난 2월부터는 고등학생 및 개별 참여자, 전시대상지 인근 주민들과 함께 3천 송이의 작은 꽃을 조합하여 31개의 큰 꽃 조형물로 제작하였다. 완성작품은 아우내 봉화제와 3·1절 기념식이 열린 병천 유관순 열사 사우, 독립기념관, 그리고 신부동 조각공원에서 4월 30일까지 순회 전시하였다.

제3회 전시는 ‘사전협의-사업설명회-기관별 교육 및 사전제작(무궁화꽃 그리기·작은 꽃 손뜨개 작업·큰 꽃 조형물 제작)-현장설명회-현장설치’의 프로세스로 총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1,106명의 시민작가가 참여하였다. 이번 기획전시는 3·1운동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호국충절의 고장다운 천안의 정체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친숙한 생활예술을 공공미술에 접목하였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 제3회 전시(충남예술고등학교 미술반 시민작가)





▲ 제3회 전시(노인종합복지관 손뜨개동아리·한줄두줄나눔봉사단 시민작가)



▲ 제3회 전시(사)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천안시지회·한줄두줄나눔봉사단 시민작가

제1회~3회 전시는 끝났지만 『오늘미술관 프로젝트』와 시민작가들의 열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 열정은 그동안 참여한 시민작가들로부터 받은 감동의 문자메시지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메시지에에는 작업이 즐거웠고, 작품에 감동했고, 시민작가로서 뿌듯함을 느꼈으며, 앞으로 전개될 전시와 『오늘미술관 프로젝트』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그동안 1,391명의 시민작가가 함께 만든 작품은 참여작가들의 활약과 함께 유튜브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공공미술체험을 통한 참여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고 있는 『오늘미술관 프로젝트』는 다양한 생활예술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작가와 관람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거리 곳곳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거리예술이니만큼 해가 거듭될수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제3회 전시(작은 꽃 손뜨개 작품)



▲ 제3회 전시(유튜브 동영상 화면)



# FOCUS ON

센터 정책연구 및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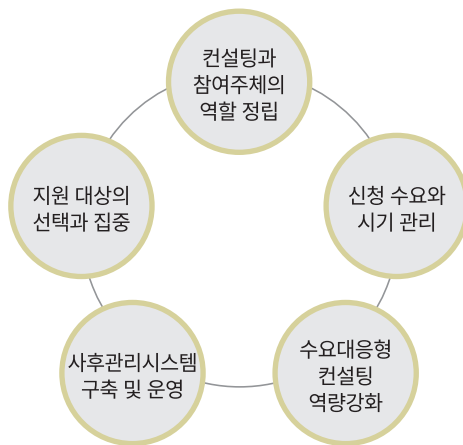


## 2018년도 정책연구 성과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발전방안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충청남도 경관관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공공디자인 컨설팅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최근 여건 변화에 대응 가능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디자인컨설팅과 유사한 정책, 이론과 실행체계에 대한 분석, 2014년에서 2017년까지의 컨설팅 운영 성과 분석, 컨설팅 참여주체인 공무원과 자문위원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공공디자인 컨설팅 운영의 쟁점, 개선방향,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추진일정과 참여주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컨설팅 발전의 3대 쟁점은 <컨설팅 가치와 목표의 재정립>, <컨설팅 참여주체의 이해와 관계 조정>, <컨설팅 수요와 공급의 안정성 유지>으로 요약된다. 이를 반영하여 컨설팅 발전을 위한 5개의 개선방향과 13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실천과제의 중요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단기과제, 중기과제, 지속과제, 협동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컨설팅 참여주체인 센터, 도·시·군, 자문위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 공공디자인 컨설팅 개선방향

첫째, 컨설팅 및 참여 주체의 역할 정립이다. 컨설팅의 영역과 범위가 확대되며 법적 디자인 관리체계인 심의와 연동되고 있어 컨설팅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운영절차와 각 단계별 참여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컨설팅의 신청수요와 시기 관리이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증가하고 있으나 컨설팅을 100%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컨설팅 수요를 줄이고 사업 초기단계 컨설팅을 통해 디자인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컨설팅 지원대상의 선택과 집중이다. 어떤 사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가? 에 대한 답변이자 컨설팅 수요 관리와 맞닿아 있는 방안이다. 컨설팅이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지원하고 이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과 컨설팅의 효용성 관점에서 심의와의 역할 정립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수요대응형 컨설팅 역량 강화이다. 컨설팅은 다양한 사업유형과 사업단계, 모든 사업의 장소적 독립성으로 인해 동일한 절차와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현재도 사업별로 가변적인 방식과 내용으로 컨설팅에 대응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컨설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섯째, 컨설팅 사후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이다. 현재 컨설팅 이후의 사후관리 시스템은 컨설팅 의견에 대한 반영, 미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체계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서 교부 후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공사업의 디자인 개선 외에도 추진과정의 시스템 개선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컨설팅 개선방향 실천과제별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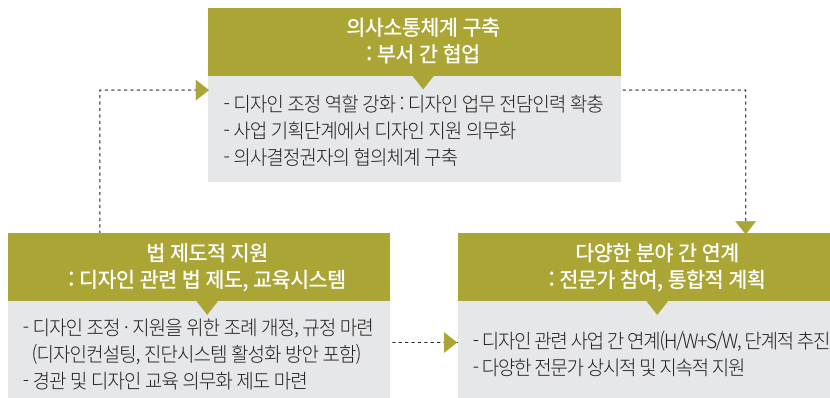
과제		2019	2020	2021	2022	비고
컨설팅과 참여주체 역할정립	컨설팅 범위의 명확한 규정					단기과제
	참여주체의 역할 규정					단기과제
	소통과 합의를 지향하는 컨설팅 운영					지속과제
컨설팅 신청수요와 시기관리	사업초기단계 컨설팅 강화					중기과제
	디자인 DB 활용한 컨설팅 수요 저감					지속과제
	디자인 기반 공공사업 추진 지원					지속과제
컨설팅 지원대상의 선택과 집중	심의와 컨설팅의 역할 정립					도, 시·군, 센터 협동과제
	컨설팅 중점지원 사업 규정					도, 시·군, 센터 협동과제
	컨설팅 의무화 대상 도입 검토					도, 시·군, 센터 협동과제
수요대응 컨설팅 강화	컨설팅 수요 대응 시스템 구축					지속과제
	컨설팅 방식의 다양화 및 유연성 확보					지속과제
컨설팅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	체계적인 컨설팅 피드백 절차 구축					중기과제
	자문의견 반영 규정 도입 검토 (중장기 과제)					도, 시·군, 센터 협동과제

##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공간환경에 대한 쾌적함과 편리함, 장소적 가치 등을 추구하게 되면서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경관 및 디자인사업이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관련 사업은 건축 및 도시, 농촌, 산림 녹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충남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러한 부서 개별적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저하 및 유지관리 미흡 등은 꾸준히 문제시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 중 경관 및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로 첫째, 이론고찰을 통해 관련법에서의 디자인 특성 및 개념, 선행연구에서 디자인사업이 가져가야 할 방향을 도출하여, 본 연구에서 디자인연계의 개념과 방향 제시, 둘째,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디자인연계를 위한 시사점 도출, 셋째, 충남에서 디자인연계가 가능한 9개 사업의 문제점과 한계점 분석을 토대로 충남에서 필요한 디자인연계 방향 도출, 넷째, 충남 디자인관련 사업 담당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디자인연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현 단계에서 문제시되는 것과 해결해야 할 것을 파악함으로써 충남형 디자인사업 연계추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충남 디자인사업 연계를 위한 추진방향으로서, ① 부서 간 협업의 의사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디자인 전담인력 확보방안 및 도/시·군의 역할, ②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 간 연계를 위한 사업 유형별 단계적/병행 연계방안 및 사업단계별 전문가 활용 계획, ③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규정 및 시·군 종합평가 등 법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충남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향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우선, 현재 충남 대부분 시·군에서는 디자인 전담인력이 한 명 배치되어 있거나 전무한 경우도 있으며,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옥외광고물 업무를 주로 하고 디자인 업무는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시·군에 최소 1인 이상 전담인력 배치와 옥외광고물 전담인력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단기 제시안으로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자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 부서의 디자인조정을 담당하는 3인 팀제로서 디자인연계를 위한 의사소통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분야 간 연계를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사업추진 단계별 디자인협의 및 지원을 위해 도에서 당해 연도 공모사업 예산 수립 전단계인 사업기획단계부터 도 디자인 전담부서가 디자인협의 및 조정, 사업 공모 신청 시·군에서도 디자인협의 및 지원이 가능한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충남에서 현재 추진 중인 디자인 관련 사업들 중, 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연계, ② 병행 추진함으로써 상호 보완되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연계, ③ 디자인 질 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디자인컨설팅 제도의 지원 연계의 3가지 방식으로 S/W사업과 H/W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 충남형 디자인 관련 사업 연계추진 시스템 제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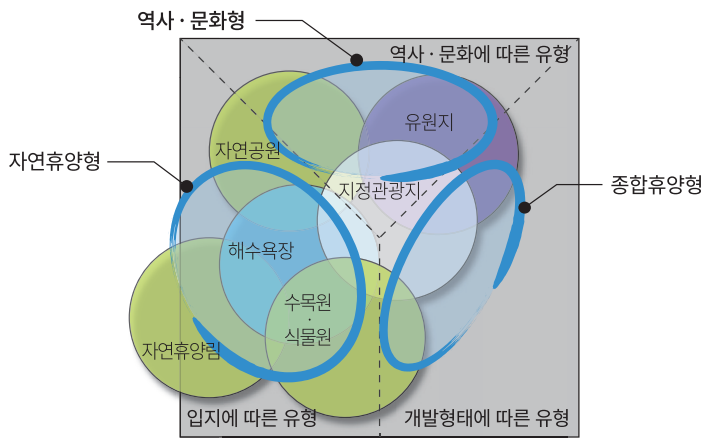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 지원을 위한 실행방안으로서 시·군 종합평가에 디자인 관련 심의, 디자인협의 또는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디자인 컨설팅 실적 등 디자인지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각 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디자인 전담조직 또는 전문인력 배치와 디자인협의 및 디자인 기획조정역의 역할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 충청남도 관광안내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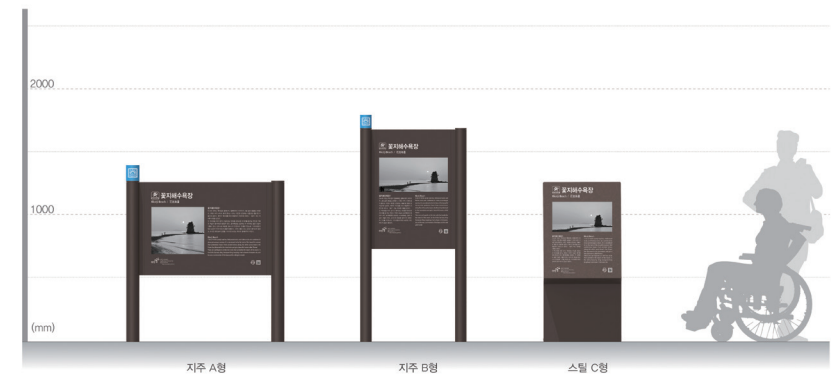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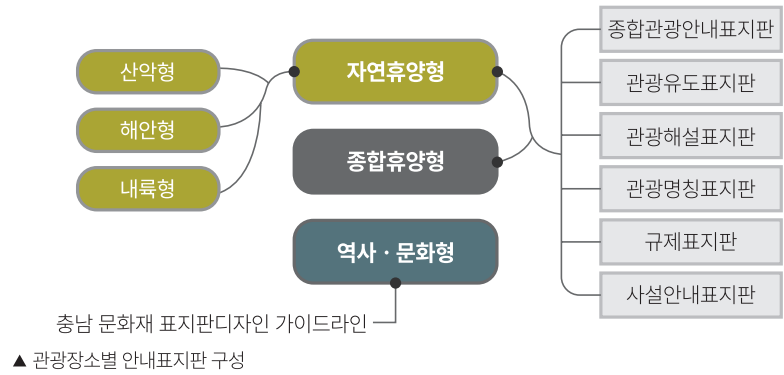
충청남도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요 관광지에 대한 연계성 강화를 통해 충남 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 패러다임과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유치를 통해 도내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동시에 기존 관광지에 설치된 물리적 콘텐츠의 개선으로 경관을 복원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충청남도 주요 관광지에 대한 통합된 안내시스템의 부재로 잘못된 안내판 설치나 외국어 표기 오기 등 관광지 정보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지 안내를 위한 안내표지판은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안내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이는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모두 반영하기에 부족하고 지역과 장소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의 안내판과 체계적이지 못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충청남도 지역 이미지의 특성을 담은 안내판 디자인과 통합적인 정보체계 마련으로 지역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여가활동에 도움을 주면서 지역 경관과 조화된 안내 표지판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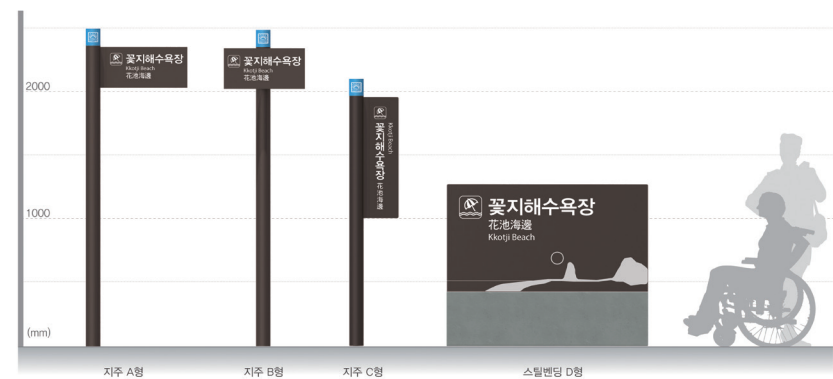


▲ 충청남도 관광 장소에 따른 간판유형구분 개념도

관광지의 유형을 자연휴양형(산악형, 해안형, 내륙형), 종합휴양형, 역사·문화형으로 구분하여 관광지 장소의 특성과 고유성을 상징하는 안내표지판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자연휴양형은 산, 들, 바다 등 자연적인 환경을 안내표지판에 디자인 요소로 표현하고, 종합휴양형은 인공적이고 인문적인 요소를 특징하여 디자인 요소로 표현하였다. 또한, 역사·문화형은 문화재청 등 중앙정부의 문화재 가이드를 준용하여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제작한 「2017년 충청남도 문화재 표지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였다.



▲ 자연휴양 해안형 관광해설 표지판



▲ 자연휴양 해안형 관광명칭 표지판

## 2019년도 정책연구 소개

### 충청남도 농촌마을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방향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삶의 질로 옮겨가면서 범죄예방, 안전에 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중앙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식의 범죄예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 및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성과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충남에서 이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와 비슷한 범죄 발생 건수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공간이면서 생산공간인 농촌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죄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낮은 인구밀도, 공동체 활동 등 농촌마을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도시지역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농촌마을의 범죄를 예방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환경설계의 관점을 비롯하여 마을 구성원 간의 공동체 및 커뮤니티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환경, 교육 및 문화 등 공감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환경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충청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추진방안

충청남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2035년 이후에는 그 비율이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북부와 남부 지역의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망과 물리적 공공환경은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부족한 상황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과 공공서비스 마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의 행태가 고려된 디자인 실천을 기본계획으로 특히, 고령자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할 콘텐츠이다.

충청남도의 생활공간환경과 고령화 추세를 분석하여 충청남도에 적합한 유니버설디자인 실천방향을 제안하고 공공디자인 설계에 핵심적 가치를 지닌 한 축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센터소식

## ‘충남공공디자인센터 개소 10주년 기념포럼’ 개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공공사업 디자인 개선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5월 17일(금),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는 국가 및 광역지자체 차원의 공공사업 디자인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 시작에 앞서 2009부터 현재까지 센터 발전과 충청남도 및 시·군 공공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을 견인하고 공무원의 디자인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준 자문위원(5인)<sup>1)</sup>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그리고 윤항 원장(충남연구원)의 개회사와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충청남도)의 격려사로 포럼의 시작을 알렸다. 곧이어 충남공공디자인센터, 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의 3개 주제발표를 통해 각 기관의 현황과 성과, 효율적인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등을 공유했다.



첫 번째 발표는 오병찬 센터장(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이 ‘충남공공디자인센터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10년의 성과와 앞으로 공공디자인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오병찬 센터장은 공공디자인센터 고유 기능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디자인 정책 연구’, ‘디자인 역량강화사업’을 확대하여 충남도민을 위한 행복한 생활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선 사업기획단계부터 디자인 관리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전문가 양성, 충청남도 15개 시·군, 그리고 공공디자인센터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디자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1) 남택영 교수(대덕대학교), 문선욱 교수(청운대학교), 이장범 교수(선문대학교), 이종세 교수(건양대학교), 조경수 교수(남서울대학교) \*가나다순



두 번째 발표에서는 염철호 센터장(auri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이 ‘국가공공 건축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주제로 공공건축 현황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공공건축에서 벗어나 효율성을 담보할 정책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과 주요 기능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건축의 공공적 기능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 진행단계에서의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국가와 지역 센터 간의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형 단장(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이 ‘도시공간개선단과 서울 공간혁신’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개선사례를 소개하였다. 서울시 곳곳에 숨어있는 유휴공간(역사 지하공간, 고가하부공간, 수변공간, 전망대 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을 사례로 들며,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전문가+공무원’의 협업체계와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시민 삶의 질과 연계된 도시공간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권영현 수석연구위원(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을 좌장으로 토론자(6인)<sup>2)</sup>를 비롯해 포럼에 참석한 공무원, 전문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공공사업 추진 방향 및 대안에 대하여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 문신욱 교수(청운대학교), 변일용 실장(울산발전연구원), 윤영산 과장(충청남도 건축도시과), 이상환 소장(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 이장범 교수(선문대학교), 이종세 교수(건양대학교)

\*가나다순

## ‘학교 디자인 컨설팅 설명회’ 개최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에서는 주요 사업인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담당자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교 디자인 컨설팅 설명회’는 ‘학교 디자인 컨설팅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청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4월 19일(금) 충남교육청 외국어교육원에서 진행하였다. ‘학교 디자인 컨설팅 사업’은 학교의 다양한 정체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지원 중이다.

설명회에서는 오병찬 센터장이 ‘공공디자인 컨설팅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센터의 역할, 컨설팅 대상, 컨설팅의 이해, 컨설팅 지원사례 등 학교 디자인 컨설팅의 중요성 및 효과에 관해 설명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한 여러 학교의 외·내부 시설 및 색채디자인,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외부 휴게·놀이공간 등 다양한 적용 사례를 소개하면서, 도내 학교 공간과 교육환경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 사용자의 교육·생활·안전에 편익을 높여주므로 전형적인 학교 설계가 아닌 학생과 교직원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반기에는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시·군 및 공공기관 지휘부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청남도 디자인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과 사업 담당자들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협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내 정책동향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 중앙부처

### 건축 및 도시

####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원 소방설비 점검 - 주거빈곤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현장 검토

2018. 12. 11. | 행정안전부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행정안전부는 동절기 화재에 취약한 ‘생계형 근로자 밀집 주거시설’을 찾아 현장 검토를 진행하였다. 시설 관계자로부터 안전관리사항을 청취하고 소화기 비치 및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화재 수신기·감지기, 전기·가스 설비, 화재 시 탈출 수단 등을 직접 점검하였다. 정부는 열악한 주거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리체계 개선, 화재 확산 차단 기능 강화, 원활한 대피를 위한 제도 개선 등 건축물 화재 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동절기에 대비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서와 자치단체 등에서 화재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기획재정부, ‘2018년 국유재산 건축상’ 11건 선정 - 국세청 마포세무서 청사, 영예의 대상 수상

2018. 12. 14.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18년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11건의 건축물을 우수건축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국유재산 건축상」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건축되는 공공청사의 건축 품질 향상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대상으로 선정된 국세청 마포세무서 청사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청사 디자인과 더불어, 휴식공간 조성, 공공 통행로 제공 등 업무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전남 담양군, 강원 삼척시, 경북 영주시, 2018년 지역 정책 우수사례 선정

2018. 12. 14.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정책 관계자 간 소통의 장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 다음 해 정책 방향 공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올해 대회는 7개 도에서 총 12개 사업을 응모하였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전남 담양군의 「돌아온 담주4길 융복합 프로젝트 ‘쓰담」은 과거 담양군의 경제 중심지였던 담양시장과 담주4길 일대를 문화예술과 상업이 공존하는 지역거점공간으로 재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근대 건축물 디자인을 살린 공간정비, 주민참여형 마켓 운영, 문화·예술가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융복합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우수사례에 선정된 강원 삼척시의 「‘도계유리나라’ 조성사업」은 폐광지역에서 발생하는 석탄 폐석을 활용하여 유리 제품을 생산하고, 이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또 다른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북 영주시 「공유 플랫폼 조성사업」은 오랫동안 주민의 사랑을 받아 온 도립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영주시 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 담양군 ‘쓰담길’ 조감도





##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순천시 선정

2018. 12. 20.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문화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순천시를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2020년은 7번째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되는 해이다. 순천시는 순천만의 생태문화 및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한 도시로, 대규모 국제행사인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장기간 치러낸 점, 최근 다양한 문화행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받아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순천시는 순천시만의 ‘순천다움’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가치를 확산하는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 문화재청, ‘문화재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에 따른 2차 개선효과 분석

2018. 12. 20. | 문화재청 | 보존정책과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에 대한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허용기준 조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재 주변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통해 주민불편을 완화하고 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었다. 2020년까지 약 1,300여 건의 허용기준에 대한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구역별 면적 변화를 살펴보면, 규제 정도가 가장 강한 ‘개별심의 구역’은 당초 면적대비 1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규제 정도가 가장 약한 ‘타법령 처리구역’은 2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법령 처리구역’의 증가는 ‘개별심의 구역’ 14.0%와 ‘고도제한구역’ 25.7%가 ‘타법령 처리구역’으로 이동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로 이번 허용기준 조정이 문화재 주변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규제 정도를 상당 부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고도제한구역’의 4.8%와 ‘타법령 처리구역’의 1.6%는 ‘개별심의 구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용기준’ 조정이 보존이 필요한 문화재 주변 환경 및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결과다. 이처럼 ‘허용기준’ 조정은 규제 완화와 강화를 적절히 수행하는 등 규제의 합리성 측면에서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스마트시티「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공모

2018. 12. 23.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른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은 도시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방범 등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가 반영하도록 하며, 이중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가 우선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영 첫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리스트ार्ट 플랫폼’ 착수

2018. 12. 25.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동서남해 안기획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통영에서 ‘통영 리스트ार्ट 플랫폼’ 내부 리모델링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통영 리스트ार्ट 플랫폼’은 폐조선소 부지(옛 신아sb)의 기존 건물을 활용한 것으로, 청년 및 조선소 실직자들을 위한 창업·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창업지원 센터이자 다목적 공유 공간이다. ‘통영 리스트ार्ट 플랫폼’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인력으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할 예정이며, 창업 시제품 판매나 관광 콘텐츠 사업 진행 등에 필요한 공간을 청년창업자나 사회적 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예비주자 선정

2018. 12. 26.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

였다. 승인된 주요 지자체의 조성계획은 지역의 가치와 더불어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중심에 둔 ‘생활 및 시민문화’ 중심 도시조성계획(생활문화도시 부천,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문화도시 남원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 10 곳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 말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받는다.

▼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결과(광역·기초(시·군·구)순)

지자체	사업명
대구광역시	새로운 리듬을 만드는 문화도시 대구
경기 부천시	생활문화도시 부천·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강원 원주시	시민이 만들어가는 창의문화도시 원주
충북 청주시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충남 천안시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
전북 남원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문화도시 남원
경북 포항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철학문화도시 포항
경남 김해시	오래된 미래는 꿈꾸는 역사·문화도시 김해
제주 서귀포시	105개 마을이 가꾸는 노지문화 서귀포
부산 영도구	예술과 도시의 섬, 영도

## 경북·충북 거점 지역개발계획 승인, 신경주 역세권·오송 화장품단지 등41건 사업 선정...2조 6,976억 투입

2018. 12. 30.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회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이번 계획의 비전과 주요 지역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북)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거점지역 육성’ - 신경주, 김천(구미)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네트워크형 광역교통체계 구축, 복합기능의 신도시 조성, 동해안 지역의 성장거점화를 위한 환동해 경제기반 조성, 기존 산업시설의 고도화 등 산업 재편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야 문화권인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관광 루트를 제공, 가야산성 등 문화유적지를 정비·복원함으로써 지역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한다. ② (충북) ‘새로운 번영의 땅, 뉴 허브지대 육성’ - 오송 화장품단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등 신 성장동력산업과 미래유망산업(고령친화, 기후환경, 관광스포츠, 첨단형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기

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도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개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충주호 주변의 역사·문화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관광·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및 상생협력사가 추진방안 확정

2019. 01. 02.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정책과, 도심재생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사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20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의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재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번 표준안은 그 실행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향후 재생사업 공모 시 상가 내몰림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도 임대 동향을 조사하여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건축 공사비 분석 및 예측 시스템’ 온라인 서비스 시범 개통

2019. 01. 02. | 조달청 | 건축설비과

조달청은 ‘공공건축 공사비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온라인 서비스인 ‘공사비 정보광장’을 시범 개통한다. ‘공사비 정보광장’은 예상 공사비 산정, 유사 공사 검색, 공사비 관련 주요 통계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상 공사비 산정’ 기능은 설계조건을 선택하면 선택된 조건과 동일한 공사를 참조하여 평균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공사 계획부터 실제 공사 발주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그동안의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보정하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유사 공사 검색’ 기능을

통해 대지면적, 용적률, 공사 기간 등 공사비 외의 공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별 공사 발주금액 및 연도별 시설물, 유형별 공사금액 등 공사비 관련 통계도 제공할 예정이다.

### 민간 주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위한 얼라이언스 결성

2019. 01. 08.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스마트시티 민·관 협업 소통 채널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성계획을 알리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을 이끌기 위해, 대·중소·새싹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연구기관·협회 등의 민간이 중심이 되는 핵심 협의체이자 대정부 소통창구다. 앞으로 이종기업 간 기술협력, 사업모형(비즈니스 모델) 개발, 법·제도·규제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등 분야별로 분과를 나누어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또한, 대표기업·전문가·연구기관·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얼라이언스 가입 및 운영 등을 결정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두는 한편, 전문가 자문그룹, 사무국 등의 지원조직을 갖추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가시적 성과를 위해 우선 ‘국가시범도시 소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국가시범도시 소위원회’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국가시범도시의 인프라와 접목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과 융복합, 사업 및 서비스 모형 발굴,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 2019년 지원사업 23곳 공모 시작

2019. 01. 10.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 지역 내 공공건축물은 별도로 선정하며, 생활SOC 시설에는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원대상

을 ‘노후건축물 현황 평가’ 및 ‘설계 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총 23개 내외에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건축물 현황 평가’는 전문가 그룹이 현장 점검과 사용자 면담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내 환경, 안전요소 등을 측정·분석한 뒤 건물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설계 컨설팅’은 건축물 현황 평가 이후 성능개선안 제시, 사업비 산출 등 최적의 성능개선 방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건축물 붕괴 예방 등 위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발표

2019. 01. 10. | 국토교통부 | 도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해 발표하였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점검 방식·절차 개선: 육안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여 안전점검의 실효성 제고, ②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 강화 및 부실점검 예방: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업체 관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유도 및 부실점검 예방, ③ 기타 소규모 건축물 등 관리 강화: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등이다.

### 국토연구원 등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신규 지정 - 「스마트도시법」 따라 공모 심사 후 선정

2019. 01. 16.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은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와 심사를 거친 뒤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기관은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 활성화와 함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 다양한 도시 기능 간 연계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및 운영 업무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정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



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소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각 지원기관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권한 강화

2019. 02. 01.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②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③ 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규제 개선, ④ 기타 개정사항: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성도재로서의 재활용 골재 범위를 농지법령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법령 구체화 등이다. 이중 법령 구체화는 법령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안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김해·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60억 원 지원 -스마트도시「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2019. 02. 08.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는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노후된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친생활형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뉴(Re-New) 과학마을」 조성을 추진한다.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무선충전 전기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고, 냉난방 및 각종 편의시설이 적용되는 버스 쉼터를 설치한다. 탄동천 주변으로는 안전한 시민 쉼터 조성을 위해 범죄 예방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 가로등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새로운 지역 관광산업을 발굴하는 “고고(GO古) 가야 스

마트 관광 서비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가야문화를 증강현실(AR)·가상현실(VR)·홀로그램 등으로 구현한 역사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축해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빅데이터 분석과 미세먼지 저감 서비스를 연계한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사업을 제안하였다. 시민생활권별로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해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부천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은 다양한 유형의 특화단지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2021년까지 총 12개 지자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2곳 내외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실제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의 삶을 담은 문화적 도시재생 확대 추진

2019. 02. 20.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은 쇠퇴지역 내의 공공 이용이 가능한 장소를 문화적으로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분별한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해왔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되면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사업비가 지원되며,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대상 지역 간 교류 기회가 제공된다. 사업지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문화 재생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한 계획에 가점을 부여해 연관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 조달청,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

2019. 02. 21. | 조달청 | 건설용역과

조달청은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입찰에 디자인 평가를 도입하는 문제,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옴부즈만 도입, 감점·실격 사유 구체화, 교수 중심의 심사위원 구성을 디자인 전문가, 건축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설계공모 확대(2020년 1월부터, 2억 원 → 1억 원 이상)에 따른 업계의 설계공모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공사비 약 2,600만원 지원

2019. 02. 25.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중 3층 이상이며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강공사비용 중 약 2,6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한편, 건축물 소유자가 효율적이고 적절한 보강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화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보강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본격 시행, 민간분야 인증 비용 지원

2019. 02. 27. |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행정안전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한편,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한다. 또한, 내진보강 완료 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스마트도시 특화 종합계획 수립 국고지원 -경남 통영시, 부산 수영구, 서울 성동구, 충남 공주시·부여군 4곳

2019. 03. 17.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사업」대상지로 경상남도 통영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 등 4곳을 선정했다. ① 경상남도 통영시는 시민참여를 통해 선정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시장 서비스, 스마트 체험 경매, 정보·환경·안전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역상권과 함께 하는 스마트도시 통영’을 추진,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지역 관광자원을 스마트 서비스로 특화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주차정보·결제 등의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 내 3개 관광권역별 차별화 서비스 도입, ③ ‘교통중심 왕십리’ 사업을 제안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종합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사고방지, 미래형 버스정류장, 어린이 통학로 안전제공 등의 서비스 추진, ④ 인접한 2개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공주시와 부여군은 기존의 백제문화유산에 스마트서비스를 접목하여 ‘세계적인 문화유산도시’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 건축안전팀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2019. 03. 18.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안전팀은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 보강, 건축물 안전점검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정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또한, 신축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관리할 계획이며, 건축자재 유통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국민설명회 개최

2019. 03. 25. |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로 구성된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 대국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복원 기본계획은 건물 6개 동을 1980년 5·18 당시의 원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현 건물별 상태, 기존 구조물 철거 가능 여부, 건축법,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등 법적·기술적 사항을 고려하여 마련했다. 협의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에 근거하는 복원’, ‘5·18 민주화운동 공간의 상징성을 살리는 복원’, ‘5·18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복원’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중 ‘6개 동의 전시 콘텐츠 구성’과 ‘공간 활용을 위한 전시 기본계획’을 발주한다. 이를 토대로 5·18 관련 단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80년대 당시의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6개 건물의 주요 공간을 재현하는 등 공간 활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행복청, ‘미세먼지 저감형 행복도시’ 만든다

2019. 03. 2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도시정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형 행복도시 추진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조성 중인 신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① 먼저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도시 내 주요 기능시설과 공간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세먼지 회피 방안을 검토한다. ② 건축 분야에서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용량과 성능이 우수한 공기정화설비 적용, 식생벽 설치 확대 등 건축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정책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지침을 개선하여 설계단계부터 미세먼지 저감 기술과 공법 발굴을 유도하는 등,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 걸쳐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나갈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다.

## 국가균형위, 전국 취약지역 102개소 생활여건 개선

- 5년간 전국 304개 농어촌·도시 취약마을에 총 5,700여억 원 투자(국비 4,033억 원)

2019. 03. 31.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지구 10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곳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촌 지역) 읍면 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 산간오지 등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 중심지에 위치하나 개발에서 소외되어 주변과 생활 격차가 커진 마을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② (도시 지역) 기존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었으나 상권 쇠퇴, 거점시설 철수 등으로 도시공동화가 나타난 낙후지역이 많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이나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취소로 공간적 단절과 심리적 박탈감을 겪는 지역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업이나 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집수리, 휴먼케어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 행복도시, 건축디자인 향상과 도시기능 활성화 위해 다각적 특화사업 전개

2019. 04. 1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2019년 제1차 행복도시 특화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특화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에는 주거단지 및 상업용지 이외에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아트빌리지를 추진하는 등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화운영위원회’에서는 산울리의 공동주택을 공원, 학교 등과 통합하여 공모를 시행하여 주민 커뮤니티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산울리 중심으로 지형을 활용하는 단독주택단지 조성,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추어 도심형주택용지에 특색 있는 주거문화가 도입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이밖에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집현리 캠퍼스타운 및 아트빌리지 조성계획 등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특화대상지의 선정기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특화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발표

2019. 04. 18.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건축정책과, 건축혁신지원팀

국토교통부는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의 전문성 적극 활용 : 서울시·영주시 등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를 활용해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한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전문가 활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이다. ② 좋은 설계자 선정 : 그동안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설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동네 풍경부터 근본적으로 바뀌나갈 계획이다. ③ 국민의 디자인 개선 체감 향상 :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한다. 각 부처는 이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정동극장 등 23개소, 2019년 공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선정

2019. 04. 22.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대상을 선정하였다. 정동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인 ‘원각사’를 복원한 시설이다. 상징성이 높은 건축물인 만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직속 연구기관으로 다수의 국내외 외교관, 교육생 및 일반인이 이용하는 국가 주요 교육·연구시설이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쾌

적한 재실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에너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소,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 나머지 21개소에 대해서도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개별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현장실사를 기반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요소를 발굴하고, 공공건축물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요자 요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군포시·남해군-LH,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계획 수립

2019. 05. 02. | 국토교통부 | 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건축물 리뉴얼 4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도사업으로써, ‘군포1동 주민센터·당동 도서관’은 공공시설,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의 복합문화복지 행정타운으로 개발하며, ‘남해군 군청사’는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총괄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지원, 지자체는 사업주체로서 각종 개발 방향을 확정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사업기반을 마련한다.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간 쌓아온 다양한 개발사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지자체 재원조달 여건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2019년 7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건축 행정 서비스 수준 평가 실시

2019. 05. 15.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한다. 올해 평가는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평가와 함께,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사례’에 대한 특별부문 평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부문 평가는 건축허가 처리 기간 준수 여부,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발생 등을 평가한다. 특별부문 평가는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 성공사례를 평가한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최종 평가결과와 발표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건축행정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작년과 같이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를,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를 평가할 예정이다.

## 정부-공공기관-민간, 도시 취약지역 지원 위해 힘 모은다

2019. 05. 15. | 국토교통부 | 도시활력지원과

국토교통부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및 「주민 돌봄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작년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협력사업의 내용·규모·참여기관이 확대된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이 시행되면 대상 지역의 보온단열재·창호·도어록 등 주요 건축·보안 자재가 교체된다. 이를 통해 화재 및 범죄 위험 감소, 냉난방비 절약 등 도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이 추진되는 「민관협력형 주민 돌봄사업」을 통해 복지전문인력과 함께 찾아가는 의료봉사, 복지 컨설팅 등 ‘맞춤형’ 휴먼케어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았다! - 학교, 체육관, 마을회관 등 생활SOC 지원

2019. 05. 23.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건축혁신지원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엔 구성된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공공건축 절차 혁신을 통해, 「디자인 품격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업 추진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게 현장 컨설팅, 담당자 워크숍 및 교육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 민간건축가 참여로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 높인다 - 광주·파주·진주 등 8곳 공공건축물에 위촉키로

2019. 06. 03.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지자체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해당 지역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을 총괄·자문하는 ‘총괄건축가’와 개별 건축사업의 조성 전 과정(설계, 시공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게 된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서는 기초지자체에 위촉된 총괄건축가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총괄·조정하도록 계획 수립 비용도 지원한다. 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인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은 생활SOC 등 공공건축물들이 최적의 장소에 양질의 디자인으로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이 체감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2019. 06. 03. | 국토교통부 | 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과제의 주요 내용은, ① 가로구역 면적 확대, ② 주택도시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③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대 공급이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관 및 공공공간

### 국토교통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미집행 공원 해소에 도움 기대

2018. 12. 04.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시행령 제10조의2), ② 개인형 이동수단 시범 운행 근거 마련(시행령 제50조 제5호), ③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시행령 제29조 제5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 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하였다.

### 지역사회·민·관 협력 경관 개선 시흥시, 경관행정 경진대회 대상

2018. 12. 10.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제2회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흥시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흥시는 ‘시흥시 경관협정 지원 협업체계 마련’을 주제로, 주요 국도변 불법 적치물 등 경관 저해요소를 주민들의 자발적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주민 민원을 즉각적으로 해소하여 경관협정 체결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문학적 경관 형성을 통한 경관계획 수립체계 개선’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관 용역 발주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본 사례가 정착, 확산된다면 국토 경관을 형성 관리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72시간 도시생생(都市生生) 프로젝트’의 서울시, ‘K-water 「경관클리닉」 제도 도입 및 운영’의 한국수자원공사, ‘효율적인 경관심의 운영 및 사후관리 통합체계 구축’의 안산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경관계획을 위한 경관자원조사 실시’의 당진시가 수상하였다.

### ▼ 시흥시 경관협정 체결을 통한 경관개선



### 문화재청, 공주 공산성의 경관 개선 휴식공간 마련 위해 역사공원 조성

2018. 12. 28. | 문화재청

문화재청과 공주시는 세계문화유산인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의 경관을 개선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산성은개골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새롭게 조성된 은개골 역사공원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자연 지형을 활용해 시냇물을 정비하고 주변에 작은 수목원과 꽃동산을 조성하여 사계절 내내 이색적인 풍경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로써 공산성을 찾는 방문객은 자연과 어우러져 휴식하며 역사적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 투자선도지구 집중육성·도로·공연장 등 기반시설에 국비 92억 지원

2019. 01. 02.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진도 해양복합관광단지’는 진도군의 자연경관, 로컬푸드, 민속문화예술공연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휴양·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국 규모의 대형 리조트 유치를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주요 관광지로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및 공연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하여 리조트 관광객을 지역으로 연계·확산시킴으로써 지역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마당의 가치 재조명 ‘공유 마당마을’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2019. 01. 31. | 도시공간건축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해밀리(6·4생활권)에 위치한 구역형 단독주택용지 설계공모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유 마당마을’ 설계공모는 단독주택 난개발의 폐해를 방지하고, 마당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또한, 창의적인 설계를 통해 개별 마당과 공유마당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건축계획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설계공모는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1단계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12팀을 선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2단계 지명공모를 실시하여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또한, 공모 단위별로 신진(45세 이하) 여성건축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하였다. 2단계 공모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 안전한 동선계획, 공유마당 운영관리방안, 내·외부 공간 구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졌다. 여성건축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한 P1구역은 ‘너와집’을 컨셉트로 단지 내 차량 동선을 외부로 계획하여 각 세대와 공용마당을 긴밀하게 연계한 계획이 당선되었다. 신진건축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한 P2구역은 ‘리본마을’을 컨셉트로, P3구역은 ‘공유를 통한 균형’을 컨셉트로, P4구역은 ‘CROSSFADE’를 컨셉트로, 응모한 팀이 최종 당선되었다. 당선작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특화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며, 약 127세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해밀리(6·4 생활권)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



## 행정안전부, 버려진 공간, 주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직접 바꾼다-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총 173.4억 원 투입

2019. 02. 19. | 행정안전부 | 주민참여협업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사업은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주민주도 참여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고용위기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활력을 잃은 지역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공간을 먼저 개선한 후 시민에게 개방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시민이 사업 초기부터 직접 참여하여 공간 활용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간 조성 및 운영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사업 내용과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8개 시도의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현장 방문 등을 거쳐 1차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나머지 9개 시·도의 사업 계획도 조속히 보완을 거쳐 1분기 중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이번에 보조금을 받은 시·도는 서울,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 개최,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 기본설계 드로잉 공유회’ 개최

2019. 02. 2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도시공간건축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행복도시 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 기본설계 드로잉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회는 2018년 개최한 ‘어린이디자이너 캠프’(편해문 행복도시 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 총괄계획가 개최)에서 나온 내용에 어린이와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더하여 도출한 기본설계 드로잉을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행복도시 어린이놀이터 시범사업은 공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기본설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놀이터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문 용역사의 실시 설계를 진행하여 2019년 9월에 개장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등 국민협업 과제 공모

2019. 03. 19. | 행정안전부 | 주민참여협업과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과 「다 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할 국민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먼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사업 희망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함께 지역 유휴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다 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는 주민들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스스로 참여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업이다. 사업 희망자는 빈집이나 폐교, 폐창고 등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 자원순환 등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기본소득 창출을 통해 부가 가치를 공유하는 ‘전환도시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두 개 사업의 공모는 2019년 3월 20부터 4월 29까지 40일간 진행되었으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업별 1개의 주관 운영단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전월산 무궁화 유아숲 체험원’ 임산부 숲태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2019. 03. 27.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도시공간건축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전월산 무궁화 유아숲체험원’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전월산 무궁화 유아숲체험원’은 2017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체결한 ‘행복도시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행복도시 제2호 유아숲체험원이다. 정기형 프로그램 외에도 ‘종일형 숲체험’, ‘가족 숲체험’, ‘임산부 숲태교’ 등 다양한 숲체험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복도시 유아숲체험원은 이번에 개장하는 ‘무궁화 유아숲체험원’ 외에도 원수산 ‘파랑새 유아숲체험원’을 2018년 3월에 개원하여 운영 중이며, 괴화산 유아숲체험원도 올해 4월까지 조성을 완료하여 9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 마을만들기

### 취약지역 삶의 질 높이는 새뜰마을사업... 2019년 30곳 선정계획 발표 및 우수사례 공유

2018. 12. 04. | 국토교통부 | 균형발전위원회 공간정책과, 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에서 내년도 신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 새뜰마을사업)’ 선정계획과 해당 사업의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광주 발산마을 : 새뜰사업과 청춘발산사업 등을 통합 추진하여 광주의 대표적인 주거 낙후지역을 청년들이 즐겨 찾고 창업이 이루어지는 명소로 탈바꿈한 지역, ② 순천 청수골 : 주민과 함께 마을 대표 메뉴를 개발하고 협동조합을 조직, 방치된 한옥을 개조해 마을 식당(청수정)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③ 부산 해운대마을 : 주민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여 마을공동체밥상 건강클리닉 등 소외계층에게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 ④ 한국해비타트 : 전주 승암마을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에서 새뜰사업과 연계한 ‘2018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 등이다.

### 충청북도 옥천, 강원도 고성 및 삼척 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 9곳 선정

2018. 12. 06.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추진단

국토교통부는 2018년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청북도 옥천, 강원도 고성 및 삼척 등 9개 지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대상지 중 ① 충청북도 옥천군은 인근에 공원, 학교, 공공청사, 체육 문화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이 위치하여 주변 환경이 양호한 곳이다. ② 강원도 고성군은 7번 국도가 인접하고, 인근에 버스터미널이 있어 지역 접근성이 양호하나, 남북접경지역으로 개발과 정비에서 소외되고 있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③ 강원도 삼척시는 1976년부터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광산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해 온 곳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새로운 임대주택 및 주변 지역 정비가 시급한 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2019년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격 육성,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2018. 12. 06. | 국토교통부 | 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재정 정책적 지원과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생활SOC 등의 운영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생활SOC의 운영 관리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주민 역량을 높이며 기존 사회 경제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새마을금고와 신탁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을 지원하고, 생활SOC 공급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12개 읍·면·동 표창

2018. 12. 18.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민자치회 활성화 관계자 워크숍」을 전남 담양군에서 개최했다. 전남 담양군은 2018년에 근거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워크숍을 추진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 선도 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센터와의 협의·심의를 통해 위탁사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마을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주도로 지역의 미래를 계획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8년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유공자 시상과 더불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특강을,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활성화 계획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체험휴양마을 5선’ 선정 발표

2019. 02. 2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각종 체험을 통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우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전국 5개 권역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했다. ① 양평 외갓집체험마을은 아이와 함께 농촌에서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가족형 체험 마을이다. ② 평창 황토구들마을은 전통 구들 체험에 특화된 마을이다. ③ 부여 기와마을은 백제 시대 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리적 특성에 따라 백제문화와 농촌체험을 함께 경험해 볼 수 있다. ④ 남원 지리산나들락마을은 지리산 둘레길 제1코스 출발지점과 제22코스의 종착점에 위치하고 3월 말이면 은은한 노란빛의 산수유가 만개하여 봄철에 많은 여행객이 마을을 방문한다. ⑤ 밀양 꽃새미마을은 허브 향이 가득한 마을로 허브농원에서 허브, 야생화 등 다양한 수목을 감상할 수 있고 허브 분갈이, 허브 비누 향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계절에 어울리는 우수 농촌여행지를 지속해서 선정하고 알릴 계획이다.

## 낙후했던 우리 마을 새 단장...새뜰마을사업 성과 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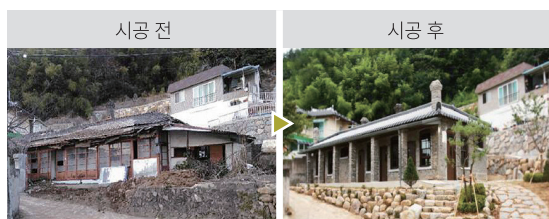
2019. 03. 07.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도시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되고, 마을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① 물리적 환경개선: 광주 서구 발산마을은 공·폐가와 내대지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식당, 마을 전담대, 주민커뮤니티센터, 주차장, 텃밭 등을 조성함으로써 대표적인 명소로 탈바꿈하였다. 부산 사상구 새뜰마을은 보행환경 개선 및 CCTV와 보안등을 정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자활센터와 함께 위험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시행하여 안전마을로 재탄생 중이다. ② 주민복지 증진: 서울 돈의동 새뜰마을은 해충



방제작업을 지역협동조합과 함께 시행하고 쪽방촌 주민들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 영도구 해돋이마을에서는 주민커뮤니티시설을 노인복지관과 통합 조성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여 노약자 우울증 및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마을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다. ③ 주민 역량 강화: 순천 청수골에서는 방치되었던 한옥 근대건축물을 활용하여 청수정 마을 식당, 안력산 의료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이를 주민 협동조합과 순천의사회에서 운영하여 마을에 맞춤형 일자리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주 옥봉마을에서는 마을 내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조성한 옥봉루 로컬푸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공·폐가를 활용한 마을 식당·쉼터 및 안력산 의료문화센터(순천 청수골)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마을을 살린다 - 2019년 신규마을기업 67개소 선정

2019. 03. 11. | 행정안전부 | 지역공동체과

행정안전부는 2019년 신규 마을기업 67개소를 선정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최종 심사에 통과한 마을기업들은 앞으로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선정된 마을기업 중 12개소는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청년 마을기업으로, 지역자원인 ‘밤’과 ‘맥주’를 특화하여 상권에 활력을 제공하는 충남 공주의 ‘밤 Beer’,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한 관광상품으로 타개 방법을 모색 중인 울산 동구의 ‘3D 문화디자인’ 등이 발굴되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 참여 주체에 대한 신규교육을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마을관리협동조합 인가

2019. 04. 01. | 국토교통부 | 주거재생과

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이 마을은 2017년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100억 원의 마중물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 개선과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 공용부역과 문화상점 등을 운영하고, 마을주차장과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마을관리소 역할도 수행한다. 이 밖에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 상담,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뉴딜사업 성과를 제고시키고, 지속해서 유지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버려진 빈집, 주민에게 행복을 주는 마을공방으로 재탄생, 2019년 7개소 신규 선정

2019. 05. 15. | 행정안전부 | 지역공동체과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마을공방’ 7개소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공방은 도시재생 지역 내에 주민들의 교류 상생 공간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형’,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화를 공유 계승하는 ‘지역문화형’,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거점을 마련하는 ‘사회적경제형’ 등으로 구성되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서구 양3동’은 마을 내 공·폐가를 활용하여 청년 예술가와 주민이 어우러져 문화예술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별별예술공방’과 지역 음식을 전수 개발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는 ‘행복 공유주방’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 남원’은 지역민이 앞장서서 고유의 문화자원인 목공예와 옷질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마을공방을 조성하고, 경남 하동의 ‘평사리 마을’은 식물공방, 음악카페, 마을판매장 등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명소로 꾸밀 예정이다.

## 공공시설물 및 매체

### 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 ‘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해서’

2019. 03. 13. | 국토교통부 | 도로운영과

국토교통부는 도로표지판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는 안전한 도로환경과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표지판 개선(안)에는 ① 고령 운전자의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한 글자 크기 확대, ② 고속도로 내 관광지 안내 확대, ③ 외국인 운전자의 혼란 해소를 위한 영문 표기 통일 등 운전자의 요구와 도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 글자크기 확대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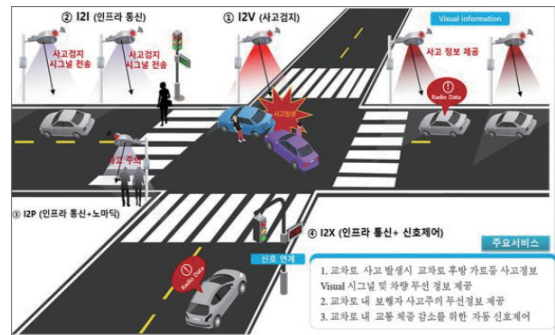
### 디지털 신호로 위험상황 알려주는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 2023년까지 260억 투입

2019. 04. 01. | 국토교통부 | 첨단도로안전과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스마트 도로조명 플랫폼 개발 및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각종 도로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저감에 기여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본 사업을 통해 가로등과 같은 도로조명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하여 도로상 위험상황을 직접 수집·판단하여 ‘디지털 사인’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변 행인과 차량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횡단보도나 교차로, 터널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가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조명 플랫폼에서 제공할 서비스 전략 수립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정보처리·통신 플랫폼, 멀티센서 융합 도로조명 시스템, 도시재난안전관리 연계기술 등 부처별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 스마트 도로조명 서비스 형태(예시)



### 광주 광산구·울산 중구·강원 원주시, 「2018년 옥외광고 업무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2019. 04. 24.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옥외광고 업무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 기관 선정은 불법 광고물 정비, 안전점검 등 점검지표를 토대로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대통령 표창 수상 기관에는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시’가 국무총리 표창 수상 기관에는 ‘인천광역시, 부산 부산진구, 인천 부평구’가 선정되었다. 수상 기관들은 지역 유관단체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 건축 및 도시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대상지 15곳 선정

2018. 12. 04. | 서울특별시 |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가 2018년도 「도시재생 신규 희망지사업」 대상으로 15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희망지사업’은 2016년부터 서울특별시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준비단계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에는 주민모임 공간 마련,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지역조사 및 도시재생 의제 발굴,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 파견 등 앞으로 주민 스스로 노후 주거지를 재생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2019년부터 선정 방식을 예비후보지 지정 및 수시모집 방식으로 변경해 희망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도시문제 해결 위한 도시인프라 과학기술특화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2018. 12. 12. | 서울특별시 |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이 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역량을 축적하는 등 서울특별시의 ‘기술과학 R&D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서울특별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문제를 한 분야의 연구만으로 풀기 어렵다는 지적과 외부 개별 연구기관에 위탁 의존하는 방식으로 인해 정책 연속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기술연구원 출범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가 상호연계하는 지속적인 통합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심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 주거용도 비율 확대

2018. 12. 31. | 서울특별시 | 도시활성화과

서울특별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한다. 이는 서울 도심 내 공공주택 확대 방안으로 청년, 신혼부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변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에만 주거비율을 최대 90%를 적용해 왔지만, 이번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서울 시내 주요 8개 지역 주거비율도 현재 50%에서 90%까지 대폭 상향되며, 현재 주거 용도가 없는 지역은 새롭게 용도가 부여된다. 8개 지역은 영등포 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등으로 도심부이거나 중심 상업 업무시설이 밀집해 도심 기능을 하는 곳들이다. 서울특별시는 기본계획 변경 후, 우선 정비계획 재정비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개소에 주거를 주 용도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존 계획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며, 또한, 변경된 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이 즉시 본격도에 오를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주거문화 혁신을 위한 공동체 주택 아카데미 개최

2019. 01. 07.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문화 혁신을 위한 공동체 주택 아카데미 「함께 짓고 살고 누리는 법」을 1월 8일 ~ 31일까지 개최하였다. 8일에 개최한 아카데미는 유럽 사회주택 및 공동



체 주택 소개를 시작으로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주택, 협동조합형 주택이 소개되었고, 다양한 공동체 사례와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아카데미는 Part 1, 2로 진행되는데, 'Part 1(1월 8일 ~ 17일)'은 사회주택, 공유주택, 협동조합주택 모델을 알아보고, 국내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주택 모델이 발전한 유럽의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었다. 'Part 2(1월 19일 ~ 31일)'는 마을도서관, 마더센터, 어린이집, 놀이터 등 커뮤니티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노하우와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소개하고 학습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서울특별시,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허가

2019. 01. 08 | 서울특별시 | 주택공급과

서울특별시가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특별시가 용도지역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양호한 도심권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초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1997년에 건립된 기존 노후 골프 연습장을 철거하고, 주거복합 건축물로 지어진다.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공공임대 68세대, 민간임대 212세대, 총세대 수 280세대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2019. 01. 11. | 서울특별시 | 주택공급과

강동구 천호역 58호선 인근 부지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이곳에는 현재 주유소가 들어서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의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의 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천호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 공간과 더불어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먼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입주

만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편의시설, 주차장이 들어선다. 주차장의 총 75면 가운데 10%는 나눔카 주차장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상 2층에는 공공청사 공간이 조성되며,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창업 취업센터'로 운영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인허가 시스템 혁신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 추진

2019. 01. 17. | 서울특별시 |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가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 착공 전 단계에서 '굴토심'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 소규모 건축공사장으로 확대한다. ② 기존 건물 철거 전에 실시하여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뀐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착공 전 안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 ④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한편 이를 위해 시는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서울특별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로 신설할 예정이며, 민간건축물 부문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ZEB 3) 획득

2019. 01. 18. | 서울특별시 | 환경정책과

서울특별시의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본인증 건물 중에서는 최초로 3등급(ZEB 3)을 획득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패시브 건축 기술(고단열 고기밀 외피, 고효율 삼중 창호, 자동 외부 베네시안 블라인드, 중정과 경사벽을 이용한 자연채광의 활용 등)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태양광 발전 시설과 지열 히트펌프 등)를 갖춘 에너지 자립형

건물로, 에너지 사용량이 적으며,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소비할 수 있다. 한편,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제로 에너지 건축 설비 기술의 보급과 확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도 홍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인증을 추진하였고, 이번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획득을 기념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 설비기술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신축 증축 리모델링 시 '미세먼지 필터링' 기계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2019. 01. 24. | 서울특별시 | 건축기획과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계환기장치'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 때, 시 자치구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30세대 이상 주거 건축물이나 연면적 3천㎡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의 경우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된 내용에 포함됐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서울특별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8월 도입한 설계기준으로,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통해 유희공간에 주민 공유공간 조성 등 추진

2019. 01. 25.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서울 전 동으로 확대된다. 서울특별시가 강남구와 '찾동'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서울 전 지역에서 '찾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부터 6개 동의 시범운영을 통해 '찾동' 서비스에 참여해 온 강남구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찾동' 서비스를 강남구 전 동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가장 마지막으로 '찾동' 서비스에 합류한 강남구 16개 동주민센터를 '주민 중심의 공간', '동마다 특색이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 대상 'VR 안전교육' 프로그램 실시

2019. 01. 29. | 서울특별시 | 도시철도사업부

서울특별시는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VR(가상현실)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형 안전사고를 VR을 통해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VR 안전교육'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전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안전 불감증과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고 있다. 특히, 신규 근로자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은 현장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가상현실 기반의 안전교육이 근로자들의 현장 환경 및 상황 인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근로자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VR 안전체험 교육'을 2019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5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과거 아날로그 촬영 사진 포함, 최신 항공 사진 공개로 도시 변화 모습 공유

2019. 01. 29. | 서울특별시 | 공간정보담당과



▲ 수색 4주택 재개발지역(은평구 수색동)

서울특별시가 매년 서울의 변화 모습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시 전역을 4회에 걸쳐 촬영하였으며, 항공사진 1,929매를 취득하였다. 또한, 촬영된 서울의 최근 모습을 시민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취득한 사진 중 비공개지역을 보안 처리한 뒤 바로 공개했다. 2019년도에는 2010년 이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촬영된 사진들을 위치 정확도를 높여 공개하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기인 5개년 사진을 낱장 사진별로 최대 500m 정도의 위치 오차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재공개

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진은 총 11,510매에 이르며, 앞으로 서울특별시시는 항공사진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신속하게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 서비스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교통 안전 및 복지 환경' 분야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2곳 지정

2019. 01. 30. | 서울특별시 | 스마트도시담당관

서울특별시가 성동구와 양천구를 첨단 ICT 기술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로 첫 지정했다. '스마트시티 특구'는 스마트시티 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시민이 사는 생활 현장에 집중하여 적용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업들이 기술을 실증 상용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우선 성동구는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는 '바닥 매립형 LED 보조 신호등'과 '횡단보도 집중 조명 시스템'의 '스마트 횡단보도'를 시작점과 횡단보도 상에 각각 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보행자는 정지선과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멀리서도 횡단보도를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서행 운전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호등에 설치된 센서는 고장 여부도 감지할 수 있어, 고장 내용을 IoT를 통해 자치구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 재빠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양천구는 독거 어르신 고독사 방지를 위한 '스마트 플러그' 외에도 스스로 고장 여부를 점검하고 IoT 통신망으로 관리업체에 신고까지 하는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추진한다. 서울특별시는 스마트 시티 특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서울특별시 도시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디지털 시민시장실이나 열린 데이터 광장 등을 통해 시민과 기업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자문위원회 출범과 시범사업 실시 등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2019. 02. 14. | 서울특별시 |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는 2019년을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원년으로 삼아 '빈집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마중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강북 일대를 중심으로 빈집 발굴 작업에 돌입했으며, 복합용도로 신축 가능한 빈집, 생활 SOC가 부족한 지역 내에 위치한 빈집, 재생을 통해 주변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 내 빈집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번 '마중물 사업' 계획에 따라, 먼저 강북구 미아동 소재 빈집 3채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의 노후 불량 상태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채는 신축 후 '청년주택'으로, 1채는 리모델링 후 '청년 거점시설'로 활용한다는 방향을 세웠고, 나머지 11채도 향후 청년주택, 커뮤니티 시설, 주민소통방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단순히 빈집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입주 청년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이나 마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서울특별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건축가와 시민 출자 청년주택인 '터무니 있는 집'의 입주 청년들이 협업해 청년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라 '동북권 지역중심 육성방안' 수립 착수

2019. 02. 14. | 서울특별시 | 건축정책과

서울특별시가 작년에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한 가운데, 올해는 동북권 거점지역에 대한 특화 육성 방안인 '동북권 지역 중심 육성방안' 수립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중심지별로 구체적인 특화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필요한 사업이나 권역 차원의 생활 SOC 공급 방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는 '대학 등 인적 자원과 주거 기능이 잘 갖춰진 점', '일자리 창출이나 중심기능 가능성 등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점' 등 동북권이 지닌 장점을 고려해 첫 번째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상 지역을 서남권, 서북권 등으로 확대해 지역 중심지별 구체적 실행 방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거리가게 허가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등 ‘보행도시’ 위한 정책 추진

2019. 02. 19. | 서울특별시 | 보행정책과

서울특별시가 ‘걷는 도시 서울’ 4대 분야의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① 보도환경 정비, ② 교통약자 눈높이 정책 강화, ③ 도심 도로공간 재편·생활권 내 체감형 보행공간 확대, ④ 보행문화축제 확대 등이다. 먼저 ‘보도환경 정비’를 위해 유모차나 휠체어가 장애없이 이동하도록 노후 보도를 평탄하게 정비하고,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과 ‘거리가게 정비 사업’을 진행하여 생계형 거리가게의 생존권과 쾌적한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보행환경 정책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각 지체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진입부 점자블록 및 턱 낮춤 시설을 정비하고, 보행 사망사고의 40%에 달하는 노인 교통사고 감축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서울 맞춤형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계획」의 내용에 따라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 어린이 보호구역 38개소에 대한 안전 진단과 시설 개선을 시행한다. 셋째, 생활권 내 체감형 보행공간 확대를 위해 퇴계로 2.6km 도로 공간을 6~8차로에서 4~6차로로 축소해 보행공간을 확장하고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 그리고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전역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행특구화’ 하는 ‘도심부 보행특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의 ‘도로 공간 재편 설계’와 도심 이외에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행공간 조성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서울 대표 보행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걷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서울특별시 곳곳에 ‘차 없는 거리’를 확대 조성해 <걷는 도시, 서울>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리 체계 구축 추진

2019.02.26. |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을 정례화하여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와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2만 9천여 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조사 결과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확충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2018년에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 3,270여 곳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사용승인 때와는 다르게 구조를 변경한 경우 시정조치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선도 기업’ 협력으로 ‘도시생활 데이터’ 제작

2019. 03. 05. | 서울특별시 | 빅데이터담당관

서울특별시와 8개 민간기업은 ‘서울특별시민 도시생활 데이터 제작’을 위해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에 제작되는 ‘서울특별시민 도시생활 데이터’는 대부분 상권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된다.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해 소비 부류를 나누고, 상권과 소비 트렌드 데이터를 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를 시(市) 소상공인 정책에 활용하고,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 유통하는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권 및 상권 배후지에 대한 판매상품, 소비 정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존 자영업자의 상품 가격상정 등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각 기관은 「서울특별시민 도시생활 데이터 제작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공동 목표로, ① 민간 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신규 빅데이터 제작, ②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③ 빅데이터 연계 교류 및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미세먼지 제거’ 광촉매 도로 시범 시공

2019.03.07.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가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광촉매 도로를 유동인구가 많고 미세먼지 유발요인이 많은 서울 중심부 현장에 시범 적용한다. 이에 10월 착공하는 시네마테크 건립에 최초 적용하여 시공할 예정이다. 해당 건물의 외벽면적은 약 3,500㎡로 외벽 부분 전체에 광촉매 도로가 시공되며 건물 주변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시범 시공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작년 ‘선진국형 미세먼지 저감기술’인 ‘광촉매 기술’ 국산화 연구를 통해 실용화 한 광촉매 도로가 사용된다. 건축물 외벽에 시공된 도로가 주변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흡착해 광분해하고, 잔여물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원리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작년 아파트 일부에 이 도로를 시공한 바 있으며, 현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모니터링 중이다.

## 서울특별시, 도시문제 위해 수도권 도시계획 수립 착수

2019. 03.13.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한편, 이번에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재정비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20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20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지원

2019. 03. 18. | 서울특별시 |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특별시는 민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여, 건축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는 건물주의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점검 신청대상이 작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30년 이상,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에서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민간건축물’로 전면 확대된다. 다만,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하며,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점검을 신청하면 구조분야 외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건축물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여 외부 균열 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등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한다.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을 부여하여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취약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정밀점검 등의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하여 지속 지원 관리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최소 실면적 확보-창 의무설치... 고시원 건축기준 개정 건의

2019. 03. 18. | 서울특별시 |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특별시가 고시원 거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 :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전용면적 10㎡) 이상으로 하고, 방마다 창문(채광창)을 의무적으로 설치, ② 안전장치인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 서울특별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의 2019년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증액해 총 15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설치, ③ 고시원 거주자를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하며 월세를 일부 지원, ④ 고시원을 더 환경이 좋은, 더불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는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이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낙후 한강대교 하부에 '보행교' 조성

2019. 03. 20.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가 2021년 한강대교 남단에 노들섬과 노량진을 잇는 보행자 전용교를 다시 개통한다. 한강대교 남단(노들섬~노량진) 아치 구조와 기존 교각을 이용할 예정이며, 기존 차도는 유지하되 쌍둥이 다리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폭 10.5m, 길이 500m 보행교를 새롭게 놓는다. 1층은 차도, 2층은 보행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량진 고가차도 일부 구간을 존치시켜 한강대교 보행교와 연결하고, 노들역, 한강공원, 용봉정 근린공원 등 노량진 일대 주변으로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육교 형태로 연결할 예정이다. 이는 보행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도로 시설물로 단절된 노량진 일대 지역을 연결하는 동시에, 창의적인 디자인과 콘텐츠를 담아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다.

### ▼ 한강대교 '보행교' 조성 조감도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 지역재생 위한 '도시재생기업' 육성

2019. 03. 22. | 서울특별시 |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가 '도시재생기업(CR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을 육성한다. '도시재생기업'은 도시재생 수립 및 진행 단계에 참여하는 물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활동 발굴부터 기획,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는 현장지원센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협의체를 지원해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재생기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두 가지(지역관리형, 지역사업형) 유형으로 나뉘, 최대 8천만 원 ~ 2억 8,500만 원의 초기 자금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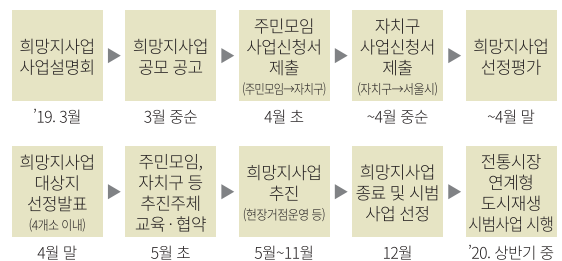
원한다.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의 1/3 이상을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거나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쇠퇴한 동네 시장과 배후 주거지 함께 재생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 본격 시작

2019. 03. 27. | 서울특별시 | 도시활성화과

서울특별시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2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① 주민공동체 활성화, ② 시장과 마을 연결, ③ 시장 이미지 개선, ④ 시장-마을 연결가로 환경개선 등이다. 주민-상인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전통시장 축제 등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시장 내에 키즈카페나 청년몰 등 시장과 마을을 연결하는 거점시설을 조성할 수도 있다. 이 밖에 낙후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LED조명 교체, 배수로 및 위생환경을 정비하거나, 마을과 시장에 이르는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공공화장실, 무인 택배함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서울특별시는 2020년 시범사업에 앞서 후보에 해당하는 희망지 4개소를 선정하고, 2019년까지 '희망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전략계획」 추진 일정



## 서울특별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상업지역 주거비를 최대 90%까지 높인다

2019. 03. 28. | 서울특별시 | 주거사업과

서울특별시는 「재정비 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3월 29일(목)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선된 운영기준은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된 구역에 한해 적용되며,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기준은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이 되며, 주거비율 등 최종 결정사항은 구역별 특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이며, 이번에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약 15개 구역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자치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촉진계획 변경 신청 시 관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일제가 지은 조선총독부 체신국 청사 건물,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2019. 03. 28.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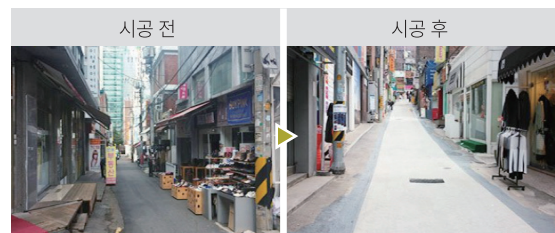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는 2015년 철거했던 옛 국세청 남대문 별관 건물 자리에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조성을 완료해 정식 개관했다. 국세청 별관 건물 철거를 위해 당시 소유자였던 국세청과 협의하여 2014년 2월 국세청 별관 부지와 청와대 사랑채 내 서울특별시 부지 교환을 결정했고, 2015년 5월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은 지상 1층~지하 3층으로 조성됐다. 지상은 ‘비움을 통한 원풍경 회복’이란 취지에 따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시민광장이 들어섰으며, 지하 3개 층은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전시관이 들어섰다. 또한, 지하 2층에는 시민청, 지하철 시청역까지 연결되는 지하 보행로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조성은 일제가 훼손한 세종대로 일대의 역사성과 서울의 원풍경을 회복해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하나다. 옛 국세청 별관 자리에 주변 역사 문화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시민 공간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청, 시민청, 시청역과 같이 주변 지역과 보행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서울특별시, 13곳에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본격 추진

2019. 04. 08.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서울특별시가 역사 문화적 숨길 보존, 낙후된 환경개선, 공동체 복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를 바탕으로 2019년(13곳)에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일정한 구역을 골목길을 따라 1km 내외 ‘선’ 단위의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폭 4m 이내의 생활 골목길이나 10~12m 이내의 골목상권, 보행중심 골목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골목길 재생 공통 가이드라인’과 ‘골목길 현황 지도’를 제작하고, 25개 자치구, 골목에 살고 있는 주민,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골목길 재생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범사업 추진 중인 용산 성북구 골목길을 제외한 11곳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 공사에 착수된다. 서울특별시는 각 사업지에 3년간 총 10억 원 규모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하고, 시·구의 분야별 사업과 연계해 재원을 추가적으로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5월에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 12곳의 골목길을 추가로 선정하여 보행자 도로가 있는 지역과 재개발 해제지역 등 도시개발에서 제외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지역들에 대해 골목길 재생사업을 진행하여 슬럼화되는 것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 ▼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 서울특별시,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선정

2019. 04. 08.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정책과

서울특별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독산동 우시장 일대’를 선정했다. 2017년 8월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특별시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2019년 부동산시장이 안정 지역을 중심



으로 부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독산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독산 3락(樂)’, 즉 ‘독창적인 지역산업 재생으로 일을 즐기는 樂’, ‘산해진미 우시장 재생으로 맛을 즐기는 樂’, ‘동네 이웃과 함께 문화 예술재생으로 멋을 즐기는 樂’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산업 재생, 우시장(상권) 재생, 문화 재생 등의 마중물 사업비 총 3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스튜디오 독산이 리모델링을 거쳐 ‘독산 키친’, ‘공유 오피스’ 등 창업지원 공간으로 확대 운영되며, 4월부터 ‘도시재생대학’ 3기를 개강해 통합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한다. 한편, 마중물 사업비 외에 중앙부처,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그린 푸줏간 조성사업, 금천 뮤지컬스쿨 조성사업, 금천 어르신복지센터 등 300여억 원의 예산 추가 투입으로 독산동 일대가 산업 우시장 문화 지역 자산기반의 신경제 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특별시, 노후로 발생하는 한옥 문제에 서울특별시가 소규모 수선공사 지원

2019. 04. 15.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서울특별시가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의 범위를 확대해 한옥 노후화로 발생하는 소규모 문제 전반에 대해 공사를 지원한다. 노후 한옥의 경우 자연 부재(목재, 흙) 노후화로 인해 부식 탈락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거주민의 한옥 수선 지식 부족, 한옥 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의 문제 때문에 보수가 쉽지 않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절한 공사계획능력 부족이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응급사항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한옥의 내구성 저하나 멸실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 합법적인 한옥구조에 한해서만 지원 적정성 검토를 통해 시행하게 되며, 임의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불법적인 부분은 제외된다.

## 서울특별시, 집 고치고 싶은 주민 위해 맞춤 상담과 컨설팅 활동 시작

2019. 04. 16.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저층주거지 재생과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관심은 높지만, 막상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런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맞춤 상담과 컨설팅을 해줄 서울특별시 ‘집수리 전문관’이 활동을 시작한다. ‘집수리 전문관’은 건축사부터 시공기술자까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집수리(소규모 주택개량)부터 신축 증축, 소규모 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주민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게 된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도시재생 현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전문가들인 ‘집수리 전문관’을 첫 위촉하고, 6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들의 상담수요에 따라 수시로 도시재생 현장으로 가서 상담을 하고, 집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건축 수선비 지원으로 지역 건축자산 보전

2019. 04. 22. | 서울특별시 | 주거재생과



▲ ‘붉은벽돌 마을 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서울특별시와 성동구가 ‘붉은벽돌 마을 사업’과 관련해 8개 건물을 처음으로 선정 완료했다. 「붉은벽돌 마을 사업」은 ‘한옥’을 떠올리면 북촌이 연상되듯 ‘붉은벽돌’을 떠올리면 성수동을 연상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하기 위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다. 처음 선정된 8개 건물 중 6개 건물은 붉은벽돌로 신축되고 2개 건물은 기존 건물을 대수선한다. 총 3개는 준공 완료했고,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시는 성수동의 붉은벽돌 건축물을 보전하고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지원이 늘어나길 바라는 시민 의견과 관계 전문가 자문결과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암사 도시재생 거점 공간 ‘상상나루來’ 개소

2019. 04. 25. | 서울특별시 | 주거재생과

서울특별시와 강동구(암사동)가 도시재생사업의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인 ‘암사 도시재생 상상나루來’를 건립해 개소식을 개최했다. ‘암사 도시재생 앵커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748㎡) 규모로 공동 육아모임 공간, 공유 부엌, 일자리 교실 등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앵커시설은 시설의 공간별 운영자, 주민협의체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마을기업(CRC)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국비 추가 확보로 마장동 도시재생 탄력 추진

2019. 05. 07. | 서울특별시 | 재생정책과

서울특별시시는 마장동 도시재생의 핵심시설인 ‘마장 청계 플랫폼 거점 복합시설’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마장동 525번지 내에 연면적 4,500㎡,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규모로 조성되는 재생 거점시설이다. 지상에는 시장 환경개선 시설, 지역 요구를 반영한 생활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그린 푸줏간 등 시장 지원시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판매시설, 식육가공 전문 교육장, 주민공동체 공간, 식문화 복합공간 등을 구상 중이다. 또한, 지하에는 주차장 130면이 들어서 그동안 주민과 상인들이 지속해서 요구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시는 ‘마장 청계 플랫폼 거점 복합시설’ 조성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우수건축자산등록안 원안의결

2019. 05. 13. | 서울특별시 | 한옥건축자산과

서울특별시는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과 종로구 사직동 ‘캠벨 선교사 주택’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안)을 ‘원안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우수건축자산 제2호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은 1936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된 일련의 건축물이며, 전문가들은 외부공간과 건축물이 이루는 집합적인 경관, 그리고 근대 산업 건축물의 건축적 특성을 보유한 점 등 전형적인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의 우수건축자산 제2호 등록은 개발압력이 높은 서울에서 소유주의 의지로 추진된 민간 우수건축자산 등록이라는 점, 그리고 재생을 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우수건축자산 제3호 ‘캠벨 선교사 주택’은 미국 남감리회가 구한말 서울에 파견한 첫 번째 여성 선교사 조세핀 캠벨이 살았던 주택으로 드물게 석재로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장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건축물이며 근대 선교 역사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다. 우수건축자산 2호, 3호는 오래된 건축물의 가치를 살려 지역거점시설과 문화 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우수건축자산등록 2호, 3호



대선제분 전경과 부대공간



캠벨 선교사 주택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으로 진행된 장안평 도시재생 주민공모 총 8개 선정

2019. 05. 15. | 서울특별시 | 도시활성화과

서울특별시시가 장안평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 장안평 도시재생 주민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8개의 주민공모사업이 선정되어 5월부터 10월까지 실행된다. 이번 주민공모사업은 장안평 일대 주민과 상인들에게 도시재생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도시

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 공모 분야에서는 장안평 매매센터 화장실 개보수, 장안평 자동차 시장 LED 조명 설치, 부품상가 일대 샤워부스 설치 공사 등 3개가 선정되었으며, 기획공모 분야에서는 장안평 도시재생 사업 현장, 축제 영상 촬영 전시, 장안동 명품 장인과의 만남 ‘2019 엔진 해부학’, 지역주민의 단합과 역량 강화를 위한 ‘강한 운동회’ 개최 등 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 부산광역시, 도시어촌 청사포 ‘2018년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2018. 12. 14. | 부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부산광역시는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18년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받았다. 청사포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09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마을 내 각종 유·무형의 시설물과 숨어있는 역사자원 및 자연경관을 조화롭게 계획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주민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201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오랜 기간 협력하며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7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였다.

### 부산광역시,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위한 수요조사 실시

2019. 04. 04. | 부산광역시 | 재난대응과

부산광역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지원 사업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비용 최대 900만 원(국비 60% 시비 30%), 인증 수수료 최대 300만 원(국비 30% 시비 30%)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시민 아이디어로 ‘빈집’ 재생

2019. 05. 06.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부산광역시가 빈집 재생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빈집 재생 활성화 사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빈집을 공동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박종무 씨의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에는 빈집을 무료로 임대해 임차인이 수리 후 사용하는 강영훈 씨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우수상에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필요 기업에 반값 기숙사로 제공하는 정다빈 씨의 아이디어와 빈집을 식물원으로 조성하는 봉긋봉산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에 제출된 시민 의견을 현재 시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과 연계한 도시재생 시범사업 착수

2018. 12. 11. | 인천광역시 | 공공주택사업처

인천도시공사는 십정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 공사 착공과 함께, 정비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십정 2구역은 인천의 발전과 함께 태동된 마을로 주민들의 삶의 흔적과 도시변천과정 및 공간적 특성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장소의 혼’을 전달하겠다는 콘셉트로 ‘도시재생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구역 내 예원상가 리모델링 철거 과정에서 수집한 생활유산 약 200여 점을 전시할 수 있도록 ‘십정 2 도시재생 기념관’(가칭)을 운영한다. 또한, 사업장 주변에 설치된 가설펜스를 활용하여 십정 2구역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사진, 그림, 글 등을 남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생활유산 중 벽화, 우물, 전봇대, 담장 등을 재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와 정보를 간직한 기념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 등을 구상 중이다.

### 인천광역시, 인천색으로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통해 원도심 환경 개선

2019. 01. 07.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과

인천광역시는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시범사업」 최종보고회

를 개최했다.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시범사업」은 시민과 함께 개발한 ‘인천 색(10)’을 활용하여 원도심 5개소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해 원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8년 5월에 착수하였으며, 2019년 1월 13일에 완료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향후 ‘인천 색(10)’을 활용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후속 사업 발굴 및 단계별 실행 계획까지 담아냈다. 또한, 시민들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인천 색(10)’에 대한 홍보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시, 군, 구 및 모든 공공기관에서 대대적으로 ‘인천 색(10)’을 적극 홍보하고, 추경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색채디자인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위해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2019. 03. 13. | 인천광역시 | 주거재생과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비 약 1,530억 원을 들여, 동인천역 북광장 일부와 양키시장 일원에 공공시설, 상업업무시설, 공동주택을 복합 건설하는 사업이다. 또한, 북광장 중앙부 지하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부 광장을 재조성하게 된다. 인천광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본협약 체결 후 경영투자심사 등 내부절차를 마무리하고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안)’ 수립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 마중물사업 이후를 고려한 도시재생계획 수립 필요

2019. 03. 20. | 인천광역시 | 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분석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국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사업계획의 특징 및 연도별 변화를 분석해 도시재생사업의 형태와 경향을 살펴보

았다. 또한, 마중물사업 기간 이후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인천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특징으로 연도별로 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이나 사업 접수 기간에 따라 계획의 내용이나 수립 기간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 주민참여방법의 현실적 한계로 인한 소극적 참여, 사업성과를 정성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도시재생계획의 경직성이 지역 고유성과 개성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의 도입 취지를 흐리게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의 정의 및 이념에의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 선정 프레임, 유연성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인천광역시, 난개발 방지 위한 「아라뱃길 북부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19. 04. 01. | 인천광역시 | 도시개발계획과

인천광역시는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한 경인 아라뱃길 북측지역 약 77km<sup>2</sup>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발전계획 청사진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등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먼저 상세한 현황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고, 지역 개발계획 교통계획 생활복지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부문별 개발 및 관리계획을 담은 종합적인 발전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또한, 개발규모 및 도입이 가능한 기능 설정, 우선 추진 가능한 지역에 대한 구역지정, 개발계획(안) 수립 등과 관련하여 최적의 사업 추진방식, 구체적 자원조달 방안, 시행주체 등을 결정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2019. 01. 10. | 대구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대구광역시가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대구광역시 전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본 계획은 대구광역시의 범죄 발생 패턴과 대구광역시의 공간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에 맞는 범죄예방 방안을 도출하고, 각 지역에 맞는 범죄예방 디자인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시민들이 범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노후 주거지, 원룸 밀집지역, 골목길 등에 대한 범죄예방 디자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특화하여 제시하였다. 노상주차가 많은 골목길과 1층 필로티 구조의 원룸 밀집지역의 경우 CCTV 설치 및 조도 개선,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러 시트 및 반사경 설치 등을 권장했다. 또한, 막다른 골목은 디자인을 통해 영역성을 강화하는 한편, 화분, 텃밭 등을 배치하여 거주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게 하는 등 자생적인 범죄예방 디자인 기법을 제안하였다.

## 대구광역시, 청소년에게 문화 예술 정보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꿈지락 발전소’ 건립

2019. 01. 29. | 대구광역시 | 건축1과

대구광역시는 서구 종리동에 ‘꿈지락 발전소(시립 청소년 문화의 집)’를 4월에 개관했다. ‘꿈지락 발전소’는 대구의 새싹이며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정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성장과 자신감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꿈지락 발전소’는 공유 카페 상상의 계단 등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창의공간’, 책놀이터 요리실습실 등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 암벽등반장 열린 무대 등 청소년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공간’, 대강당 달빛 무대 등 청소년의 활동 및 휴식을 위한 ‘멀티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꿈지락 발전소’는 자연친화적 설계 및 편리한 유지관리 평가 기준을 충족한 녹색건축물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더불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는 등 청소년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하였다.

### ▼ ‘꿈지락 발전소’ 조감도



##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2019. 03. 19. | 대구광역시 | 건축1과

대구광역시는 「2019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16개 사업을 선정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인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정된 사업을 소재지 구·군별로 보면 동구 5개, 북구 2개, 수성구 2개, 달서구 2개, 달성군 4개, 단체 1개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제품 만들기, 아나바다 장터, 농장체험의 에코 공동체, 주민의 밤을 주제로 한 하모니 공동체, 성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관심 공동체, 유적지 탐방, 어린이 영화 상영 등이 있다. 올해로 7회째인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사업 내용 또한 점점 다양해지면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례



## 광주광역시, 디자인과 안전 향상 시킨 ‘광주다운 공동주택 디자인’ 마련 용역 실시

2019. 01. 08. | 광주광역시 |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가 ‘광주다운 공동주택 디자인’을 마련한다. 광주광역시는 획일화된 아파트 공급을 지양하고 아파트 수준을 한 단계 향상 시키고자, 1월부터 6월까지 공동주택 ‘디자인+안전’ 향상 방안 용역을 실시한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현황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울, 세종 등 선진 공동주택 디자인을 갖춘 지역의 사례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건물 배치, 외벽 디자인, 발코니 형태, 특화된 부대시설 등에 ‘디자인’과 ‘안전’을 접목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자인의 경우 주변 지역 및 기존 도시구조 특성을 비롯해 보행동선 연속성 등을 고려한 ‘공공성’, 주변 경관자원 및 지형 등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조화성’, 대지 형상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창의성’,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건축물을 설계하는 ‘지속성’ 등을 최우선 반영한다. ‘안전성’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 소방관계와 범죄예방이 가능한 안전설계, 무장애 공간 등을 중심으로 검토된다. 이렇게 마련된 ‘광주다운 공동주택 디자인’은 향후 대규모 주택단지 등에 적용된다.

## 광주광역시, 철도 유휴부지 활용 및 역사복합개발 추진 등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

2019. 01. 20. | 광주광역시 | 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가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지역에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부처 협업사업, 광주광역시와 철도공사가 철도차량 이전부지에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광주광역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식서비스산업의 거점 공간 ‘스테이션 G’ 건립, 광주역 광장을 활용한 ‘문화광장’ 조성, 광주역사와 푸른길공원 사이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푸른이음공원’ 조성사업 등을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한다. 광주광역시는 1월 말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 초 국토부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 3월에 활성화 계획 승인을

받아, 6월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단위사업별 설계, 보상, 공사 착공 등 본격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광주광역시, 여성친화 주거문화 조성 위해 「여성안심방범시설 설치사업」 추진

2019. 01. 30. | 광주광역시 | 도시정비과

광주광역시는 「여성안심 방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안심 5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저소득 모자가정, 조손가정에 안심 방범창을 설치한 바 있다. 올해는 소득이나 재산, 다가구 다세대 등에 상관없이 소규모 주택 1인 여성가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심 방범창뿐만 아니라, 창문 이중 잠금장치 및 안심 도어록, 안심 방충망 등 범죄예방 방범시설을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2019. 02. 10. | 광주광역시 | 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는 건축 도시공간 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에서는 특·광역시 중 서울특별시에 이은 두 번째 도입이다. 광주광역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압축성장 도시개발로 인해 광주만의 건축적 정체성을 가질 수 없고,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이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공간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정된 총괄건축가는 건축 도시공간 정책 수립 및 사업의 기획 발주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우수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조정 및 자문,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 추진 부서 간 상호 협력 및 협업 추진 등 도시공간환경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총괄기획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 광주광역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고시

2019. 03. 07. | 광주광역시 |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도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조례에 따라 지정 고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대상 지역은 상업지역과 시가지 경관지구 약 10.56km<sup>2</sup>로, 해당 대지의 전면도로 폭과 가로구역의 평균 깊이, 높이 계수를 반영해 건축물의 기준 높이를 정하게 된다. 단, 공개공지확보, 기부채납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기준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기간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청된 건축 인 허가 및 심의 건에 대해 적용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높이 계획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르게 된다. 한편, 광주광역시시는 시민 열람 편의를 위해 관계 도면을 해당 부서와 각 자치구 건축과에 비치하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에도 대상 지역을 게시할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 국토교통부 주관 선정되어 「주민 주도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2019. 03. 25. | 광주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광주광역시시는 3곳을 대상으로 「주민주도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주민 주도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사업은 농성1동, 사직동, 백운광장 등 3곳에 국비 4억 원을 포함한 총 8억 원을 투입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사업에 참여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사업별 예산은 1억 원 ~ 4억 원으로, 주민이 제안하는 마을도서관 등 소규모 시설사업(H/W) 운영과 주민소식지 발간 등의 공동체 형성 역량강화(S/W)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주민역량이 강화돼 향후 뉴딜사업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미세먼지저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고시

2019. 04. 29. | 광주광역시 |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시가 지난해 제시했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변경해 고시했다. 이번 변경은 신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

고자,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항목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변경 주요 내용으로 첫째, 적용 대상 기준 중 대상 등급 주거부문을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등급을 상향했다. 둘째, 환경관리 부문에서 미세먼지를 95% 이상 거를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 설치, 건물 옥상 표면에 특수 페인트를 칠해 건물에 유입되는 열을 낮추는 쿨루프, 옥상 녹화조성 적용 등을 추가했다. 셋째, 에너지 성능 부문에서 전체 조명설비 전력에 대한 LED 설치 의무비율을 30%에서 70%로 상향 적용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건축허가 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이행 확인서를 추가했다.

### 광주광역시, 도시문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19. 05. 02. | 광주광역시 | 스마트시티과

광주광역시시가 「2019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솔루션을 실증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광역시시가 제안한 사업모델은 시민이 제 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해 ‘블록체인 기반 개방형 데이터 리워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를 기반으로 상권 활성화 분석, 유동인구 분석, 교통흐름 분석 등을 진행해, 구도심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수익창출, 재투자자의 순환구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서비스의 단순 수요자였던 시민이 직접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 광주광역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재선정’

2019. 05. 07. | 광주광역시 | 문화도시정책관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가 2014년 지정 후 이루어진 첫 평가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으며 유네스코로부터 재선정되었다. 2018년 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려온 광주는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우수 평가’란

결과를 통보받음으로써 창의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진행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네스코 측은 미디어아트에 인권, 휴머니즘과 같은 공동체의 가치를 부여한 점,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미디어아트 플랫폼 6개 공간)과 같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인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유네스코는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접근성을 확대할 것과 미디어아트 영역을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미디어아트 표현의 창조성을 확대할 것을 지적했다.

###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실태 감찰

2019. 05. 23. | 광주광역시 | 재난예방과

광주광역시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태를 감찰한 결과, 총 10건의 ‘내진보강사업 추진 미비 사항’을 적발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 및 주의 등 처분 통보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내진설계 대상 확대 및 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내진보강사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진보강사업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정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안전감찰을 추진했다. 광주광역시는 내진보강 업무처리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담당 공무원이 업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내진보강 업무처리 규정 마련’, ‘관련 시스템 등록 관리 의무화’, ‘내진보강사업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 대전광역시, 옛 충남 관사촌 ‘데미오래’로 개관

2018. 12. 18. | 대전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전광역시 ‘데미오래’가 2019년 1월부터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본격 운영되고 있다. 시민공모로 선정된 ‘데미오래’는 지역의 옛 명칭인 ‘데미’로 오라는 뜻과 ‘데미와 관사촌의 오랜 역사’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은 옛 충청남도 도지사 관공 및 관사 등 10개 건물이 밀집된 전국 유일의 관사촌이다. 이곳은 현재 근대건축 전시관, 작은 만화도서관, 카메라박물관, 시민 작가工房, 레지던스, 청년 공유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 ▼ 대전 ‘데미오래’



### 대전광역시,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2019. 01. 04. | 대전광역시 | 투자유치과

대전광역시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광역시는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유성구 장대동 한발대로와 죽동지구 사이에 10만 5000㎡ 규모로 조성된다. 지역전략산업인 첨단 센서 산업 관련 업종을 주요 입주업종으로 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인력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활발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기업의 혁신역량이 발휘되며, 우수한 근무 정주환경을 두루 갖춘, 도심 속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혁신성장센터’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센터는 초기 창업기업들에 업무공간(사무실, 공장 등), 회의실, 다목적실 등 기업 활동공간을 제공해 창업 성장 소통교류 혁신을 이끄는 기업지원 앵커시설이다. 저렴한 기업지원 공간을 제공해 초기 창업기업 등 소규모 기업들이 자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 원도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중앙로 프로젝트’ 추진

2019. 02. 14. | 대전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전광역시는 원도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인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 사업의 설계가 상반기에 모두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중앙로 프로젝트 마중물사업은 ‘도심형 산업 지원 플랫폼’, ‘신·구 지하상가 연결’,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이다. 동구 중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설치되는 ‘도심형 산업 지원 플랫폼’은 인쇄 출판, 뷰티케어, 만화 웹툰 작가 등이 입주하는 도심형 산업 지원시설로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대전천 목적교로 단절된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연결’은 2020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지상 지하 상권 연결을 위한 엘리베이터 1대와 에스컬레이터 6대 설치가 주요 계획이며,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

### 대전광역시, ‘골목재생사업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2019. 03. 06. | 대전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전광역시는 지속 가능한 골목 만들기를 위해, ‘골목재생사업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주민만족도 평가나 피드백 등의 후속 작업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광역시의 모니터링 시책은 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광역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골목재생사업 모니터링’은 그동안 추진된 골목재생 및 마을가꾸기 사업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 관점에서 사업 전 단계를 평가한 뒤, 평가에 따른 개선 및 보완방안을 도출해 후속 재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보여주기에 치중해 단기적 성과에 집중했던 사업이나, 사업 추진 후 관리 소홀 등 후속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사업들에 대한 후속 보완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 대전광역시, 원도심 내 빈 점포 활용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모색

2019. 03. 07. | 대전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전광역시는 원도심 빈 점포의 1차 실태 파악이 마무리됨에 따라, 2차 세부 현황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원도심 빈 점포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가 지난달 말 마무리한 1차 실태파악 결과에 따르면, 원도심 중앙로 프로젝트 사업구역 내에 모두 480개의 빈

점포가 발생했다. 대전광역시는 480개 빈 점포의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물주 정보 등 2차 세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건물주와 활용 가능 여부와 활용범위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활용 방안을 수립한다. 대전광역시는 이 과정에서 임대료 안정협약을 원하는 빈 점포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대전광역시에서 역점 추진하는 소셜벤처 창업자 및 지역 문화예술인 등 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할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 도시환경 디자인으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

2019. 05. 01.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으로 동구 대전역 인근, 중구 충남대학교병원 남측 주거지, 유성구 갑천 근린공원 및 온천 소공원 등 4곳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과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동구 ‘기차길옆 꽃빛 길 조성사업’은 셉테드 입간판 설치, 파사드 정비, 대형화분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구 ‘과례로(路) 범죄예방 솔루션’은 CCTV, LED 보안등 설치, 옹벽 도색 및 반사경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유성구 ‘별빛이 내리는 밤’은 경관조명, 고보조명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유성온천 축제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개방성 강화, 야간범죄 발생 불안 해소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동구 대전역 인근 ‘기차길옆 꽃빛 길 조성사업’은 동네 주민 50여 명이 직접 화분을 제작해 주민이 원하는 수종으로 집 앞에 설치하는 주민참여 사업으로 진행돼,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참 살기 좋은 동네’를 가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 길라잡이 마련

2019. 05. 14. | 대전광역시 | 도시재생과

대전광역시는 「제1차 대전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사회여건의 변화, 법적 의무사항 등에 근거하여, 대전광역시의 건축자산에 대한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진은 대전광역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비전으로 ‘대전다움’을 담아내는 ‘대전 건축자산’을 제시했다. 또한, 이에 따라 건축자산 보존 역량 강화,

건축자산 향유 기반 구축 및 지역 정체성 강화라는 2대 목표와 6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DB구축, 건축자산 가치 연구,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한옥 등 건축자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지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한옥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한편, 연구진은 한옥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재동, 대흥동 등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대전광역시,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로 범죄예방 환경 조성

2019. 06. 10.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안전브랜드 활성화 사업」으로 우범지역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70곳에 2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지수 범죄분야에서 2016년 3등급에서 2017과 2018년 4등급으로 하락하는 등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사전 범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브랜드 사업을 연차별 장기계획 수립으로 추진한다. 장기사업은 대전광역시에서 매년 2곳에 12억 원을 투자해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5곳에 15억 원(구별 1곳, 3억 원)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안전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올해 셉테드(CPTED) 사업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II, III’를 서구 도마2동과 대덕구 오정동에 조성키로 했다.

### 울산광역시, ‘울산도서관’ 2018 우수 디자인 선정

2018. 12. 06. | 울산광역시 | 도시창조과

울산광역시는 ‘2018우수 디자인(Good Design) 상품’에 ‘울산도서관’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울산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GD 마크를 부여받았다. 울산도서관은 남구 여천동에 부지면적 3만 2,594㎡, 건축 연면적 1만 5,176㎡로 건립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다. 고령자와 장애인

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의 행위와 도서 습관을 반영하기 위해 평면으로 설계하였으며,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했다.

###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추진

2019. 03. 08. | 울산광역시 | 환경생태과

울산광역시는 총 96억원(국·시비 각 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했다. 4월부터 ‘물순환 선도도시’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0년 4월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설계에는 시범사업의 현장여건, 도시의 미관과 조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저영향 개발(LID) 시설이 도입된다. 기본구상을 보면, 동화 골목, 식생도랑 등 삼호동만의 특화된 시설을 도입하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놀재로, 와와공원 일원이 중심지역으로 조성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지중화사업, 철새마을 조성 등 타 사업과 연계한 시설계획도 수립된다.

## 경관 및 공공공간

### 서울특별시 도심 유휴공간 활용 생활 SOC 확충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 추진

2018. 12. 27.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가 생활 SOC를 확충하는 「(가칭)리인벤터 서울(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이는 파리 시내의 유휴부지를 혁신공간으로 뒤흔들 프랑스의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Réinventer Paris)’를 서울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다. 서울특별시는 기존 공간을 활용한 입체개발을 통해 가용 토지 부족과 평면적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로 철도와 같은 시설로 인해 단절된 도시를 회복시켜 도시공간을 재창조해나간다는 목표다. 우선, 역세권에 있는 중·소규모 부지 2개소(경의선 숲길 끝의 교통섬(서대문구 연희동)과 빗물펌프장(은평구 증산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는 프로젝

트의 핵심 키워드를 ‘새로운 생활방식’, ‘청년’, ‘친환경 건축물’ 등으로 설정하고 공간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정은 2019년 초까지(2018.12.27~2019.1.9)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각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를 수렴하여 2020년 초부터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간다.

▼ ‘경의선 숲길 끝 : 교통광장’ 조감도



## 서울특별시, ‘저이용 유희부지 도시공간 혁신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 개최

2018. 12. 28.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에서는 유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저이용 도시공간 활용에 대한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채택된 우수한 아이디어는 향후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기본구상 및 제도개선 등에 반영 검토할 계획이며, 「정책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추진해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의 내용과 취지 등을 상징하는 정책 브랜드명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경관지구로 변경 등 ‘미관지구’ 폐지 추진

2019. 01. 17.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가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2017.4.18. 개정, 2018.4.19. 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일환으로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복잡하고 세분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특별시,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2019. 01. 22.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는 망우리공원에 ‘웰컴센터(가칭)’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설계공모 결과, 작품 ‘낙이망우(樂而忘憂)’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웰컴센터는 묘지관리 기능과 묘역에 대한 정보제공 및 편의 휴게시설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이번 당선작은 망우리공원의 기념적 성격을 살리면서 주어진 계획을 탁월하게 해석한 설계안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작품이 대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으로 주변과 조화를 이뤘으며, 섬세한 계획으로 인해 공간 활용도가 높고 향후 확장 가능성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당선작 ‘낙이망우(樂而忘憂)’는 매스가 큰 건축물을 입구에 배치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시각적 경관적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저층부에 회랑공간을 만들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 설계공모 당선작 ‘낙이망우(樂而忘憂)’



## 서울특별시, 생활권 내 ‘서울형 도시 텃밭’ 조성

2019. 03. 12. | 서울특별시 | 도시농업과

서울특별시는 올해 건물 옥상, 사회복지시설, 학교 내 텃밭 등 서울 시내 205곳에 ‘서울형 도시 텃밭’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들의 생활권 안에 방치된 자투리 공간 중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15개소, 총 30,000㎡의 자투리 텃밭으로 조성한다. 사회복지시설 50개소에는 2,626㎡의 텃밭을 조성하여, 스스로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며 정신적 육체적 치유 효과를 끌어내는 원예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안에도 학생들이 직접 작물을 키워보고 관찰하며 학습할 수 있는 텃밭을 50개소, 총 4,406㎡ 규모로 조성한다. 이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 바쁜 현대인이 배란다 텃밭, 아파트 외벽을 활용한 파이프 팜, 녹색커튼 등 일상의 주거공간에서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며 도시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텃밭 2~3개소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입문할 수 있는 ‘상자텃밭’ 운영도 확대하여 총 5,500개 분양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농업공동체’ 지원으로 텃밭, 양봉, 곤충사육 도시농업 활성화

2019. 03. 19. | 서울특별시 | 도시농업과

서울특별시는 텃밭농사, 양봉, 곤충사육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100개의 ‘도시농업공동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시농업공동체는 ① 텃밭농사, ② 양봉, ③ 곤충사육, 총 3개 분야로 나뉜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 거주하며 5가구 이상 참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치구 도시농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연중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도시농업공동체는 2017년부터 시행되어 10개 공동체가 텃밭 가꾸기 등 도시농업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웃 간 소통과 나눔 활동을 확산하는 동시에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부산광역시, 동해남부선 고가 선하부지 유휴공간 ‘부산 그린라인파크’로 조성

2019. 01. 09. | 부산광역시 | 녹색도시과

부산광역시는 동해남부선 고가 선하부지 유휴공간에 산책로, 녹지, 시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부산그린라인파크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부산진구 하마정 사거리 ~ 동래구 원동교 구간에는 테마 휴게 쉼터를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며, 산책로와 위글링 스팟을 조성하여 숲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파고라, 등 의자, 안내판 등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가로등과 CCTV 설치도 완료하였다. 특히, 온천천 폐철교가 안전진단을 거쳐 새롭게 탄생했다. 이로써 시민들이 온천천을 조망하며 산책하고, 야간경관조명과 인근 간이초소를 재활용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등 지역 명소로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부산 그린라인파크’ 사업 완료



동래구 반도보라맨션 앞 산책로

동래구 부산침례교회 앞 산책로

온천천철교 리모델링

옛 간이초소 리모델링 및 산책로 입구

## 인천광역시, 도시숲 분야 평가에서 도시 숲, 둘레길 등 각 분야별 18개 상 수상

2018. 12. 20. | 인천광역시 |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가 산림청이 주관한 ‘정부합동평가’의 ‘도시숲 분야’에서 분야별 12개 기관상과 6개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그린 에코 시티, 인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심 곳곳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도시 숲 쉼터와 녹지 공간을 확충하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인천형 둘레길 조성 등을 추진



하고 있다. 이 중 「인천 둘레길 조성 사업」은 2018년 11월에 산림청 주관한 「2018년 전국산림복지분야 합동워크숍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2018년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상과 「산림 보호 분야」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명상숲 신규조성 사업분야」에서는, 인천광역시가 학교운동장 일부에 숲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돕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최우수로 선정됐다. 또한, 연수구의 송도국제도시시는 「2018 전국녹색도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 도시로 꼽혔다.

### 인천광역시, 빗공해 방지 위해 조도 및 휘도 규제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시행

2019. 01. 22. | 인천광역시 | 환경정책과

인천광역시는 빗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 옹진과 공항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빗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상조명시설의 관리를 시행한다. 2019년부터 설치되는 대상조명시설의 신규조명은 빗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에 빗방사 허용기준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 인천광역시, 다양한 사회공동체 참여 유도하고자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추진

2019. 03. 29. | 인천광역시 | 농축산유통과

인천광역시는 도시민의 다양한 사회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자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2017년부터 미추홀구 주안동과 부평구 산곡동, 청천동 일원 등 3개소에 도시농업 텃밭을 조성하였고, 2019년에는 송도 석산 유희부지에 도시텃밭과 도시농업 체험장, 팜마켓,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한다. 또한, 7월부터 도시텃밭 445구좌를 시민들에게 분양하고 도시농부 교육과 어린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대구광역시, 동대구 벤처밸리 경관개선 디자인사업 실시

2018. 12. 18. | 대구광역시 | 도시디자인과

대구광역시는 2018년 11월 지역의 대표 관문인 동대구로의 경관을 개선하는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동대구 벤처밸리를 청년창업 상징거리로 탈바꿈시켰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구의 주요 창업 기업 지원기관인 대구무역회관,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대구상공회의소, 대구테크노파크 등이 모여 있는 동대구 벤처밸리에 스마트 가로환경을 만들고, 주요 벤처밸리 기관들의 옥상, 보행로 및 동대구로 수목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밤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였다.

### 광주광역시, 예술+가치 체험... ‘융복합 아트플랫폼’ 조성

2019. 03. 20. | 광주광역시 | 건축주택과

온 가족이 함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체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2019 아트피크닉」이 개막한다. 「2019 아트피크닉」은 시즌별로 3~4월 ‘꽃하다(concenter)’, 5~6월 ‘펼치다(open)’, 7~8월 ‘빠지다(immersion)’, 9~10월 ‘즐기다(enjoy)’를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유아 초등부 중심의 예술체험에서 중고등부와 일반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 광주광역시, ‘빛나는 거리, 예술로 궁둥’ 주제로 「예술의 거리 축제」 10월까지 펼쳐진다

2019. 04. 18. | 광주광역시 | 도시정책관실

광주광역시 궁둥 「예술의 거리 축제」가 올해는 ‘빛나는 거리, 예술로 궁둥’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예술의 거리 궁둥’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를 예술로 잇는 거리이자, 시민의 삶에 소금이 되는 거리, 창작과 유통 및 교육과 향유에 힘쓰는 거리, 예술의 불꽃으로 빛고을 광주가 빛나는 거리 등의 의미를 담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인 7~8월에는 참가 선수와 시민들이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밤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열린다. 광주광역시는 ‘빛나는 거리, 예술로 궁둥’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예술을 체험하고, 예술가와 직접

만나는 거리를 입주 상가 등과 함께 조성해 시민들이 찾아오는 거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 2019년 첫 경관아카데미 개최

2019. 06. 06. | 광주광역시 | 도시계획과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관심 유도와 역량 강화를 위해 「2019 제1회 경관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광주 도시 건축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는 본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연내 총 4회에 걸쳐 건축·조경·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초빙, 공공공간에 대한 이해, 공공건축 관련 제도, 주민참여 경관사업 추진, 경관 우수사례 소개 등의 주제별 강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 녹지축 연결 등 도시공원 재생 추진

2018. 12. 03. | 대전광역시 | 공원녹지과

대전광역시는 둔산권 도시공원 재생을 위한 「둔산센터럴파크 기본계획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본계획은 샘머리공원을 기점으로, 가로축은 갈마근린공원부터 샘머리공원까지 연결하고 세로축은 우성아산에서부터 한밭수목원과 대전시청을 거쳐 보라매공원까지 연결하여, 시민들이 도심 내 숲에서 맘껏 숨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생태녹지축 연결(연계성 확보)방안 및 샘머리 보라매공원의 특성화를 통한 공원 재생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생태녹지축 연결은 공원 녹지의 수요와 입체형 보행시설 또는 지하철도 등에 대한 다양한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 옐로카펫 설치 등 공공디자인 적용한 통학로 조성 추진

2019. 01. 24.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관저중 삼거리에서 관저초등학교에 이르는 200m 구간에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구간 내 담장 벽면에는 오브제

등 부조형식의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통학로에는 안내 사인과 ‘옐로카펫’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중 ‘옐로카펫’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다. 이는 「2019년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옐로카펫 설치 등에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켜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담장에 학생 정서에 맞는 글귀를 가미해 감성을 입힌 힐링 도시경관을 창출할 예정이다.

### 대전광역시, 신탄진 굴다리에 셉테드 기법 도입으로 「시민안전보행로」 조성

2019. 01. 31.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네거리의 굴다리에 셉테드 기법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시민안전보행로 조성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내용에 따르면, 신탄진네거리에서 석봉네거리 방향 신탄진 굴다리 양측 구간에 보행로 내부 안심시설인 CCTV, 안심벨, 반사경, 로고젝터 등을 설치하고, 출입구 양측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특히, 이 사업은 「2018년 공공서비스디자인 공모전」의 대상작 ‘안심 빛 나루’를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시민이 제안해 예산을 수립하고 시민이 공모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대전광역시민에 의한 대전광역시민의 사업’이다.

▼ 시민안전보행로 조성사업



### 대전광역시, ‘3대 하천’ 「야간경관활성화사업」 추진

2019. 03. 08.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3대 하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 대전

만의 품격 있는 야간경관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야간경관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간경관활성화사업」은 ① 단기사업(2019~2020)으로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대덕대교~둔산대교), 탄동천, 별빛이 내리는 밤(만년교~갑천대교)이 추진된다. ② 중기사업(2021~2024)으로는 한빛대교를 랜드마크로 조성하고,대전천의 대흥교와 선화교 구간에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③ 장기사업(2025~2028)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갑천누리길(갑천대교~대덕대교)과 유등천(가장교~유등교)의 수변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활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완료

2019. 04. 25.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 원도심의 근대건축물을 테마로 한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이 완료됐다.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연결해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와 역사를 도보로 찾아가며 체험할 수 있도록 5.17km 구간에 조성했다. 대전광역시는 해당 구간에 근대건축물 안내 사인을 비롯해 야간경관조명, 목적고 프로젝트 매핑 등 시설물도 조성했다.

#### ▼ ‘원도심 근대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완료



### 울산광역시,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숲속 정원도시 조성

2019. 01. 25. | 울산광역시 | 녹지공원과

울산광역시는 「2019년 녹지 공원 산림사업 시책 추진회의」를 열고 2019년 녹지 공원 산림 분야 추진정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녹색인프라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원 녹지 확대, 정원

문화 확산으로 정원도시 실현,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구축,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녹색복지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한 실효 공원 최소화를 위해 대왕암공원, 매곡공원 등 주요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과 공원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산림자원 보호와 휴양 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울산수목원 조성사업도 마무리해 공원 녹지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 마을만들기

### 서울특별시, 동 단위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정책 지원 ‘마을건축가’ 시행

2019. 01. 24. | 서울특별시 | 도시공간개선단

서울특별시는 동 단위의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자문 조정을 위한 「서울형 마을건축가 제도」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기존 「공공건축가 제도」를 발전시킨 것으로, 주민들의 일상에 침투하여 지역 특성을 발굴하고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며 동 단위 마을건축가를 활용하여 마을 공간 기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인문 지리적 가치를 발굴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역사 지형 등 장소 특성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마련에 초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마을건축가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공공건축에 집중된 공공건축가제도의 실질적 성과가 더욱 확대되어 정주 환경의 균형적인 개선과 선제적인 공간복지의 실현이 기대된다고 했다.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의 사회공헌을 유도하여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과 자긍심을 부여할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한옥과 한옥마을의 역사문화적 장소적 가치 활용한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사업」 공모

2019. 01. 31. | 서울특별시 | 한옥건축자산과

서울특별시는 한옥마을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2019년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시의 한옥밀집지역과 은평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모임형’과 ‘마을 특화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주민 모임형’은 주민 모임 또는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주민 공동체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등 마을 내 공동체 강화 활동이나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세대 연결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된다. ‘마을 특화형’은 주민 모임이나 단체, 전문가 등이 신청 가능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이나 단체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네트워크 사업 등 한옥마을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진행된다. 서울특별시는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 신청 전에 사전 상담을 지원하고 사업 선정 후에도 마을활동가 연계를 통한 사업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친환경 빛물마을’ 3개소 추가 조성

2019. 02. 15. | 서울특별시 | 물순환정책과

서울특별시는 올해 ‘친환경 빛물마을’ 3개소를 추가 선정하였다. 올해 선정된 빛물마을은 ‘물순환 마을 전문가’ 1인을 선정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공유해 물순환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문가 설계 시공 전 과정의 진행 상황을 관리 자문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꿈주택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녹색공간조성 지원 사업」, 기타 자치구 정비사업 등과 연계 추진한다. 또한, 주민 생활공간에 다양한 식생형 시설 및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빛물관리 홍보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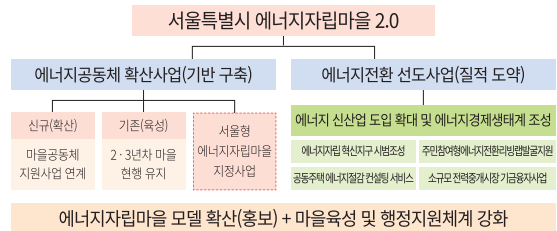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도시형 에너지자립마을’ 본격 추진

2019. 04. 02. | 서울특별시 | 에너지시민협력과

서울특별시는 기존의 에너지 자립마을 공모방식 및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한 「서울특별시 에너지 자립마을 2.0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도되는 ‘에너지공동체 확산사업’은 자치구별 마을센터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에너지절약 및 생산을 실천하는 에너지공동체로 육성된다. 「에너지전환 선도사업」은 에너지신산업 및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특별시는 마을주민, 기업, 전문가와의 민·관 협치를 더욱 강화하며 4개의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2.0 사업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참여형 공간 ‘돈의문 박물관마을’ 새단장

2019. 04. 03. | 서울특별시 | 문화정책과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근현대 100년의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기억의 보관소’를 콘셉트로 새단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① 옛 새문안 동네의 역사와 아날로그 세대의 감성이 살아있는 ‘마을전시관(16개동)’, ② 고즈넉한 한옥에서 근현대 문화예술을 배우보는 ‘체험교육관(9개동)’, ③ 마을 콘셉트에 맞는 입주작가의 전시와 워크숍이 열리는 ‘마을창작소(9개동)’ 등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조성됐다.

#### ▼ 돈의문 박물관마을



### 서울특별시, ‘활력소 거점’으로 활기찬 마을 위해 주민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공간만들기 사업’ 추진

2019. 04. 29. | 서울특별시 |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활력소 중 1호로 조성된 ‘관악구 행복나무’가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주민 자율로 운영된다. 그동안 운영



방식에 대해 주민과의 견해차로 2017년 8월부터 운영위원회 대신 서울특별시직접 운영 관리를 해오고 있다. 마을활력소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가꾸어 나가는 공간이기에 서울특별시가 나서 행복나무 운영에 직접 참여할 주민참여단을 2018년 9월에 다시 모집했다. 행복나무는 주민참여단 총회를 통해 그간의 운영실무단 활동 경과를 주민에게 보고하고 임원 선출 및 정관 내규를 확정된 뒤 2019년 사업을 공식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주민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만들기’ 추진

2019. 05. 10. | 서울특별시 |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는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만들기’ 7개 사업을 2019년 연말까지 서울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각 사업은 서울 소재 자연환경보전활동 비영리단체 주도로 주민, 학생 등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꿀벌, 박새 같은 생물의 서식환경을 조성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또한, 시·구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도시의 생물종 보전과 생물 다양성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생물 다양성 포럼’도 연 4회 정기 개최할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 2019년 국비지원 ‘새뜰마을’ 사업에 총 4곳 선정 목표

2019. 03. 08.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부산광역시는 올해도 「도시 주거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약칭 새뜰마을사업)」에 중·부산진·금정·사상구 ‘4곳 선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쏟을 방침이다. 부산광역시는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새뜰마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상지가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2월에 전국 67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추진실적 잠정평가’의 결과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10개 사업 중 4개소가 ‘상’, 6개소가 ‘중’으로 평가되어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광역시, ‘행복마을 만들기’ 5년 연속 성과평가 1위

2019. 05. 08. | 부산광역시 | 도시재생정책과

부산광역시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광역시는 2014년부터 5년 연속 성과평가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성과평가에서는 낙후지역 개선 기여도, 마을 자립도, 주민 만족도, 공동체 활성화지수 부분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71개의 행복마을이 운영 중이며,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수익사업 발굴과 마을공동작업, 북카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마을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등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 ‘귀어귀촌 우수 사례’ 등 「어촌마을 전진대회」 4개 분야 수상

2018. 12. 11. | 인천광역시 | 수산과

인천광역시는 「제13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우수 어촌체험휴양마을’, ‘바다가꿈 프로젝트 우수사례’, ‘우수 어촌특화 역량강화마을’, ‘귀어귀촌 우수사례’로 선정, 수상했다고 밝혔다. 「제13회 어촌마을 전진대회」는 어촌정책의 분야별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마을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기진작 및 우수마을 육성에 기여하고자 개최되었다.

### 인천광역시, 시민주도 소규모 마을재생 ‘더불어 마을’ 계획 수립

2019. 01. 23. | 인천광역시 | 주거재생과

인천광역시가 올해 「더불어 마을」의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마을」은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생활 SOC사업 등을 접목하여 추진하는 ‘복합형 주거지재생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괄계획가의 지원을 토대로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이 사업 초기

부터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한다. 2018년에는 「더불어 마을」 추진 원년으로서 4개 구역을 ‘더불어 마을’로 선정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마을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등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 주민이 행복한 동네 조성 위해 다양한 공간에 커뮤니티센터 제공 계획

2019. 03. 12. | 인천광역시 | 도시재생건설국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지역인 남촌동에 대해,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이 행복을 채워 나가는 동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공간을 먼저 개선한 후 시민에게 개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동네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먼저 시와 주민이 지역의 현안 인식을 공유하고 재생 공감대를 형성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 마스터플랜을 계획하며, 공간 조성이나 운영 등의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한다.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주거지 재생의 모델을 구축하는 인천광역시의 1호 사업이다. 남동구 남촌동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지리적 성격을 고려한 뒤, 사업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남촌동 경로당을 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마을 마스터플랜에 대한 남촌동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뒤, 주민이 마을계획에 참여하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 ‘스마트 도시농업’과 ‘빈집 활용’ 마을 기업 선정

2019. 03. 21. | 인천광역시 | 사회적경제과

인천광역시는 「2019년 마을기업 선정」의 심사 결과 올해 2개의 신규 마을기업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 기업은 미추홀구의 ‘스마트도시농부 협동조합’과 서구의 청년 협동조합 ‘더블유(W)42’이다. 미추홀구의 ‘스마트도시농부 협동조합’은 빈집을 활용하여 표고송이버섯(송이고버

섯)과 건버섯, 분말제품을 생산한다. 해당 마을기업은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도심 슬럼화를 방지하고 마을의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구의 청년 협동조합 ‘더블유(W)42’는 지역 내 청년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빈집을 주민 공유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원도심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과 주민의 일상에 ‘문화 있는 삶’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인천광역시, 인천형 도시재생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대상지 9개 소개

2019. 03. 26. | 인천광역시 | 주거재생과

인천광역시는 ‘희망지사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의 대상지 9개소를 선정했다. 대상지 선정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2단계로 운영하였다. 1단계로는 희망지사업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와 정량평가를 하였다. 평가위원은 사업신청대상지 모두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을 제안한 주민대표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청취하였으며, 자치구의 사업 지원계획도 평가했다. 2단계는 주민 공모사업의 실행단계로서 주민이 직접 참여 계획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더불어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분야,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역량 강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인적기반을 보유한 지원단체를 주민모임과 연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 마을 내 공공·민간 유희공간 활용한 22번째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

2019. 02. 21. | 광주광역시 | 자치행정과

마을 내 공공 민간 유희공간을 주민맞춤형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의 22번째 공간인 ‘뽕뽕이 사랑채’의 개소식이 열렸다. ‘뽕뽕이 사랑채’는 방림2동 주민들의 염원인 소통 교육 공간 마련을 위해 마을공동체 ‘뽕뽕다리 마을공동체 다락’이 주축이 되어 2018년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에 신청·선정되면서 주민사랑방, 주민

쉼터, 마을카페 등을 조성하게 됐다. 한편,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은 광주광역시가 2016년부터 진행해온 것으로 마을 내 공공 및 민간의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광주광역시, ‘생태문화마을만들기’ 사업 참여단체 공개 모집

2019. 03. 05. | 광주광역시 | 환경정책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9년 생태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의 공모 주제는 ‘맑은 물이 흐르는 물순환 도시’, ‘앞산 뒷산이 함께하는 도시숲’, ‘바람길이 통하는 시원한 도시’, ‘유해 화학물질에서 안전한 도시’, ‘생활 속의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녹색경제’, ‘에너지전환도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17개다. 사업 진행은 제안단체가 참여자나 동의자로부터 ‘다가치그린 포인트’를 기부받아 사업비만큼 펀딩을 완료하면, 광주광역시가 마을전문가 등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에 보조금을 확정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광주광역시,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본격 추진

2019. 03. 21. | 광주광역시 | 환경정책과

광주광역시는 「2019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광주형 마을 자치공동체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4개 부서가 통합공모로 추진되었다. 지원사업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전략마을’, ‘마을분쟁해결센터 소통방’, ‘마을 교육공동체’, ‘공유촉진사업’, ‘소통하는 공유부엌’,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 ‘인권마을’, ‘여성가족 친화마을’, ‘광주형 도시정원 조성’ 등 9개다.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선정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시행하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5개 자치구 및 구 공동체지원센터와 함께 추진사업 지원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 대전광역시, 충청유교문화권 지역 관광개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추진

2018. 12. 09. | 대전광역시 | 문화재증무과

대전광역시는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2019년도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의 착수를 위한 설계비가 확보됨에 따라, 효문화진흥원, 족보박물관, 제1뿌리공원과 연계해 ‘효문화의 메카 대전’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질 전망이다. 이는 충청유교 문화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 관광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충청권 4개 시·도에서 47개 사업을 실행한다. 이 가운데 대전광역시는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이사동 민속마을 조성사업», 「회덕 유생마을 조성사업」에 62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대전광역시, ‘이사동 민속마을’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2019. 01. 04. | 대전광역시 | 문화유산과

대전광역시는 「이사동 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고시된다고 밝혔다. 이사동에서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274필지(17만5,085.1㎡)에 달한다. 한편, 「이사동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도시화에 따른 난개발과 남부순환도로 건설 등으로 훼손된 전통마을의 경관을 수복하고, 동시에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최대한 개선하여 문화유산과 함께 공존하는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이사동 민속마을



## 대전광역시, 테마형 스마트시티 'Re-New 과학마을' 조성

2019. 02. 11. | 대전광역시 | 과학산업과

대전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의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Re-New 과학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1~3단계로 진행되는데, 대전광역시는 2018년에 1단계 「5G Giga Korea 사업」과 3단계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다. 여기에 추가로 2단계 「Re-New 과학마을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됨에 따라, 대덕특구의 관문인 유성구 도룡동 일대를 테마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대전광역시는 2020년 테마형 스마트시티 사업이 완료되면, 도룡동 일대가 대덕특구의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도맡고 전국에 확산시키며 관광명소로 주목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대전광역시, 시민공유공간 조성 지원 '본격화'

2019. 03. 04. | 대전광역시 | 공동체정책과

대전광역시는 「시민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을주민이 직접 모두와 함께 나눌 공간을 찾고, 공간의 활용방안도 직접 고민하고 해결하며 공간 플랫폼을 조성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이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시설조성비와 사업운영비 등으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되지만, 공동체 주도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보조금의 5%는 자부담해야 한다.

## 대전광역시, 주민과 청년이 함께 마을을 변화시킨다

2019. 04. 05. | 대전광역시 | 공동체정책과

대전광역시는 「마을 해프닝 프로젝트」에 참여할 청년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 해프닝 프로젝트」는 청년의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주민이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프로젝트 참여 팀은 마을 축제 혹은 마을 플리마켓 개최, 소셜다이닝, 마을 웹진 제작 등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해당 마을을 잘 아는 마을활동가 혹은 주민으로 이루어진 「마

울멘토단」을 매개로 청년과 지역주민을 연결해 다양한 주민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대전광역시, 주민 마을회의로 마을문제 발굴한다

2019. 05. 80. | 대전광역시 | 공동체정책과

대전광역시가 「2019년 마을계획수립사업」에 선정된 16개 동에서 마을회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16개 동은 마을활동가, 주민자치위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마을계획기획단을 꾸리고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해 마을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회의를 성공리 끝낸 8개 동에서는 주민참여로 마을의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와 투표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취합했다. 대전광역시는 마을회의를 통해 주민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이 지역 현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주민이 자치적으로 마을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마을계획수립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공유공간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과 연계하는 다양한 추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공공시설물 및 매체

###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서울 공공건물 자료 「경성부 건축도면 자료집」 발간

2018. 12. 13. | 서울특별시 | 시사편찬과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근현대사자료집 제3권: 경성부 건축도면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서울의 공공건물 건축도면과 각종 사진 지도 신문 등을 정리해 수록한 것이다. 또한, 건물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건축사적 내력을 해제로 정리해 각종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구성은 각 건물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경성부, 조선총독부, 경찰, 재판 및 형무소, 병원, 학교, 공장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건물의 변천사, 건물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 건축도면과 낡은 흑백사진 및 선명한 디지털 사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남아있는 흔적을 오롯이 담아내었다.



## 서울특별시,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 발간

2019. 04. 17. | 서울특별시 | 도시재생실

서울특별시가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158개의 협력사업을 발굴 정리한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서울형 도시재생 협력사업 활용 매뉴얼’은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역에서 추진(예정)되는 58개 중점 협력사업 및 2019년 서울특별시 전체 사업(약 4,000개 이상) 중 도시재생지역의 ‘마중물 사업’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사업 100개를 선정해 정리한 것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지역별, 유형별, 부서별로 분류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도시재생사업 추진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광역시, 노후간판 교체 지원 및 공공건축가 디자인 컨설팅 제공

2019. 03. 07. | 부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부산광역시가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진행한 「노후간판 교체사업」이 올해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역과 점포 특성을 살린 간판 설치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이상 간판 집중교체지역을 선정 지원하여 간판의 광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공공건축가와 연계하여 집중교체지역 및 개별 신청 건에 디자인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후간판 교체 대상은 업종·업체와 상호 변경이 없는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이다. 부산광역시는 건축물의 정면 및 벽체 정비 등 추가비용 발생 부분을 자비로 부담할 경우, 우선 교체 대상 업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간판 교체 시 해당 업소에 사용 중인 모든 불법 간판을 철거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면 교체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 실태 조사 및 건립과정에 시민 의견 반영 등 관리 강화

2019. 01. 13. | 인천광역시 | 도시경관과

인천광역시는 군·구와 공동으로 관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조형물의 건립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안전성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조형물의 철거 실적과 계획, 추가 무단 설치물 현황, 공공조형물 관리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공공조형물 전문가를 공공디자인 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유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광주광역시, 도시경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 위해 장기 방치 노후 간판 철거 지원

2019. 02. 20. | 광주광역시 |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는 오랫동안 방치된 간판과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간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5천만 원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풍수해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간판을 우선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자치구에서 업소 폐업 등으로 방치된 노후 간판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을 전수조사하여 선정한 철거 대상에 대해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은 후 철거가 이루어진다.

## 대전광역시, 미관 저해하는 노후 및 파손 공공시설물 점검 및 정비

2019. 02. 11. | 대전광역시 | 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는 ‘2019년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점검과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물 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5개 부서를 관리부서가 합동 점검 및 정비를 추진했다. 정비된 공공시설물은 볼라드, 교통신호표지판, 중앙분리대 차선규제봉,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화단 경계석 등이다.

## 대전소방본부, 피난안내 픽토그램 설치 시행

2019. 03. 18. | 대전광역시 |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대전소방본부는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피난 안내 픽토그램’을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는 화재 발생 시 이용자의 피난을 돕기 위해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소방본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픽토그램’을 피난계단 인근과 피난계단 내 피난층 벽에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재 발생 시 이용자는 픽토그램을 통해 피난계단을 멀리서도 쉽게 식별하여 신속히 대피하고, 피난계단 안에서도 피난층을 인지해 재빨리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피난안내 픽토그램 예시



## 울산광역시,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사례집」 발간

2018. 12. 18. | 울산광역시 | 도시창조과

울산광역시는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공동주택과 공장 등에 진행된 색채디자인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성과, 사업추진 매뉴얼, 지원현황, 색채 지침 등이다. 울산광역시는 2005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동주택 외벽색채 디자인 지원을 시작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자긍심 향상을 위하여 자체 전문디자인 인력을 활용하여 색채 및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 성과를 보면, 공동주택은 총 93단지 1만 3,590세대, 공장은 총 9개 기업체 186개 시설물을 지원하여 1개소당 640만 원의 디자인 비용을 절감했다. 이는 사업추진 14년간 총 8억 2,000여 만 원에 달한다.

##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 건축 및 도시

#### 천안시 동남구, 건축행정 건실화 및 제도 개선 위해 지역 건축사와 소통 간담회 개최

2018. 12. 06. | 천안시 | 동남구건축과

천안시 동남구는 건축행정 건실화 및 건축문화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천안지역 건축사협회 회원들과의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사 업무 대행 개선방안, 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경비보안 처리 적극 운영, 인허가 및 착공신고 시 보완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관내 시민들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건축 관련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건축행정 절차상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 천안시, 문화도시 예비 주자로 선정 -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추진

2018. 12. 27. | 천안시 | 문화관광과

천안시는 법적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천안'을 주제로, 독립기념관과 3·1운동으로 대표되는 천안의 이미지에 걸맞은 문화도시 비전과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사업계획은 '일상의 문화적 가치로부터 발신되는 천안형 문화산업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하여, 'L·I·N·K4대 전략'을 통해 시민의 문화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공동체 활성화, 문화 인재 양성, 문화 포용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천안시는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문화도시 예비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2019년 말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천안시, 안전한 도시 위상 확립-지역안전도 3등급 달성, 재난안전 관련 분야 15개 표창 등 안전 분야 우수 입증

2019. 01. 03. | 천안시 | 안전총괄과

천안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위험시설 정비, 풍수해보험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한, 재난 대응 역량 및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비 훈련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으며, 재난안전 관련 분야 15개 표창을 받아 안전도시의 명성을 입증했다. 올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를 지속해서 정비하고, 불당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 천안시, 건축분야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직무교육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노력

2019. 01. 15. | 천안시 | 건축디자인과

천안시는 시설직 건축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축 관련 법령 연찬과 경관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건축공사 감독요령, 내화충전구조·단열재·복합자재의 이해 등 전문적인 내용과 소양 분야로 구성됐다. 이후 부여 백제문화단지와 부소산성 현장을 방문해 백제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양식, 역사, 문화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천안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 확장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2019. 03. 05. | 천안시 | 교육청소년과

천안시 청소년수련관과 천안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청소년 활동 지원 및 도시재생사업 연계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도심 지역의 문화적 자원과 공간 자원, 인적자원을 활용해 참여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이해를 넓히는 등,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의 확장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천안시, 학교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초·중학생 대상 원예활동 지원

2019. 04. 17. | 천안시 | 문화관광과

천안시가 「2019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삼거리 스튜디오' 거점 기능을 공고히 하는 등 진행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삼거리 문화 프로그램은 남산지구의 역사적 상징인 노인세대와 중앙시장을 방문하는 젊은 세대 연결의 장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특히, 중앙시장을 연계한 '하루 한 끼 일일 요리' 프로그램은 참여자와 지역 주민에게 높은 만족도를 끌어내, 올해는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역전시장과도 연계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민제안 공모사업」, 「남산생동」, 「문화 창업지원 사업」 등 문화 역량을 갖춘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 3.1 운동 100주년 기념 대항로 일대 「가로환경정비사업」 완료

2019. 04. 18.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는 역사 중심가로 대항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대항로 일대에 문화적 요소를 접목해 주제를 담은 거리로 재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가를 콘셉트로 한 새로운 거리를 탄생시켰다. 천안시는 독립기념관

의 협조를 받아 대항로에 위치한 14개의 분전함을 천안 출신 유관순, 이동녕, 조병옥 등 독립운동가 3인과 윤봉길, 한용운 등 충남 출신 독립운동가 11인에 대한 소개 글과 사진으로 디자인했다.

### ▼ 천안시 독립운동가 거리



## 천안시, 도시재생 뉴딜로 혁신일자리 기반 창출

2019. 05. 21.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는 천안 역세권 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개발사업과 주요 거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확정지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시유지와 철도 부지를 활용해 「도시개발사업」과 「스마트 도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첨단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을 조성하고, 천안역 개량과 연계해 코레일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센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스마트 도시 플랫폼 사업」은 청년주택과, 메디컬·바이오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구·지원 기능을 가진 센터를 복합 건축해 주거와 일자리 기능이 한 건물에서 이뤄지도록 한다.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첨단지식산업센터는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첨단 지식산업 업종을 임대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을 실현해 지역혁신지구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캠퍼스타운은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운영할 복합 학습 문화공간으로 천안역 주변을 청년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천안시,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 주민공모사업」 활발

2019. 06. 04.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가 진행하고 있는 「2019년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



주민공모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진행되는 주민공모사업은 주민 체감도를 향상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 도시재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남산별관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① 전통차 체험 및 예절 인성 생활화 교육, ② 남산마을 주민 공동부엌 운영, ③ 미술치료와 디자인을 결합한 어르신 아트웍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고, 천안고가교 하부에서는 매주 금요일 ‘어르신 길거리 노래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공주대 학생들이 참여해 천안천 어린이공원을 따라 꽃길을 조성하는 등의 성과도 올렸다.

### 공주시 고도지구 가로변 건축물 외관이 바뀐다 -보조금 상향 조정 및 개선방안 제시 등 적극 추진

2018. 12. 13. | 공주시 | 창조도시과 세계유산팀

공주시가 고도(古都)지구 내 가로변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공주시는 한옥 신축만으로 경관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조례를 개정해 고도지구 내 가로변 건축물의 외관을 정비할 경우 총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3천만 원에서 상향 조정한 금액이다. 또한, 건축주와의 면담을 통해 리모델링 안을 무료로 제시해 주는 별도 용역을 발주하는 등 고도 경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 신청이 20건 들어왔고, 이 중 6건은 심의를 통과해 공사에 들어갔거나 시작할 예정이다.

▼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예시)



### 공주 세계유산 공산성에 방문자센터 들어선다 -공산성 역사관, 관광 안내소, 휴게 공간 등 조성

2019. 03. 13. | 공주시 | 문화재과 고도육성팀

공주시가 「공산성 방문자센터 조성사업」을 착공했다. ‘공산성 방문자센터’는 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돼 현 공산성 주차장 부지에 건축면적 319.5㎡, 지상 1층 한옥 목구조로 건립된다. 방문자센터 내부는 공산성 역사관, 관광안내소, 관람객 휴게 공간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공주시는 기존 시설에 대한 철거 및 발굴조사를 시행한 후, 2020년 2월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산성의 정보를 ICT 기술을 활용해 생생하게 제공하는 등 세계유산도시 공주 관광 및 탐방에 있어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산성 방문자센터’ 조감도



### 공주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스마트 도시 특화단지로 조성

2019. 03. 20. | 공주시

공주시가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 지원 사업」 대상지로 부여군과 함께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주시와 부여군에는 올해 종합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국비 2억 2,500만 원과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되고, 그 결과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이후 실증단계를 거쳐 우수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사업대상지는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일원, 부여 관북리 유적과 정림사지 일원 등 백제역사유적지구이며, 주민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발굴한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① 공주-부여 브리지 모바일 서비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사전 예약해 공주역과 공산성, 부여 정림사지를 연결하는 수

요 응답형 버스(DRT버스)와 공공자전거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② 스마트 열린 박물관 : 위치기반 XR(확장 현실)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존 유적지 주변에만 집중됐던 관광 동선을 도심까지 확장, ③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해 센서를 이용해 주차장 정보와 관광정보, 시민 생활정보 제공 등 실시간 도시정보 수집·제공 서비스인 '지능형 리빙맵'을 제공할 계획이다.

### 소실됐던 공주 「벽허정」 재현사업」 마무리 -금강 8정 중 하나로 소실된 벽허정 재현

2019. 04. 05. | 공주시

공주시는 「벽허정 재현사업」에 대한 준공식을 개최했다. '벽허정'은 조선 후기 문신인 이익보(1708~1767)가 충청도 관찰사 시절 만들어졌다. '금강변 가장 아름다운 누정'이라는 문헌 기록이 남아 있지만 소실됐다가 이번에 재현되었는데, 총 사업비 7억 2,300만 원이 투입됐으며, 공주시 상왕동 824-1번지의 옛 상수도 시설 부지를 재활용해 벽허정 재현과 주변 정비 사업이 함께 이뤄졌다.

### 공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모사업」 선정 4년간 총 498억 원 투입, 역사문화 골목 공동체 조성

2019. 04. 09. | 공주시

공주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제민천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골목 공동체 뉴딜사업」은 중학동 인근 역사 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공공기능 회복, 역사·문화·관광 연계를 통한 중심상권의 활력 증진, 지역 일자리 창출,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①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② 지역 특화 골목재생사업, ③ 지역역량 강화사업, ④ 문화재청 등 부처 협업사업 등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중학동의 경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원도심 지역이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역과 중심시가지의 연결하는 전략적 공간이며, 「우리 동네 매력화 사업」 등을 통해 핵심 장소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 공주시, 「도시재생산업박람회 대상」 「국토부장관상」 수상

2019. 04. 18. | 공주시

공주시가 「2019 도시재생산업박람회 대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자체 총 24개 팀이 신청한 가운데, 공주시는 '삶에 공간이 추억이 되면 보물이 된다'라는 주제로 '공주 하숙 마을'과 '테마 골목길', '기독교 박물관'을 주요 모티브로 공주의 근현대사와 생활사에 대한 정서를 담은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주시 중학동 일원의 '공주 하숙 마을'과 '테마 골목길'은 2016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후 원도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전국적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 보령시, 도시재생사업의 인식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2018. 12. 06. | 보령시

보령시는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의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로 참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시는 2018년 3월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을 시행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목재를 활용한 우드버닝 작품 만들기, 전래놀이 탐구, 어르신 자서전 쓰기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의 성과물을 공유했다.

### 보령시,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

2018. 12. 10. | 보령시

보령시는 '대천1동 신평지구'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천1동 2~5통 일원의 「보령 녹색 예술거리 조성사업」은 기존 보령북로 공예촌 사람들로 구성된 공방 모임을 중심으로 플리마켓, 자체 체험행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활동 공간이 협소하고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해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했다. 주요 사업

으로는 공방 납품과 식물재배로 주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방 체험 및 마을 공동 텃밭 조성과 공방 체험장 및 플리마켓 운영, 홍보책자 제작 등의 사업을 통해 마을 경쟁력 향상의 효과를 얻는다. 이밖에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담장 정비, 가로등 설치, 쌈지공원 조성 등의 사업이 있으며, 다양한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

▼ 보령시 녹색 예술거리 조성사업



## 보령시, 2023년까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2019. 01. 31. | 보령시

보령시가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시상식 및 협약식」에서 여성친화도시 협약에 서명했다. 이에 2023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보령시는 2018년까지 추진한 여성친화도시 1단계 기반 구축을 토대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지역만의 색을 입힌 차별화된 시책으로 시정 전반에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사업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의 정책 참여 보장,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 실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등 3개 영역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여성·어린이 복지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각종 절차 이행', '성 평등 시범마을 활성화', '각종 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대폭 향상',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이다. 또한 가족친화기업을 기존의 2배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령시, '미친 서각마을' 남포면의 숙원 해결됐다

2019. 05. 13. | 보령시

보령시는 '남포면 주민자치센터'를 준공했다. 이번에 조성된 주민자치센터는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9개월 만에 준공됐다. 건물은 연면적 444㎡의 단층으로, 회의실, 다목적실, 탁구장 요리시설 등을 갖췄다. 그동안 남포면 주민자치센터는 면 청사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많았다. 이날 준공으로 오토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아산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2018 패시브 건축 올해 최고의 기밀성능상' 수상

2018. 12. 03. | 아산시

아산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주최한 올해 최고의 '기밀성능상'을 수상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최종 기밀성능 테스트에서 0.27회/h.50pa로 비 주거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 체육센터는 특성상 기밀 시공범위가 넓고, 건식공법으로 이음부위가 많아 기밀성능 구현이 어렵다. 그럼에도 발주청과 시공자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높은 품질을 구현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아산시, 「2019년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추진

2019. 01. 17. | 아산시

아산시는 2016년부터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에 주거환경과 경관 개선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빈집정비 예산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3년간 지역에 공공용도(주차장, 쌈지공원 등)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시지역 환경개선사업 철거비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재해위험, 도시미관, 주민편의 시설 입지 적합성,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 아산시, 「2019년 노후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19. 01. 18. | 아산시

아산시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대상지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이다. 지원금은 최대 1천5백만 원 범위에서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 예정이며, 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기 부담금 20% 이상의 확보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 사업은 ① 대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사업, ②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③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④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지 유지·보수 사업, ⑤ 자전거 보관대, 재활용품 분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이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 아산시, 「2019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019. 02. 12. | 아산시

아산시가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주택개량사업 70동, 빈집정비사업 82동, 슬레이트 철거 117동(지붕개량 19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자가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에 지원되며, 최대 2억 원(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각 동당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최대로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사업 대상자 중 취약계층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국제 안전도시 아산시, ‘2022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준비

2019. 03. 06. | 아산시

아산시가 ‘2022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먼저 「2019년도 아산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아산시가 추진 중인 6개 분야 안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각 분과별 기관 단체의 안전사업 공유, 안전문화운동 추진방안 협의, 안전 관련 프로그램 및 추진계획 협의 등 2019년도 추진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아산시는 ‘2022년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목표로 올해 「국제안전도시 워크숍 및 세미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안전도시위원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제안전도시 아산 만들기’ 사업수행평가 및 성과평가, 연구구역,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 아산시, 패시브 건축물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착공

2019. 03. 20. | 아산시

아산시가 패시브 건축물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착공했다. 육아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지원관리’와 ‘가정양육 보호자 맞춤형 지원’ 등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를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육아지원센터는 202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며, 건립에 앞서 사업계획 단계부터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시설 종사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교류·수렴해왔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우수등급 예비인증, 패시브 건축물 설계인증,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획득 등 영·유아 및 보호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친환경 건축물의 기능과 함께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감도



## 아산시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장미마을 유흥업소 철거 완료

2019. 03. 28 | 아산시

아산시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장미마을 유흥업소 철거 완료로 탄력을 받게 됐다.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은 2022년까지 대상 지역에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신혼 행복타운, 아산형 순환 임대주택, 성평등 거리, 어울림 마을, 여성 크리에이티브 랩(창업지원시설), 커뮤니티 상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 중심지이자 여성 안심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며, 낙후된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산시,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원...저출산 해결 첫걸음

2019. 04. 19. |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중앙공원에서 '공동 직장 어린이집' 준공식 및 개원식이 열렸다.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아동 99명, 교직원 1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보육실 6개와 도서실, 상담실, 교재실 등 용도별 12개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아산테크노밸리 '공동 직장 어린이집' 준공은 산업단지 일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산시,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아산친환경 에너지타운 최종 준공

2019. 04. 22. | 아산시

아산시는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 중 하나인 '유리온실' 준공식을 개최로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2015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작된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소각장 폐열을 활용한 「마을 세탁 기업」,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발전 여열을 활용한 「유리온실 설치 사업」, 에너지 단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 및 기존 공원 개수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장리의 '유리온실'은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시공되었으며, 별도의 에너지 사용 없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된 폐열만으로 사계절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다. 이번 유리온실 준공으로 기업과의 협업 및 상생, 3인 이상의 일자리 창출, 약 3억 원의 연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아산시, 「2019 대한민국 환경대상」 '대상' 수상 영예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부문 우수

2019. 04. 25. | 아산시

아산시가 「2019 대한민국 환경대상」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아산시는 수소버스 시범도시 선정, 150만 그루 나무 심기 추진, 친환경 에너지 단지 조성, 공공건물 패시브 하우스 건축, 미세먼지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대, 대기오염측정망 및 대기질 정보 알람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전담조직 신설 등의 성과에 근거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부문에서 타 지자체와 대비하여 우수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에 아산시 선정 -아산시 배방읍 1,369억원 투입, 월천지구 600호 규모

2019. 05. 08. | 아산시

충청남도가 진행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첫 사업에 아산시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배방 월천지구 600호를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 부지를 제공(매각)하여, 제반 행정 지원과 함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시설 등의 건립비 지원과 시설 운영을 맡게 된다. 충청남도는 사업 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총괄계획 수립과 전반적인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는 주택 건설, 입주자 모집, 선정 및 관리, 운영을 맡는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한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친환경 자재와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을 적용했으며, 방·거실·육아 공간 등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가변형 구조로 설계할 예정이다.

### 서산시,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온 힘'

2018. 12. 21. | 서산시 | 여성가족과

서산시가 '이웃 간 육아정보 공유'와 '자녀 돌봄 품앗이'를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2개소를 설치했다. 서산문화복지센터에 자리 잡은 '1호점'은 장난감이 갖춰져 있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모여 돌봄과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 서산시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2018년 11월 서부농협에 '2호점'을 개소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및 방과 후 학습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9년 초에 3~4호점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 서산시·예산군·태안군, '서해안 내포 철도 가시화를 위한 공동협력 MOU' 체결

2019. 04. 26. | 서산시

서산시·예산군·태안군은 '서해안 내포 철도 가시화를 위한 공동협력 MOU'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공동 연구용역 추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 사업 필요성 대외 홍보를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등이다. 충청남도 서부지역은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는 지역이며, 고속도로 및 철도 접근성이 매우 낮아 교통 소외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서해안 시대의 미래 수요에 대비하고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광역교통망이 시

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서산시에서는 「서산 민항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서해안 내포 철도가 추진된다면 항공·철도가 연계된 복합교통체계가 구축되어 시너지 효과 내는 동시에,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논산시,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2019. 04. 22. | 논산시

논산시가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우수한 부스 운영으로 '참가 부스 현장평가(공공분야) 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논산시는 사람중심 행복공동체 동고동락을 주제로 한 「'회회낙락 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함께, 탐정호·선샤인 랜드·동고동락 마을자치회 등을 홍보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대표적인 관광지인 선샤인 랜드의 글로리 호텔을 연상케 하는 매력적인 부스, 다양한 현장 이벤트 및 볼거리 등을 제공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당진시, '어린이交通安全 3D 입체영상관' 준공

2018. 12. 13. | 당진시

당진시 '어린이交通安全 3D 입체영상관'이 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다. '어린이交通安全 3D 입체영상관'은 당진시 고대면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내 어린이 교통공원에 292㎡ 규모로 건축됐다. 3D 입체영상관과 체험전시관,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영상관의 경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交通安全 관련 3D 영상물이 상영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交通安全 3D 입체영상관은 2014년 당진시와 서산시, 태안군이 연계한 「2015년 지역행복 생활권 사업 추진계획」에서 제시되었고, 이후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이 확정됐으며, 2017년 '충남공공디자인센터'로부터 입면 디자인 및 색채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2017년 12월에 착공했다.

## 당진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의견 담는다

2019. 01. 08. | 당진시

당진시는 '총괄계획가 제도'를 본격 도입해 당진만의 차별화된 공공건축물을 담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괄계획가는 당진시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공간전략을 정립하고, 부서별 건축·도시 사업 간 조정, 디자인 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공공사업의 공공적 가치 구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정책자문을 통해 공공건축물 관련 당진시의 정책과 전략을 검토해 지역 현황에 맞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공간전략 실행을 위한 장소 단위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당진시 중점 건축사업의 총괄조정과 공공건축 관리체계 구축, 관계 공무원 대상 도시디자인 교육도 진행한다. 정책자문 주요 대상사업으로는 「당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비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청년타운 조성사업」, 「구·군청사 주변 경관 개선사업」, 「왜목 마리나 항만개발」, 「도시 활력 증진 개발사업」, 「기지사 줄다리기 문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도시디자인 및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한 사업 대부분이 포함됐다.

## 당진시, 안전도시 기반조성 나서

2019. 01. 22. | 당진시

당진시는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안전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내 시민들의 안전 증진과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안 4조'에는 안전도시 사업 종합계획 수립, 안전도시 관련 시설 확충,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훈련,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 시에서 추진할 안전도시 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도시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안전도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무 규제 검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당진시, 불법 건축물 피해예방 구슬땀

2019. 02. 12. | 당진시

당진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의 확산과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피해예방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허가과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 같은 건축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된다. 이에 당진시는 불법 건축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적합한 건축행정절차와 법적 조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당진시, 정주환경 조성에 572억 추가 투자

2019. 04. 14. | 당진시

당진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당진시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국내 경기 침체와 고용감소에 따른 정부의 조기 추경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 SOC 관련 예산 추가 교부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을 반영했다. 당진시는 먼저 시민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 해소와 관련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또한, 처음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다. 이처럼 당진시는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 세출예산이 편성된 분야별 주요 사업은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 '함께 잘 사는 농어촌 분야', '맞춤형 복지 실현 분야', '자연과 공존하는 화하로운 정주환경 조성 분야', '지속 가능한 청정환경 도시 분야' 등이다.

## 원도심 살리자! 당진시 265억 투자

2019. 04. 22. | 당진시

당진시가 중앙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을 활용해 당진1동에 위치한 옛 군청사를 중심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상업 시설 밀집 지역의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옛 군청사 후문과 정문 주변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키로 했

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장 조성사업」을 공모했으며,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이다. 또한, 도시재생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과 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당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해 올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진시는 옛 군청사에 「청년타운 조성사업」과 군청사 별관에 위치한 당진시인적자원개발센터를 ‘신중년지원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2019년에 마무리하여 옛 군청사 일대를 청년과 중장년에 특화된 일자리 메카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부여군, 2019년 국비 20억 원 추가확보 쾌거

2018. 12. 17. | 부여군

부여군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과 관련해 2019년도 토지매입비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은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지 1,500년이 되는 해인 2038년까지 22년간 추진되는 중장기 사업이다. 백제왕도의 품격에 맞는 역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선정된 핵심유적(12개소)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총 사업비는 7,092억으로 토지매입, 발굴조사, 학술연구, 유적정비 및 복원, 관람 편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세계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제고’, ‘왕흥사지 복원’, ‘관북리 특별 보존지구 정비’, ‘부소산성 주요 유적 정비’, ‘구간별 나성 복원·정비’, ‘능산리 동·서 고분군 조성·정비’, ‘정림사지 정비’, ‘화지산 및 군수리 사지 발굴·정비’, ‘방문자센터 조성’ 등이며, 핵심유적의 조성 단계별 정비 방안 마련 및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 부여군, 10억 규모 일반농산어촌개발 추가 선정

2018. 12. 28. | 부여군

부여군은 「2019년 일반 농산어촌개발 추가 공모사업」에 2개 신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7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8개 사업 123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추가 공모로 2개 사업 10억 원이 선정됨으로써,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총 10개의

신규 사업에 총 사업비 133억 원 규모가 됐다. 이미 2019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된 8개 사업은 ① 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구룡면, 석성면 각 40억 원, ②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부여읍 상금 1리, 남면 삼용 1리, 석성면 비당리, 세도면 귀덕1리 각 5억 원, ③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여읍 정동리 20억 원, ④ 시·군 역량강화사업 3억 원이다. 이번 추가된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부여읍 송간리, 장암면 점상 3리 각 5억 원이다.

### 부여군 침체된 골목상권 특화사업으로 살린다

2019. 04. 25. | 부여군

부여군은 「지역 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지방비 5억 원을 더한 10억 원을 들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부여군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신동업 시인과 먹자 거리라는 테마를 융합해 ‘시인 맛(만)나다’라는 주제로 사업을 구상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문화와 음식이 연계된 조형물 설치, 옥외광고물 등 디자인 개선, 지역 화폐 연계 골목 도시락 공간 조성, 시민참여 아이디어 콘테스트와 이벤트 행사 개최 등 상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개발 이후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준수, 임대료 동결,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 등의 내용으로 부여군과 임대인, 상인 간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상태이다.

### 부여군, 야시장으로 주변상권 활성화 유도

2019. 05. 03. | 부여군

부여군은 「2019년 야시장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지원해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2014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조성사업」을 통해 ‘백마강 달밤 야시장’을 시작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충청남도 「제3기 균형발전 사업」의 도비 지원을 통해 추진했다. 한편, ‘백마강 야시장’은 2018년 운영 수익이 전년 대비 30% 증가해 회당 약 1천3백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등 운영예산 대비 약 2.5배에 이르는 매출을 올려 부여군 상권과 결합된 야간관광명소로 정착해 가고 있다.



## 부여군,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최종 선정 2019. 05. 03. | 부여군

부여군은 부여읍 동남리 및 구아리 일원 「함께하는 안전거리 - 행복한 동행」이 「2019년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CPTED)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안전거리-행복한 동행」은 도비 50%를 보조받아 총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부여군은 부여경찰서, 도시재생센터, 시민단체(자율방범대, 상인회 등)와 함께 '민·관 범죄예방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협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2020년 8월까지 범죄에 취약한 공간의 방범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누구나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 '함께하는 안전거리-행복한 동행' 사업 구상안



## 서천군, 군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2018. 12. 12. | 서천군

서천군이 진행해 온 「다락말 정비 사업」이 2018년 12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도심 취약지역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천군은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데다 도로가 협소해 화재 발생 시 주택이 전소하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수렴해왔다. 이에 2009년 「서천읍 군사리 다락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8개 노선의 마을도로 확보, 주차장 4개소 및 포켓 주차장 1개소를 조성해 총 110여 대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신설된 도로의 전선과 전신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깔끔한 도로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며, 도로 하부에 상·하수도를 설치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마을 곳곳 가로등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전체 노인 계층의 복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총 3층 규모의 '서천군 노인회관(1층은 무료급식소, 2층은 프로그램

실 및 건강증진실 등)'을 2019년에 개관하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나설 예정이다.

### ▼ 서천군 노인회관



## 서천군, 장항도시탐험역, 베일 벗고 장항 르네상스 시대 연다! 2019. 04. 23. | 서천군

「장항 도시탐험역」이 약 3년여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개관했다. 2층 규모로 리모델링된 「장항 도시탐험역」은 외관 전면이 홀로그램 필름을 활용한 개방형 유리창으로 되어 기대를 끌고 있다. 서천군은 새롭게 조성된 장항 도시탐험역이 주민, 관광객과 상호 소통하는 지역 중심 공간 기능을 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항 도시탐험역의 1층은 맞이홀, 어린이 라운지, 자전거 대여소, 2층은 '새콤달콤 핑크카페' 콘셉트의 도시탐험 카페, 장항 이야기 뮤지엄, 도시탐험 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 ▼ 장항도시탐험역



## 서천군, '시간창고' 장항 농어촌 공공도서관 개관

2019. 04. 26. | 서천군

문화적 상징 공간이 될 거라 기대를 받아온 '장항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개관했다.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 장항 공공도서관은 '시간 창고'를 주제로 하여 서천의 '지난 시간을 복원하고 거기에 새로운 시간의 기록들이 축적되어 나간다'는 공간적 의미를 담았다. 외관은 장항을 상징하는 재료인 구리를 적용했다. 도서관 지상 1층에는 사무실, 종합자료실, 문화강좌실, 보존서고 등이 있고, 2층에는 아동자료실, 열람실, 햇빛정원, 동아리방, 특성화 자료실이, 별관에는 장난감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중 별관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239종 486개의 장난감을 보유 중이며, 서천군에 거주하는 만 6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은 1회 2점에 한하여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다. 장항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현재 보유 중인 장서는 6만 7천 권으로 매년 신간을 확충하는 한편, 전자자료 및 연속간행물도 수시로 구매해 장서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 장항 농어촌 공공도서관



## 청양군, 100세대 규모 고령자 복지주택단지 조성

2019. 05. 01. | 청양군

청양군이 2021년까지 맞춤형 주거시설인 '고령자 복지주택' 100세대를 건립한다. 청양군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을 유치하여 주거 및 복지서비스가 동시에 가능한 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유치를 위해 3월 말 임대주택 규모,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후보지 제안을 제출했다. 이후 제안서 검토,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입지 적정성·수요 타

당성 평가 등 종합적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최종 대상지로 선정된 청양군은 2019년에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2020년 공사에 착수해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 전국 1호 통합아동복지센터, 홍성군에 생겼다!

2018. 12. 04. | 홍성군

홍성군에 전국 최초의 '아동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홍성군은 충남도청 이전과 내포신도시의 조성으로 젊은 층 인구 유입과 아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그에 비해 아동과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중심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홍성군은 양육과 돌봄, 청소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공간인 아동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센터 내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초등 방과 후 돌봄 센터, 급식소, 청소년 동아리방, 작은 도서관, 독서실, 가족 카페 등 7개 시설이 있으며, 영유아부터 초등학교생, 청소년, 가족까지 모두 함께 머무를 수 있다.

## 홍성군, 「2018 건축행정건실화 추진평가」 '郡(군) 유일' 우수기관 선정

2018. 12. 11. | 홍성군

홍성군이 「2018년도 충청남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평가」 결과, 군 단위 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홍성군은 가설건축물 스티커 표시제도, 건축허가 시 '다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운영,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발굴' 분야에서 성공적인 추진을 인정받았다. 또한, 찾아가는 건축 민원 상담실 운영과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 운영, 건축행정 안내책자 제작 및 무료 배포 등으로 '지역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 분야에서도 탁월함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건축공무원 지식동아리 운영으로 '건축행정 업무능력 배양'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홍성군, 전국 최고의 아동친화형 도시 조성!

2019. 03. 28. | 홍성군

홍성군이 '아동친화형 도시' 구축을 위해 23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국 최초로 '아동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육아, 초등 돌봄, 다채로운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방과 후 돌봄 센터 '아이들 세상' 3개소를 운영하여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저녁 돌봄 및 급식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해 남장골 어린이공원 내에 가족친화형 물놀이 시설을 만든다. 이밖에도 내포신도시 내포출장소 옆 부지에 '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자연놀이터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어린이 안전 먹거리 조성사업, 아동권리 실태조사, 아동권리 교육 및 토론회 개최 등 홍성군만의 특색 있는 아동복지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 예산군, 도지정 기념물 제30호 예산 산성 발굴조사

2018. 12. 15. | 예산군

예산군은 「예산 지명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산성 내 정상부 일원 1천 855㎡에 대한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학술 전문회의를 개최했다. 발굴 조사된 건물지와 저수조를 포함한 각종 구덩이에서 백제의 웅진시대와 사비시대를 대표하는 인각와(글자 도장이 찍힌 기와), 연화문 와당삼족기(세발접시), 승문(뚝자리문), 토기 등이 다량 출토됐다. 특히, 대형 석벽 건물지는 그동안 백제산성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던 첫 사례여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건물지 내부의 모든 초석 하부를 지탱하는 적심을 흙다짐한 '적심토 조성 방식'은 부여 시내와 공산성 내부 등 백제 왕성(王城) 및 도성(都城)에서만 확인된 것이어서 예산 산성의 건물지는 백제시대 건물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현재 왕도에 위치한 성들을 제외하고, 지역 산성에서 대형 석벽 건물지와 문자가 찍힌 도장기와(인각와), 연화문 와당 등 수준 높은 건축물과 유물이 출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 '예산산성 내 정상부 일원' 발굴조사



## 예산군,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2019. 03. 05. | 예산군

예산군이 「2019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 응모해 스마트 공원, 도로, 교통안전·환경개선 및 어린이 물놀이 시설 설치사업 등 총 4개 부문 중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는 충청남도 시·군 중 가장 많은 분야에 선정된 결과이며, 도비 3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선정사업은 예산읍 산성리 세광·주공 아파트 사이 도시공원 정비, 발연리 계룡아파트 북쪽 편에 있는 도시공원의 물놀이 시설 정비, 군도 12호 구간 중 덕산면 윤봉길 의사 생가에서부터 스파캐슬 입구 구간에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개선 등이다.

## 예산군, 「2019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 국비 40억 확보

2019. 04. 09. | 예산군

예산군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우리 동네 살리기'형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주교1리 일원 4만 8539㎡ 부지에 2021년까지 3년간 총 92억 8,400만 원(국비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사업 내용은 주교 안심마을 정비사업, 안심 등하굣길 정비사업, 주거복지 확충사업, 생명 발전소(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이음창작소 조성사업, 와유 하우스(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지역 연결고리 조성사업 등이다. 아울러 예산군은 지역 주민의 주

민 역량을 강화해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예산군,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사업 본격 추진

2019. 04. 25. | 예산군

예산군은 서산군, 태안군과 함께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공동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예산군·서산시·태안군은 서해안 내포철도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은 서해안 내포철도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을 위한 상호협력 및 공동대응, 사업 필요성 대외 홍보를 위한 토론회 공동 개최 등이다. 한편, 서해안 내포철도는 예산(삽교, 내포신도시)~서산비행~서산~태안(안흥)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으로 연장 64.5km, 사업비 약 1조 6천 7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태안군, 「광개토 대사업」 국비확보! 드디어 닻 올린다

2018. 12. 11. | 태안군

태안군 이원면 서산시 대산읍 간 가로림만 연륙교 개설(국도 38호) 등 2개 노선의 기초조사 사업비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기초조사 사업비 책정은 「광개토 대사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비 투자 근거 마련, 사업 타당성 조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통해 국비가 본격 투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도 38호 노선 연장은 약 2,200억 원의 사업비 투입이 예상되며, 4차선의 교량이 개설되면 태안 서북부권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해안 관광산업도로(인천 목포간)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산·당진지역의 첨단산업이 태안까지 확대돼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두야 신진도리 4차선 확포장은 16.6km 구간에 약 1,5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사업 완료 시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관광객 유입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태안군, 새롭게 변신한 안흥항 ‘날 보러 와요!’

2018. 12. 18. | 태안군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이 안흥항 인근 신진도에 개관했다. 2017년 준공된 태안의 새로운 명소 ‘안흥 나래교’를 통해 서해와 신진도, 안흥항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국립 태안 해양유물전시관’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안흥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8년 「안흥내항 주변 정비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와 주차 공간을 조성했다. 태안군은 앞으로 「신진도 케이블카 사업」과 안흥성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 「항구 경관개선 사업」 등을 통해 국립 태안 해양유물전시관, 안흥성, 안흥 나래교, 유람선, 골프장 등을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 태안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큰 호응’

2019. 01. 02 | 태안군

태안군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태안군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45개 단지에 1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2018년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기존 20세대 이상이었던 지원대상을 6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홍명아파트, 삼보아파트 등 20세대 이상 단지 4곳, 국민연립, 현대빌라, 삼호맨션 등 6세대~20세대 미만 단지 13곳에, 총 2억 4,500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누수 문제를 해결한 옥상방수공사 지원이 주민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었으며, 외부 도장 공사를 지원해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얻었다.



## 태안군, 도시 개선사업 추진에 박차!

2019. 05. 03. | 태안군

태안군이 충청남도가 주관한 「2019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에서 ‘스마트 공원’, ‘원도심 쌈지주차장’, ‘교통안전·환경’ 부문에 선정돼 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공원 및 주민쉼터 등이 전무한 태안을 동문리 683-3번지 외 5필지 일원 총 3,757㎡ 면적에, 어린이 이용시설, 휴양시설, 쉼터,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고 범죄예방설계를 통해 주민들이 찾고 싶은 스마트 공원을 올해 안에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태안을 동문리 744-3번지 외 3필지 2,520㎡ 면적에 주차면수 70면의 원도심 스마트 쌈지주차장을 건립해 인근 주택지의 주차난을 해소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나대지로 방치돼있는 사업대상지의 경관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통·보행악자를 고려한 안전한 가로조성을 위해 올해 안에 교통표지판 63개소에 대한 정비·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경관 및 공공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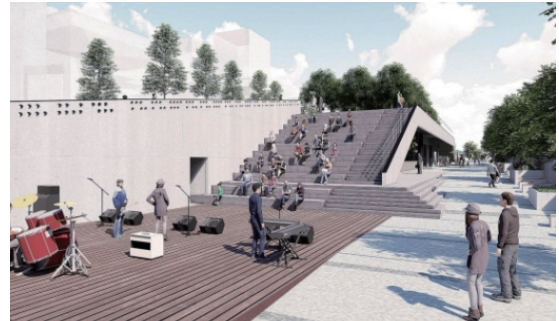
### 천안시, 복합기능의 주차장과 문화공원 시설 조성

2018. 12. 05.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는 「오룡 주차 빌딩 및 공원 조성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은 「중양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오룡동 20-1번지 일원 ‘오룡 지하차도’ 상부공간을 활용해 진행된다. 오룡 주차 빌딩의 지하 1층은 124대의 차량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되며, 지상 1층은 기존 지형에 맞는 지상공원과 옥상공원으로 나뉘어 조성된다. 지상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야외공연장 좌석으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관리사무실, 화장실, 공용면적 및 문화도시사무국 사무실을 포함한 야외공연장, 전망쉼터, 아트카페와 야외 테라스, 포켓쉼터 등을 갖추게 된다. 주차 빌딩은 주변 접근로와 공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되

며, 주차장 확보는 물론이고, 공간의 확대 개방으로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오룡 주차 빌딩 및 공원 조성’ 조감도



### 천안시,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도비 3억 원 확보, ‘성정3길공원’과 ‘방아다리공원’ 재정비 사업 탄력

2019. 03. 05. | 천안시 | 공원녹지과

천안시가 「2019년도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도비 3억 원과 시비 10억 원 등 총 13억 원을 투입해 ‘성정3길 공원’과 ‘방아다리 공원’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성정3길 공원은 스마트 공원으로 조성하고, 쌍용동 방아다리 공원에는 물놀이 시설을 조성한다. 천안시는 계획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이용하는 ‘시민 참여형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상반기 중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2019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천안시, 지역별 체계적 경관관리 위한 경관조례 개정 -중점경관관리구역 10개 지역으로 세분화

2019. 04. 19. | 천안시 | 건축디자인과

천안시가 경관조례를 개정해 천안시청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관 조례 개정에는 경관법 제15조에 의거한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2025’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 경관자원에 맞는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경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관조례 개정으로 기존 자연경관형·시가지경관형·역사

문화경관형 등 3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10개 지역으로 세분화됐다. 천안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따라 신도시와 구도심, 도시와 농촌의 지혜로운 조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천안시, 「역전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 국비 40억 원 포함해 총 80억 원 투입

2019. 05. 09. |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천안시는 천안 역전시장이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상권 활성화 사업」의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원도심 내 천안 역전시장, 명동 대흥로 상점가, 천안역 지하상가 상점가 등에 5년간 국·시비를 포함한 총 80억 원을 투입한다. 천안시는 시장 상인회 상점가와 2023년까지 각 시장을 지역 고유자원과 연계할 계획이며, 쇼핑,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티, 청년창업 등이 결합된 복합 상권으로 조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관리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흥이 나는 천안형 상권 모델 구축을 위해 「함께 나누는 공동체터」, 「시대를 아우르는 상생터」, 「가치가 현실화되는 활력터」를 방향으로 환경 개선 활성화 조직운영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다양하게 추진된다.

## 공주시, 「2019년 국토공원화 사업」 본격 추진 - 세계유산 관광도시, 신바람 공주 만들기

2019. 03. 12. | 공주시 | 산림경영과 공원녹지팀

공주시가 「2019년 국토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미르섬, 석장리 계절별 꽃단지, 정안천 생태공원에 ‘사계절 꽃바람 나는 수변정원’을 조성하고, 도심 녹지에는 상록화초를 식재해 활기찬 거리를 만든다. 또한, 9월 개최되는 「제65회 백제문화제」에는 다양한 계절꽃으로 시민 및 관광객들이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계절 꽃 식재를 위해 다년생 화초 10만 본을 육묘하고 있다. 한편, 미르섬에는 특색 정원을 조성해 연인들을 위한 포토존을 마련하는 한편, 무더운 여름철 설악초꽃으로 시원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

정이다. 아울러 정원을 전통 민속놀이와 추억의 전통놀이 장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 ▼ 공주시 ‘미르섬’ 전경



## 공주시, ‘공산성 은개골 역사공원’ 준공... 시민 개방 - 시민 휴식 공간 조성 및 탐방로 3곳 개설

2019. 05. 17. | 공주시

공주시는 공산성 은개골 역사공원의 준공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은개골은 그동안 불법 건축물과 영농시설 등으로 공산성의 역사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2009년 은개골 일원을 ‘공산성 문화재 구역’으로 편입해, 토지매입과 발굴조사를 거쳐 유적공원으로 조성했고, ‘사계절 꽃단지’와 ‘작은 수목원’을 비롯해 공산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개골에서 공산성으로 이어지는 탐방로 3곳을 개설했다. 이번 역사공원 준공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공산성의 역사적 가치 제고, 은개골 마을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산시, 미세먼지 차단 숲과 도시 숲 조성 추진

2019. 01. 29. | 아산시

아산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과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아산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둔포면 석곡리 및 음봉면 신휴리 소재 ‘제1·2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수목이 흡착·흡수하고,

수림대가 미세먼지의 이동 면적과 유속을 줄여 침강시킴으로써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권곡 문화공원에 불량수목 등을 교체하고, 녹음수 등을 식재해 미세먼지 저감, 소음 감소, 공기정화 기능으로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휴식 등 정서함양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 아산시, ‘온양온천 너더리길 경관개선사업’ 「2019년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

2019. 04. 25. | 아산시

아산시 「온양온천 너더리길 경관개선사업」이 2019년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온양온천 너더리길 경관개선사업」은 온양온천역 뒤편의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을 추억의 공간으로 조성해 아산시의 도시 이미지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을 지역 재생의 씨앗으로 삼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아산시는 너더리길의 노후된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고, 특색 있는 간판과 랜드마크 특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안전한 정주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자생적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온양온천 너더리길 경관개선사업’ 조감도



## 아산시, 충청남도 최초 ‘공원녹지 관리시스템’ 도입

2019. 05. 15. | 아산시

아산시가 충청남도 최초로 ‘공원녹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쉼터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0년 2월 공원녹지 관리시스템 1단계(시내권) 구축을 목표로 올해에는 시설물 정보 위치, 공간시설 도면 이미지, 각종 이력정보 등을 수집·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원녹지 공간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공원녹지 정보 및 대장 자료 등을 데이터베

이스화할 예정이다. 1단계 구축이 완료되면, 2021년에 2단계(읍, 면지역) 사업을 진행한다. 공원녹지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공원녹지 조성·현황 조회’나 ‘공원녹지 기초정보, 도시계획, 토지정보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공원 조성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원녹지 공사 이력, 도면, 조서 등의 조회’, ‘공원 조성 사업예산, 보상비 산출, 공사비 산출’ 등을 통해, 투명한 공원 조성이 가능하며, 공원녹지 통계자료를 활용해 공원 조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 당진시 경관자원조사, 경관 학회서 주목

2019. 02. 20. | 당진시

당진시가 2019년 말 완료를 목표로 2018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관자원조사’가 경관 분야 학술지인 「한국경관학회지」 제10권 2호에 소개되는 등 관련 학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조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경관자원의 조사 분석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당진시의 고유 경관 가치를 재창출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의 잠재 경관자원을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조사 방식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단체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자원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라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기초, 광역, 국가 차원의 경관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 경관조사를 실시토록 검토 중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경관자원조사에 나섰다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 당진시, 난지섬 「어촌 뉴딜300 선도사업」 선정

2019. 05. 09. | 당진시

당진 난지섬이 「어촌 뉴딜300 사업」의 8대 선도사업 대상지 중 한 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정된 당진시 석문면 난지섬 일원은 아름다운 비경과 더불어 섬 안의 해수욕장과 트래킹 코스, 캠핑장, 전망대, 소난지도 의병총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져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난지섬 권역에는 선착장

과 안전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이 선제적으로 구축되며, 「어촌 뉴딜300 사업」의 디자인 개선을 위한 시험대로도 활용된다. 당진시는 난지섬 내에 갯벌생태 체험이 가능한 체험장 3곳과 자전거길 체험 공간, 연안 바다낚시터 1곳을 조성할 예정이며, 어촌 민박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즐길 거리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 당진 난지섬



## 당진시, 한진포구 전망대 새로운 명소로 각광

2019. 05. 24. | 당진시

당진시는 한진포구 연안 공간의 자유롭고 편안한 이용과 연안 기능의 재생을 목적으로 24억 원을 투입해 ‘한진 지구 해변산책로’를 조성했다. 이 데크 시설은 공개 당시 조석간만의 차와 험난한 지형으로 인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한진포구 연안을 지역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215m 구간의 한진포구 해변데크길은 난간에 160개의 조명을 설치해 야간에 운치를 더해 준다. 특히, 높이 20m의 전망대는 전통적인 한옥의 느낌을 살려 차분하면서도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전망 공간을 연출한다. 당진시는 이르면 2020년부터 45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 한진포구 해변데크길을 아산 부곡공단 고대지구 해안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 당진시 ‘한진지구 해변산책로’ 야간경관(출처 : 충청남도)



## 금산군 금산을 하옥지구,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 사업)」 공모 선정

2019. 04. 14. | 금산군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새뜰마을)사업」에 금산읍 하옥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새뜰마을 사업 최종 선정으로 ‘금산읍 하옥지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4억 원이 투입돼 새로운 주민 행복마을로 탈바꿈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안전 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휴먼케어, 주택정비사업, 주민역량 강화 등이다. 금산군은 이번 사업신청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준비에 나섰고, 2019년 2월 충청남도 사전평가,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 부여군, 주민 주도로 이색 창조의 거리 탈바꿈

2018. 12. 03. | 부여군

부여군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앙로 이색 창조의 거리를 새로이 탈바꿈시켰다.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디자인 프로젝트’에서는 40㎡ 규모의 트릭아트 3개를 조성했다. 특히, 이 트릭아트는 세계유산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정림사지 오층 석탑을 형상화하고, 최우수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여 서동연꽃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연지 탐험’과 ‘연지’ 등을 표현했다. 이번 디자인 프로젝트는 지역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 부여 중앙시장에 유등과 경관조명을 설치해 관광객의 유도를 꾀할 예정이다.



## 부여군, 「2019년 환경부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선정 2019. 02. 21. | 부여군

부여군은 「2019년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여군 ‘석성면 정각리 정각제 못’의 수변 생태계 기능 회복을 통해 소생물 서식처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은 현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부들 및 갈대 등 수변식생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개방수면 축소에 의한 수변 생태계 기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사업으로 부여군은 다양한 수변 식생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저수지 수변 생태계의 기능 향상 및 경관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식생방틀 시공 및 수질 정화식물 식재, 수변관찰 데크와 수변관찰 탐방로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 홍성군, 146억 투자 산림인프라 확충 ‘녹색도시 우뚝’ 2018. 12. 26. | 홍성군

홍성군이 지역 주민을 위한 ‘녹색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 광천천변과 홍성 일반산업단지에 ‘도시 숲’, 옥계 자연재해위험 지구에 ‘명품 가로 숲’, 홍주고등학교에 ‘명상 숲’을, 그리고 ‘쌈지 숲’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4개 마을에 맞춤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였다. 올해는 사운고택과 백제 부흥길에 잔디광장, 야외무대 등을 갖추으로써 녹지 공간 확충은 물론이고, 기존 공간을 주민 화합의 장으로 대폭 변모시켰다. 특히, 홍성군은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턱과 계단이 없는 평균 경사도 8% 이하의 ‘무장애 숲길’을 용봉산에 조성 관리하였고, 용봉산과 남산에서 숲 해설 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에게 심리적 안정과 치유 활동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오서산 일원에 체험형 산림레포츠 시설과 치유의 숲 조성을 계획하고 추진 중이며, 2021년부터 2년간 차별화된 모험형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 ▼ 용봉산 ‘무장애 숲길’에 설치된 데크길



## 홍성군,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관광도시’ 기반 다졌다 2018. 12. 27. | 홍성군

홍성군은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위한 전국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홍성의 대표 축제 ‘홍성 역사인물축제’가 ‘2018 문화관광육성축제’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교육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남당항 새조개축제」와 「대하축제」, 「광천토굴새우젓 광천김대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홍성 국제단편영화제」는 전 세계의 영화계에 홍성군을 각인시키는 한편, 영화의 메카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단편영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크게 제고시켜 문화예술분야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도 홍주읍성, 복문, 수구 복원사업 등 「홍주읍성 정비사업」과 국비사업으로 확정된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 「속동전망대 스카이라인 설치사업」, 「속동해양공원 조성사업」, 「홍주천년 양반마을조성사업」 등은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홍성군, 홍주읍성 복원 통해 홍주의 옛 영광 재현한다! 2019. 02. 22. | 홍성군

홍성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홍주읍성의 역사관광자원화를 위해 2019년에도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복문 복원’, ‘복문지-조양문 발굴조사 구간의 성벽 이미지 구현 및 수구 유적 정비’와 구 홍성읍사무소 일원의 ‘홍주천년 양반마을’을 전통음식 체험 공간, 객사 향청 재현 공간 등 테마 별로 구성

할 계획이다. 홍성군은 옛 홍주읍성 일원의 문화자원을 활용  
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을 시민·전문가·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문화적 거  
버넌스’ 주축으로 진행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0년  
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단계 사업으로 KT 이전, 경신  
당 복원, 군청사 이전, 내삼문 복원, 수로복원, 내야 시설 및 서  
문 복원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객사와 진영 동  
현까지 문화재 구역을 확대·지정해 복원하려는 장기적 계획  
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 중이다.

### ‘내포벽해’, 내포신도시 화려한 변신 시도한다!

2019. 03. 11. | 홍성군

홍성군이 내포신도시 내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21년까지 총 260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신도시 주민들의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홍북읍 내에  
평생학습교육센터 증축, 홍예공원 내에 경관 조명등과 쿨링  
포그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주민 주차 편  
의 제공을 위해 주차타워를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주  
차면 200대를 확보하는 한편, CCTV 이동차량을 활용한 24  
시간 불법 주정차 차량 감시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그밖  
에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내포신도시 LH 스타힐스  
내 초등학교 돌봄 센터와 공동 육아 나눔터도 차질없이 운  
영할 계획이다.

### ‘뛰어놀고 싶은’ 홍성군, 어린이 자연놀이터 조성한다

2019. 03. 12. | 홍성군

홍성군은 자연놀이터 자문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홍성군 자연놀이터는 홍성읍 청솔아파트 옆 느티나무 어린  
이집 앞에 설치될 계획으로, 기존 놀이터의 획일화된 놀이기  
구(시소, 그네 등) 구성에서 벗어나 보다 자연친화적인 구성  
과 창의적 놀이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성군  
은 전국 최초로 「아동발달평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어린  
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이번 교  
육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들의 역량 강화 및 아이들에게 발달  
단계별로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홍성군, 전국 제일의 녹색 명품도시 조성한다!

2019. 04. 05 | 홍성군

홍성군이 미세먼지 차단 및 도시민들의 환경권 제고를 위해  
‘녹색 명품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① 조  
림사업을 통해 관내 전역 면적에 경제수, 특용자원, 산림재해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의 용도에 특성화된 조림 식재를 대대  
적으로 전개, ② 도심 ‘숲세권’ 도시 숲 조성을 위해 ‘홍성읍 남  
산 삼림욕장’과 ‘결성면 석당산 향토숲’을 조성하는 한편, 도  
심 녹색 쌈지 숲 2개소를 건물 사이 자투리땅에 녹색 공간으  
로 조성, ③ 관내 주요 도로변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통해 도  
심 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  
공하며, 도심 내 ‘친환경 생태 공간’ 조성을 위해 남장골 어린  
이공원 내에 물놀이 시설을 구축, ④ 홍성읍 대교 공원에 쿨  
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해 무더위 속 시원함을 선사할 계획이  
며, 용봉산 무장애 숲길 등 도심 생활권 등산로 조성사업에도  
사업비 투입, ⑤ ‘역재방죽공원’과 ‘오서산 힐링 숲 레포츠단  
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내포신도시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공디자인 공모 선정!

2019. 04. 29. | 홍성군

홍성군 신도시 시설관리사업소는 2019년 「특화거리 조성사  
업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화  
거리 조성사업’은 보행자 전용도로에 수목식재, 휴게공간 조  
성, 경관디자인 조명, 조형물 설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미 내포신도시 근린상가에 특화거리 조성을 완  
료한 바 있다. 홍성군은 올해에도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공공디자인 수  
준 향상과 지역 문화적 특성을 살린 경관디자인 개선을 위  
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2019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에 응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도비 2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  
하게 돼 사업에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 예산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2019. 04. 29. | 예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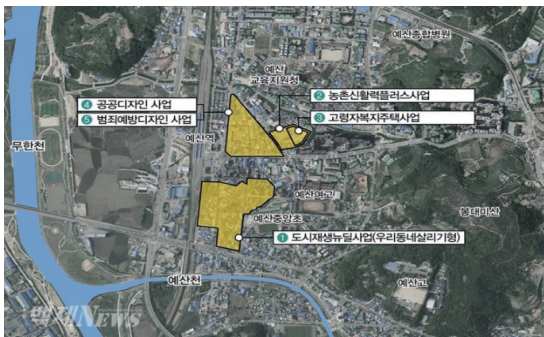
예산군은 「2019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과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디자인 공모에서는 「기차길 옆 역사와 전통의 감성 찾기 프로젝트」가,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간의 동행길 만들기」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은 도시 디자인 분야 관련 사업으로 예산역과 역전 재래시장(역전로, 아리랑로, 주교로) 일원에 공공공간, 시설물, 공공매체 및 가로환경 디자인을 개선하게 된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시간의 동행길 만들기」는 예산역전 재래시장과 숙박업소 밀집 지역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 생활공간에 안전시설과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 예산군, 예산역 주변 주교리 일대 '확 바뀐다!'

2019. 04. 30. | 예산군

예산군이 예산역 주변 주교리 일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층 유입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내용으로 주교리 일원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함께 이어가는, H<sub>2</sub>O 공동체 '배다리 마을' 사업」, 「충남형 공공디자인 사업」,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총 5개 공모사업이 선정돼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형 공공주택인 '더 행복한 주택' 사업, 배다리 청년타운 조성사업은 공모사업 준비 중이다.

▼ 예산군 예산역 주변 주교리 일대 사업위치도



## 태안군, 해양수산부 주관 「어촌 뉴딜 300 사업」 2곳 선정!

2018. 12. 21. | 태안군

태안군은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 사업」 공모에서 「가의도 복항」, 「가경주항」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가의도 복항」은 「생태와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서해 관광 제1경 가의도」라는 비전으로 「바다의 시작 및 종점 정비」, 「가의도 섬 이야기 발굴」, 「섬 관광 활성화 공간 조성」 등 특색 있는 사업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한편, 「가경주항」은 「패총과 문화가 있는 어촌민속마을 가경주」라는 비전으로 안전한 해안마을, 여유로운 휴양마을, 오감체험 바다마을, 추억 쌓는 어촌마을 등 전통 어촌 문화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항 및 배후마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태안군,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는 서해안 대표 관광 명소 만든다!

2019. 02. 01. | 태안군

태안군은 학암포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관광개발'(안)을 구상하고, 만리포에 '서핑 스폿 조성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북부권을 개발하는 '학암포 중심 복합관광개발 구상'을 위해 '트렌드를 선도하는 서해안 관광 명소, 학암포 만들기'라는 비전 하에, 「학암포 선셋 발리 프로젝트(가칭)」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해양경관 조망이 가능한 신규 관광자원 개발, '만대항-대방이섬-천리포수목원-개목항-학암포' 간 유람선 항로 개척, 해수 노천탕 및 해안부두 먹거리촌 조성 등이다. 또한, 만리포 해수욕장 일원에 '만리포니아 서핑 스폿 조성 및 해양레포츠 안전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파도가 없는 날 육상에서 서핑 연습이 가능한 '볼파크' 조성, 서핑 특화 해수욕장을 알리는 상징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레포츠 안전교육센터'에 해수 아쿠아 풀장, 인공 서핑장, 가상현실관, 체험 다이빙 센터 등을 조성해 만리포를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레저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 태안군, 해양수산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3년 연속 선정!

2019. 05. 20. | 태안군

태안군은 해양수산부의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파도리 권역’이 거점 개발사업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사람과 시간이 머무르는 곳, 서해 땅끝 파도 마을’이라는 비전하에, 사람 사는 어촌, 살맛 나는 어항, 시간이 머무르는 곳, 테마가 있는 어촌마을, 스스로 발전하는 지역공동체라는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을이 보유한 1990~2000년대 경관을 활용한 ‘빈티지 어촌 마을 테마 경관 조성’, 어항 경관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 조성 및 마을 이미지 제고를 위한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파도문화센터’, 이외에도 ‘파도광장’, ‘안전하고 쾌적한 권역 만들기’, ‘지역역량 강화’ 등 특색 있는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마을만들기

### 천안시, 12개 읍·면지역 신개념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 완료

2019. 02. 13. | 천안시 | 정보통신과

천안시는 12개 읍·면 지역에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정상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마을 방송은 기존 마을 앰프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신규 장비를 설치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전화 자동응답 서비스를 이용해 마을주민의 휴대전화 또는 집전화로 방송을 전달하는 방식이며, 마을 이장과 주민이 마을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송출과 청취를 할 수 있다. 천안시는 기존에 설치하던 가가호호 스피커 방식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고장 수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앞으로는 설치를 지양하기로 했다.

## 천안시 북면 명덕리, 새들마을 대상지로 선정 -20억 원 투입해 정주여건 및 마을경관 개선 등 사업 추진

2019. 04. 02. | 천안시 | 농업정책과

천안시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북면 명덕리’가 최종 선정되어 2021년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진입로 교량 설치와 마을안길 확 포장, 집수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정비 사업, 마을 담장 정비 등의 마을 경관개선 사업 등이 추진된다.

## 천안시, 마을공방 육성 공모사업 선정 - 남산지구 뉴딜 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기대

2019. 05. 16. | 천안시 | 도시재생과

천안시는 「2019년 마을공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구 내 유휴공간인 ‘천안고교 하부공간’을 활용해 마을 공방을 조성할 예정이다. 마을 공방에는 남산지구 주민협의체와 지역 청년활동가들이 참여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원예 화훼 등 전문 교육과정, 미술치료와 디자인을 결합한 예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주제 디자인을 활용해 상품을 제작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공방 사업을 통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과 문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노인들의 심리 치유와 새로운 생산 활동 모델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 공주시, 「깨끗한 공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

2019. 02. 11. | 공주시

공주시가 「깨끗한 공주,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는, 청소체험 아카데미 추진, ‘하루 10분! 내 집 내 상가 앞 청소하기 운동’, 재활용품 전용 봉투 사용 활성화, 청소 사각지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반 운영, 이동식 스마트경고판(CCTV) 설치 운영, 국토 대 청결 운동, 숨은 자원 찾기 행사, 방치폐기물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처리, 하천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독거노인 가정 등 ‘방문 청결의 날’ 운영, ‘찾아가서 알려주는 자원순환 교육’ 운영 등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한 민·관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불업조성 및 읍 면 동별 ‘클린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 청소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는 동시에 도로변 공터의 쓰레기 투기 장소에 꽃밭 가꾸기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 보령시,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공동체 의식 향상

2018. 12. 12. | 보령시

보령시는 「2018 만세보령 마을대회」를 개최했다. 만세보령 마을대회는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의 추진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 확산과 마을공동체 의식 향상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청라면 신산리’는 전 주민이 참여해 폐비닐 수거 및 마을 청소, 공동 화단 가꾸기, 하천 정비를 시행해왔고, 150년 된 느티나무인 ‘섬박이’ 인근을 공원 및 쉼터로 조성해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었다. 우수 마을로 선정된 ‘천북면 장은4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에서 현장포럼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해왔고, 소하천과 회관, 마을안길에 매화나무를 심어 마을 경관 가꾸기에 노력을 기울였다. ‘성주면 개화3리’는 은골마을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마을 역사책 발간, 마을 민요단 창단, 노인회관 내 오석고을 박물관 설치, 국립수목장림 유치 추진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함양 회복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보령시 깨끗한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지정

2019. 03. 29. | 보령시

보령시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범 마을」 제1호로 ‘청라면 장현1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 시범 마을」은 보령시가 올해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즌2 미소 친절 청결 운동」의 지속적인 확산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모범적으로 펼치는 마을을 선정하고 있다. 장현1리 마을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가을마다 ‘청라 은행마을 단풍축제’를 열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주민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매달 2회씩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아산시, 2018 주민주도형 「마을 스토리 만들기 사업」 완료

2018. 12. 26. | 아산시

아산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경관을 개선해나가는 「마을 스토리 만들기 사업」을 완료했다. 이는 2014년부터 이어온 사업으로 마을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도고면 금산3리’와 ‘선장면 군덕1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추진 완료했다. ‘도고면 금산3리’는 마을 내 환경을 정비하고 마을 화합을 위한 소통 휴식공간을 마련했고, ‘선장면 군덕1리’는 노후된 담장과 벽면에 옛 어촌마을의 이미지를 담은 스토리 벽화를 조성했다. 또한, 두 마을 모두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져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됐다.

### 아산시, 「2019년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박차

2019. 02. 15. | 아산시

아산시는 「2019년 아산시 마을만들기 인큐베이팅 과정」을 신설했다. 과정 내용은 마을만들기 공통과정 특강, 유형별 컨설팅 및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완, 전문가 컨설팅, 팀별 발표 PPT 작성요령 등이다. 특강 첫날에는 아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실장이 마을만들기 소개, 마을만들기의 이해, 유형별 우수사례발표 등을 강의하여 교육참여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아산시는 이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교육참여자의 사업계획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수정·보완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사업내용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 세부심사 기준에 따라 자체심사를 진행하고, 아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희망마을 선

행사업' 5개 단체, '마중물 사업' 10개 단체,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16개 단체 등 총 31개 마을 및 단체를 3월경 최종 선정했다.

### 논산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 2개소 선정

2019. 02. 21. | 논산시

논산시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교동 휴먼시아 아파트'와 '양촌면 국방대 아파트'가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건강마을로 선정된 곳에는 건강 계단과 같은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 마을 특화 건강 증진 프로그램, 건강마을 인증현판 등을 지원받게 되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건강행태 개선 동아리 구성 및 활동을 하게 된다. 논산시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의 대상 선정을 위해 주민참여 의지, 사업 추진 적정성, 지역 자원 활용, 지속가능성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 논산시, 마을민주주의 혁신으로 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9. 02. 22. | 논산시

논산시가 「지방정부 정책대상 시상식」에서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논산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주민협의체인 '동고동락 마을자치회'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왔다. 또한, 2017년 기준 주민세 5억 1천만 원을 주민자치 재원으로 마을에 환원하는 등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8년 3월에는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5개 읍·면·동에 477개소 마을자치회를 구성하여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마을자치회 주민역량 강화, 마을자치회 활동가 양성 교육 등 자치역량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논산시는 올해 신설한 '마을자치과'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만족하지 않고, 마을 민주주의가 마을 곳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청양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발전 '한몫'

2018. 12. 13. | 청양군

청양군은 비봉면 록평리 복지회관에서 「비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준공식을 가졌다. 「비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면 소재지 고유의 테마와 특성을 토대로 편의시설·문화 복지시설 등 주민 이용시설을 확충해 면 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발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여 농촌·도시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복지회관 리모델링, 중심가로 정비, 비봉소 공원 및 버스승강장 조성, 마을안길 및 주차장 조성, 가로수 길 조성, 산책로 정비 등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주도에 따라 지자체와 전문가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 상향식 추진방식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 청양군,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박차

2019. 02. 08. | 청양군

청양군이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응모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역별 핵심테마를 발굴하고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올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시행하여 청남면 소재지 등 배후마을에 일상적 서비스 공급기능을 확보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특색 있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운곡면 추광리, 남양면 흥산1리 마을만들기사업」과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4개 사업의 사업비 5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2021년까지 연차적 응모사업으로 결정된 「정산면,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18개 사업의 사업비 48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교육, 현장포럼 등을 계속할 계획이다.

### 홍성군, 침체되는 농촌마을에 신활력 불어넣는다!

2019. 02. 12. | 홍성군

홍성군은 농촌마을에 신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7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 마을의 생산과 정주, 여

가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올해 78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행복소리 예술관, 전통체험 음식 활성화, 한울생태공원 조성사업, 홍양저수지 일원 여가활동 공간 조성 등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의 중간지원조직 형태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 자원을 조사·분석하고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의 공유·학습 및 주민역량 강화 등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 중이다. 특히, 도내 최초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 ‘청년 마을조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홍성군은 2020년까지 광천읍내 광천새우절을 특화한 개발사업과 농촌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마을버스 및 마을택시 운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홍성군,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행정’ 펼친다

2019. 04. 01. | 홍성군

홍성군이 ‘마을 공동체 행정’을 군정 각 분야에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관광분야」에서 충청남도 최초로 시행 중인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교육, 전문가 멘토링,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및 상품개발, 브랜딩개발, 파일럿 사업 운영 등 관광을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교육분야」에서는 민·관·학 협력거버넌스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마을학교 사업」도 추진한다.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마을 주민이 마을 재생을 이끌어가는 주민 참여형 중간조직 형태인 ‘홍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추진, 지역사회 네트워킹, 홍보, 연구 등을 수행한다. 또한,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홍성읍 남문동마을에 출장소를 개소해 주민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민·관의 중간지원조직 형태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홍성군, 주민 회의 통해 이끄는 지역 환경 개선 ‘눈길’

2019. 05. 22. | 홍성군

홍성군 홍동면이 주민 주도로 「홍동천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해 화제다. 홍동천은 최근 수질오염과 쓰레기로 인한 미관

훼손 등 각종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홍동면은 환경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및 개선방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천길 주변 산책길 조성, 상류원 지역으로 유입되는 소하천 환경 정비 사업 추진, 축사 오폐수 지도 점검 등의 제도 개선, 쓰레기 줄이기와 폐수 등 오염원 공급 차단 등 하천 관리 정책, 홍동천 수질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 공공시설물 및 매체

### 아산시, 온양온천역 유엘시티 버스승강장 개선공사 완료

2018. 12. 12. | 아산시

아산시는 온양온천역 유엘시티 앞 버스승강장을 현대식으로 개선했다. 개선된 승강장에는 비와 한파를 막을 수 있는 가리막을 설치하고 의자를 승강장 전·후면에 설치해 버스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버스정보안내기 2대를 설치하여 정확한 버스 도착시각을 제공하고, 범죄예방 및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LED 조명도 도입했다. 이로 인해 편의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높였으며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이루어 도시 이미지 향상에도 이바지하였다.

▼ 버스승강장 개선모습



## 아산시 정체성 담긴, 현수막 공공디자인 개발 보급

2019. 02. 01. | 아산시

아산시는 공공디자인 도입으로 아산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거리의 알림판 현수막을 아산시의 정체성이 담긴 디자인으로 새롭게 개발 보급해 거리 풍경을 바꿀 계획이다. 이에,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현수막 디자인을 개발해 쾌적하고 세련된 도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발한 현수막 디자인은 아산시 상징물(꽃, 나무, 새), 산업(도시화, 첨단화, 친환경, 자연) 및 주요 관광지(외암리 마을, 공세리 성당, 지중해 마을) 등 10가지 주제를 그래픽 모티브로 하였다. 간결한 선으로 표현한 이 그래픽 모티브를 통해 '어울림'을 나타내고자 했으며, 4가지 타입의 디자인과 가장 많이 제작되는 5가지 사이드로 개발됐다.

## 아산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일제정비

2019. 05. 16. | 아산시

아산시는 상반기 중에 구도심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도시 노후화로 인해 정비수요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시행했다. 주요 정비 대상은 보도, 불라드, 불법 부착물, 가로수 띠녹지, 교통표지판, 대중교통 시설물, 가로등, 기타시설물 등으로 그간 노후 및 파손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해 왔던 시설물들이다. 아산시는 경관개선 효과와 시민 호응도 등을 반영하여 추후 일제 정비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에 아산시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여 도시경관 저해의 주범으로 지목되어온 불법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세련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 당진시, 타워형 CCTV 본격 운영

2019. 01. 22. | 당진시

당진시는 타워형 CCTV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018년에 총 40곳, 총 126대의 방

범용 CCTV를 설치했다.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동영상 CCTV가 116대, 번호 인식 카메라는 10대로, 이 가운데 10대가 타워형 CCTV다. 기존의 원형 방범용 CCTV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박스 타입의 타워형 CCTV는 깔끔한 외관이 장점이다. 특히, 타워의 상단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하단에는 영상과 이미지 송출이 가능한 홍보 전광판을 배치해 방범과 홍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여 신고 및 대화를 할 수 있고, 재난대피 방송이나 마을방송, 음악방송 송출도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 홍주천년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홍성군,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2019. 04. 09. | 홍성군

홍성군은 시 승격을 대비해 '공간정보통합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디지털 빅데이터를 통해 항공 영상을 받게 돼 홍성군의 시대별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각종 개발 및 시설물 관리 등 행정의 효율성 증대,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문화재 위치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군민들이 홍성의 도시발전 역사를 검색하고 고해상도의 항공 영상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모바일 앱 서비스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에도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 예산군, '올바른 광고문화공헌 부문' 대상 수상

2018. 12. 21. | 예산군

예산군은 제12회 「대한민국 환경문화공헌대상식」에서 '올바른 광고문화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환경보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불법 옥외광고물 감축 및 올바른 광고문화 구현에 이바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산군은 평소 도시미관 개선과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간판개선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하여 지역 경관개선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